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최 계 영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주 원

이 논문을 언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최 계 영

최계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漢淸文鑑』은 18세기 조선에서 간행된 만주어 사전이며 한어 사전이다. 청나라의 규범 언어 사전인 『御製增訂淸文鑑』을 저본으로 하여, 부피를 줄이고 한국어나 한문으로 기술된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조선인 역관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간행하였다. 18세기의 만주어와 한어, 한국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통시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나 만주어학자, 중국어학자들의 근대어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에서 간행한 『漢淸文鑑』을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축적된 다언어 사전 편찬의 전통 속에서 『漢淸文鑑』을 새로이 평가하였다. 『漢淸文鑑』에 사용된 세 가지 전사 체계는 조선의 외국어 학습과 사전 편찬 전통 속에서 성숙해 온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 『漢淸文鑑』의 의미 부류별 분류 체계는 조선의 편찬자들이 제작해 온 각종 다언어 사전의 체계와 동일한 궤에 놓여 있는 것이며, 한어를 표제어로 삼는 미시구조 체계 역시 조선의 전통적인 다언어 사전의 구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2.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 『漢淸文鑑』의 분류 체계를 재평가하였다. 어휘는 다른 어휘의 의미 영역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해당 어휘를 포함한 의미 영역 속에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漢淸文鑑』은 외국어 어휘를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문맥에서 어휘를 발화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 『漢淸文鑑』의 체재 개편과 대역 방향은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학습 사전의 기능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漢淸文鑑』의 사용자는 한어와 만주어에 대한 일정 정도 이상의 지

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학습자로 제한된다. 한문에 익숙하고 만문 뜻풀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인으로 사용자가 제한됨으로써, 명확한 파생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별도의 근거 없이도 대거 생략할 수 있었으며, 대역 방식도 단순 직역에 머무르지 않고 화용론적 맥락이 반영된 적극적인 번역과 적은 부피 내에서의 밀도 높은 어휘 정보의 수록이 가능했다.

4. 조선의 다언어 사전을 비롯한『漢淸文鑑』의 언어 관계가 평면적 다언어 구조가 아닌 기점언어와 목표언어가 각각 중첩적인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혔다.『漢淸文鑑』은 만주어와 한어라는 두 개의 기점언어와 한국어와 한문이라는 두 개의 목표언어로 기술되었으면서, 한어는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한어를 이중적인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선의 다언어 사전들이 보이는 공통점 중의 하나이다.

5.『御製增訂淸文鑑』에서 『漢淸文鑑』으로의 개편 양상을 통해, 편찬 당시 조선의 사역원 학자들의 만주어에 대한 인식과 만주어 지식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漢淸文鑑』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은 당시 편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긴 어휘들이며, 수록 표제항의 재구성은 편찬자들의 언어관이 투영된 것이다. 또한 표제어와 만문 전석의 변형 양상은 편찬자들의 만주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반영한다.

6.『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의 대조연구는 또한 淸文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漢』의 저본 확인 작업은『增』의 이판본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또한 만주인들에 의해 편찬된 일련의 淸文鑑들과는 달리『漢淸文鑑』은 제3자의 객관적 시점과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인들의 직관을 통해 당대 어휘 의미를 검증할 수 없는 현대 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 수행한『漢淸文鑑』과『御製增訂淸文鑑』의 대조 분석 작업은 이후 淸文鑑 연구를 비롯한 만주어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한청문감, 어제증정청문감, 사전학, 이중언어사전, 다언어사전, 만주어, 근대국어

학 번 : 2007-30726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v

표목차 ····· viii

1. 서론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3

1.3. 연구사 ····· 20

1.4. 논문의 구성 ····· 24

2.『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의 접근구조 ····· 26

2.1. 외부 접근구조 ····· 27

2.2. 내부 접근구조 ····· 35

3.『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의 거시구조 ····· 42

3.1. 표제어 삭제 ····· 42

3.1.1. 문법적 기준 ····· 45

3.1.1.1. 문법 정보 제시 ····· 45

3.1.1.2. 문법적 파생 ····· 56
3.1.2. 의미적 기준 ····· 63
3.1.2.1. 중복 ····· 64
3.1.2.2. 예측 가능성 ····· 65
3.1.2.3. 특수성 ····· 66

3.2. 표제어 변화 ····· 69
3.2.1. 표제어 분할 ····· 69
3.2.2. 표제어 배열 순서의 차이 ····· 72
3.2.3. 표제어형의 차이 ····· 78
3.2.3.1. 한어 ····· 79
3.2.3.2. 만주어 ····· 83

4.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미시구조 ····· 94
4.1. 미시구조의 유형 ····· 94
4.1.1. 기본 유형 ····· 94
4.1.2. 복합적 유형 ····· 99
4.2. 어휘 관계 정보 ····· 101
4.2.1. 一云 ····· 102
4.2.2. 소표제어 ····· 118
4.3. 전석 구문의 변화 ····· 126
4.3.1. 등가물 형식의 전석 ····· 127

4.3.2. 화용론적 정보의 유지 ····· 131
4.3.3. 명확한 전석으로 교체 ····· 137

5. 新註와 사전언어 ····· 141
5.1. 新註의 유형 ····· 142
5.2. 대역방식 ····· 153
5.2.1. 구조의존적 대역 ····· 153
5.2.2. 화용론적 맥락 중심의 대역 ····· 160
5.3. 『漢淸文鑑』의 이중적 사전언어 ····· 171

6.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의의 ····· 180
6.1. 사전사적 위치 ····· 183
6.1.1. 근대 이전의 서양 사전 ····· 184
6.1.2. 근대 이전의 중국 사전 ····· 186
6.1.3. 근대 이전 국내 사전 편찬 ····· 191
6.1.4. 조선의 만주어 사전 편찬과 『漢淸文鑑』 ····· 198
6.2. 유형론적 의의 ····· 200
6.2.1. 의미 부류별 분류사전 ····· 201
6.2.2. 전문가용 사전 ····· 204
6.2.3. 이중 언어 사전 ····· 207

7. 결론 ····· 211

참고문헌 ····· 215

Abstract ····· 224

표 목 차

<표 1>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권질 구성 비교 ····· 9
<표 2> 목록의 범주 구분을 위한 물리적 형태 비교 ····· 29
<표 3> 『漢』과 『增』 목록 부류명의 차이 ····· 31
<표 4> 『漢』과 『增』 목록에서 나타나는 오류들 ····· 33
<표 5> 『增』의 표제항 구성 ····· 36
<표 6> 『漢』의 표제항 구성 (기본구조) ····· 37
<표 7> 『漢淸文鑑』에서 사용된 부호 ····· 39
<표 8> 『漢淸文鑑』의 어휘수와 『增』에서 삭제된 어휘수 ····· 43
<표 9>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文學部 書類 第8) ····· 73
<표 10>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文學部 書類 第8) 재배열 ····· 74
<표 11>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人部 問答類 第2) ····· 75
<표 12>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人部 羞愧類) ····· 76
<표 13>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武功部 步射類 第1) ····· 77
<표 14> 미시구조 변화 ····· 95
<표 15> 『漢』 표제항의 여러 형태 ····· 100
<표 16> 漢語同上과 一云의 관계 ····· 105
<표 17> 『漢』 一云 어휘와 『增』 삭제 어휘의 불일치 ····· 115
<표 18> 『漢』 전석의 변개 비율 ····· 131
<표 19> 신주의 유형별 비율(%) ····· 148
<표 20> 부류별 대역 유형(%) ····· 149

1. 서론

1.1. 연구 배경

『漢淸文鑑』은 조선 정조 때 사역원에서 간행된 다언어사전이다. 청나라에서 간행된 『御製增訂淸文鑑』을 저본으로 조선에서 제작한 만주어 사전이며, 한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18세기의 한어와 만주어, 그리고 국어를 반영한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만주어학계에서는 중요한 문헌자료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전으로도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漢淸文鑑』에 대한 연구는, 청문감류와 함께 서지학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히 사전으로서의 특성이나 『漢淸文鑑』에 반영된 만주어의 특징, 혹은 『漢淸文鑑』을 포함한 조선의 사전 편찬 방식을 아우르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전학은, 실제적인 사전 편찬에 필요한 기술적 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전들과 근대 서양인들에 의한 사전들의 개별적인 편찬 과정과 종류 등은 한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적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정리되었지만, 그 초점은 자국어 사전으로서의 한국어 사전 편찬에 놓여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근대 이전 전통적인 사전들은 세부적인 유형들에 국한되어 다루어지거나 각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 함께 조망되었을 뿐 조선의 사전 유형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는 아직 미비하며, 동시에 조선의 사전 편찬의 성과들이 세계의 사전 연구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漢淸文鑑』은 조선 사전 편찬 전통의 정점에 있는 사전으로서의 고유

한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도 유형론적으로 독자적인 위치에 놓인다. 중국 사전 편찬사에서도 큰 획을 그은『御製增訂淸文鑑』을 저본으로 하여, 그 성과와 장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조선 특유의 편찬 전통에 맞추어 개편을 단행하고 조선인 사용자에게 특화시킨 사전이다. 그럼에도『漢淸文鑑』의 사전으로서의 특성과 의의는 아직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漢淸文鑑』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다.『漢淸文鑑』은 통찰력 있는 탐색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 연구에 의해『漢淸文鑑』의 특징적인 면들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가시적인 측면에 제한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가 피상적인 언급에 그쳤거나 미처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 범위를 넓혀『漢淸文鑑』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는 이 과정에서 저본인『御製增訂淸文鑑』과의 차이와『漢淸文鑑』의 개편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두 문헌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세밀한 비교 작업 속에서,『漢淸文鑑』의 편찬자들이 제작하고자 했던 사전의 성격과 그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셋째는『漢淸文鑑』에 나타난 만주어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저본이 있는 사전이면서도『漢淸文鑑』은 저본의 만주어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표제어형과 만문 전석에서『漢淸文鑑』은 저본의 어형을 변형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한다.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면『漢淸文鑑』의 만주어는 당시 조선인들이 이해하고 학습한 만주어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漢淸文鑑』의 사전으로서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조선의 사전 편찬 전통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서양과 동양, 특히 중국 그리고 조선에서 각기 개별적인 역사

를 가지고 있는 사전 편찬의 역사 속에서 『漢淸文鑑』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선의 사전류들을 자리매김하며, 동시에 서양 사전학에서 축적되어 온 이론적 바탕을 배경으로 『漢淸文鑑』을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현대의 서양 사전학계에는 자국어 사전 편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함께 다양한 자국어 사전 모델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언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다언어사전 개발이 중시되고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이론 역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漢淸文鑑』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사전과 다언어 사회를 위한 사전 편찬의 흐름 속에서, 근대 조선의 사전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 사전의 유형을 풍부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漢淸文鑑』은, 1773년 청나라에서 간행된 『御製增訂淸文鑑』(1771년 序)을 저본으로 개편한 것이다. 저본이 있는 사전이기 때문에 『漢淸文鑑』 연구는 『御製增訂淸文鑑』과의 대조가 불가피하다. 『漢淸文鑑』의 분류 체계와 수록 어휘, 표제어의 음가 표기, 의미 풀이의 근거 등은 모두 저본인 『御製增訂淸文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

『御製增訂淸文鑑』은 또한, 강희 47년 간행된 만주인들의 자국어 사전인 『御製淸文鑑』(1708년 序)을[2] 근간으로, 어휘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표제어에 한어 대역어와 함께 음가를 표기하여 새로 간행한 것이다. 『御

---

1 이하 각 사전을 약칭할 때, 『御』(『御製淸文鑑』), 『增』(『御製增訂淸文鑑』), 『漢』(『漢淸文鑑』)으로 한다.

2 『御製淸文鑑』이라는 서명은, 『御製增訂淸文鑑』이라는 서명에 비추어 후대에 붙인 것이다. 본래 문헌은 만주어로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 역시 만문인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황제가 만든 만주 말의 본보기 책)』로 한문 제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製淸文鑑』과 『御製增訂淸文鑑』의 관계는 자국어에 대한 만주인들의 시각과 함께 대륙을 경영하면서 갖게 되는 한어와 한인들의 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두 사전은 동일한 모델의 일언어사전과 이언어사전이라는[3]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御製淸文鑑』은 1만 2111개 어휘를 의미 부류별로 수록하고 자국어로 풀이한 만주어 일언어사전이다.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것으로, 모국어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보존의 필요성, 대륙을 경영할 언어로서의 지위 부여와 규범화에 대한 의지 등이 황제의 서문에 기술되어 있다. 어휘의 뜻풀이는 당대 만주인들의 언어 직관과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며, 뜻풀이에 사용된 어휘들은 대개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어휘들에는 중국 고전에서 추출된 용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만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서양의 자국어 일언어사전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거치며 독립된 국가로서의 고양된 민족의식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에 배경을 두고 있다. 반면 『御製淸文鑑』의 자국어 의식은 만주인들이 중국의 지배층이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사전 제작으로 발현된 구체적인 동인은 알 수 없다. 당시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5] 비슷한 시기에 동양과 서양

---

3 본고에서는 사전 언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때 일언어, 이언어, 다언어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각각 a monolingual dictionary, a bilingual dictionary, a multilingual dictionary에 대응한다. 이후 본고에서 사용될 '이중언어사전'이라는 용어는 '이언어사전'과는 달리 기점언어나 목표언어의 관계가 중첩적이라는 의미로 본고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다른 연구들에서 '이언어사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와는 다른 의미이다.

4 중국에서 '國語'라는 말은, 청나라 시기 한어가 아닌 만주어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20세기 초 외국어나 중국 내 비한어 혹은 비표준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에서 한어를 지칭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Norman (1988:133-136)

5 강희제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선교사들의 활약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황제는 선교사들에게 수학, 철학 등의 서양 학문을 배웠으며,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양의 의학, 물리학 서적들을 만주어로 번역하였다. 서양식 측량 기술을 도입한 실측 지도 『皇輿全覽圖』(,1719)가

에서 모국어 보존과 규범화라는 비슷한 의식이 싹튼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御製淸文鑑』 간행 이후 건륭제에 이르면, 시대와 언어의 변화로 인해[6]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를 추적하기 어려운 어휘들의 존재와 한자 음차 표기 어휘들에 대한 고민 등이 반영되어 사전을 증정하여 개편하게 된다. 『御製增訂淸文鑑』에서는 음차해서 사용하던 한어 어휘를 번역하거나 고유어와 조합하여 새로운 어휘로 바꾸어 수록했으며, 대륙의 경영과 학문 등에 필요한 6717개 어휘를 추가하였다.[7] 또한 『御製淸文鑑』의 고전 인용문은 모두 삭제되지만, 연어구와 같은 사용례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御製增訂淸文鑑』의 어휘와 뜻풀이의 개편은 사전의 실용성을 강화시키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개편은 동시에 규범적인 언어사전으로서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

『御製增訂淸文鑑』은 『御製淸文鑑』의 큰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표제어에 한어 대역어를 수록하면서 사전의 성격은 크게 바뀐다. 모국어 뜻풀이를 수록한 이언어 대역사전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대역어에는 각기 한자와 만주자로 해당 어휘의 음가를 교차 표기하였다. 이언어사전으로서 『御製增訂淸文鑑』의 형식은 세계 사전사에서도 독보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일언어사전 뜻풀이

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선교자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관찰한 중국의 정치, 언어, 학문, 자연 등의 정보를 편지를 통해 서양에 전달하였고, 이 서간문이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라는 연속 간행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 서간문 중에는 『御製淸文鑑』 간행과 관련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김은희 2013:121) 『御』의 간행은 만주인들의 자국어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어휘를 수집하고 사전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생경한 모습으로 비춰진 듯하다.

6 『增』의 御製序의 첫머리에서는 '*julge be kimcici gisun leolen bithe hergen i ulahangge, ba be tuwame, erin be dahame, jalan jalan de kūbulime halarakū ome muterakū* (옛 것을 자세히 살피니, 언어와 문자가 전해 온 것이, 지역과 시기를 따라, 수세대에 걸쳐 변하여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하며 편찬의 첫 이유를 밝히고 있다.

7 『御製增訂淸文鑑』의 御製序에서는 '더하여 넣은 새로 정한 만주 말'이 5천 개가 넘는다고 기술하였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새로 추가된 어휘는 6,717개이다. 이 중 補編에 수록된 것이 1619개, 1차 속입신어 39개, 2차 속입신어가 135개이며, 기존의 어휘를 바꾸어 수록한 것은 400개 정도이다.

를 수록하고 있는 이언어사전의 유형은 최근에야 나타나는 이언어화한 (bilingualised) 학습 사전 유형과 비견되는 것이다. 이는 사전 유형론적으로 능동적인 이언어사전으로서 양방향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漢淸文鑑』은 『增』의 유형론적인 독창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이를 다시 조선식으로 개편하며 독자적인 풀이를 추가한 다언어사전이며 이중언어사전이다. 청나라에서는 『增』의 간행 이후, 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변국 언어의 어휘들을 추가하여 일련의 다언어 淸文鑑을 연속해서 간행한다. 몽골어가 추가된 『御製滿珠蒙古漢字三合切音淸文鑑』(1780序), 티베트어가 추가된 『御製四體淸文鑑』(간년 미상), 위구르어가 추가된 『御製五體淸文鑑』(1794)이 모두 청문감류로 분류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사전들이다.[8] 반면 조선과 조선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조선의 위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을 漢의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 nikan, solho juwe gurun gisun encu gojime, etuhe etuku banjire doro emu adali kai, (명과 조선 두 나라는 말이 다를 뿐, 입은 옷과 사는 도리는 하나와 같다.) <만문노당 10:33:6>

조선어 사전에 대한 계획이 청나라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에서는 독자적인 淸文鑑을 제작한다. 그 체재와 만주어 및 한어의 어형을 고려했을 때 『漢淸文鑑』이 『增』을 저본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 청나라에서 직접 편찬된 『增』 이후의 淸文鑑들은 만문 전석을 생략하고 있는 것에 비해 『漢淸文鑑』은 만문 전석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만문 전석의 필요성 때문이었겠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淸文鑑류 제작과는 별도

---

8 淸文鑑류를 포함한 청나라의 만주어 사전 편찬 개요는 정제문, 김주원(2008)에 정리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서지와 편찬 배경, 소장 사항 등에 대해서는 春花(2008)를 참고할 수 있다.

의 간행 작업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은 구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사전에는 그다지 몰두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구어 자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본토의 공시 한어라기보다는 중국 주변의 이민족 언어와 본토 내의 방언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나 무역에서 언제나 하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러나 중국의 구어 어휘와 발음 등은 중국을 왕래하는 역관들에 의해 조금씩 수집되고 기록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언어 사전을 편찬한 것은 조선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비록『增』이 구어 한어를 중심에 놓은 사전은 아닐지라도, 만주어를 대역하기 위해 사용된 한어는 당시의 공시적인 구어 한어였으며[9], 음소문자인 만주자로 해당 한어의 발음까지 표기해 놓은 대단히 실용적인 사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漢淸文鑑』의 간행 배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漢淸文鑑』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다른 사료에도 간행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간행 연도와 과정을 알 수 없다.『漢淸文鑑』의 간행을 둘러싸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 문헌은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간행이 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漢淸文鑑』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원서가 확실한『增』의 간행 시기에서부터『漢淸文鑑』이 언급된『古今釋林』사이의 시기, 그리고 문헌 말미에 수록된 편찬자들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漢淸文鑑』의 완질본은 전 세계에 두 종 존재한다.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과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그것이다.[10] 성백인(1998:1)에서 밝힌『漢淸文鑑』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9 송기중(1985:346)에서는『漢淸文鑑』표제어의 한어 발음이 당시 북경관화음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표제어 자체가 구어 한어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근대 한어의 어휘 체계와 실제 구어와의 관계 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0 그러나 현재 동경대학 도서관본은 소재가 불분명하다.

漢淸文鑑
司譯院(朝鮮)編, 刊年未詳(1779?), 15卷 15冊, 分類,
卷頭 및 版心 書名 : 漢淸文鑑, 木版本:
① 4+10+51 ② 63 ③ 57 ④ 57 ⑤ 60 ⑥ 67 ⑦ 59 ⑧ 75 ⑨ 79 ⑩ 70 ⑪ 62 ⑫ 66 ⑬ 65 ⑭ 55 ⑮ 38+3葉, 總 941葉,
四周雙邊, 半葉匡郭, 23.3×17.3cm, 有界 8行, 注雙行,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그리고 아래는, 본고에서 『漢淸文鑑』과 일차적으로 대조작업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하 서울대본) 『御製增訂淸文鑑』에 대해 도서관에서 밝힌 서지사항이다.

刊寫者未詳, 乾隆 36(1771), 32卷47冊8匣
卷頭 및 版心 書名 : 御製增訂淸文鑑, 木版本:
四周雙邊 半郭 21.5 x 16.6 cm, 行字數不定, 無魚尾 ; 28.5 x 18.5 cm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권질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漢淸文鑑』의 판본은 1종이기 때문에 소장본의 권질 구성이 동일하지만, 『御製增訂淸文鑑』은 소장본에 따라 구성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11] 다음 표는 서울대본과 비교한 것이다.

11 성백인(2003:151-152)에서 밝힌 『增』의 구성 내용에 의하면, 서울대본 『增』은 御製淸文鑑序와 補編 總綱이 빠져 있다.

<표 1>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권질 구성 비교

『御製增訂淸文鑑』(서울대본)		『漢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序 1책			없음
正編 32권 32책	目錄은 권1 앞부분에 합본됨	正編 14권 14책	凡例, 目錄 권 1 앞부분에 수록
補編 4권 4책	26류	補編 1권 1책	23류
續入新語(1차, 2차) 1책			없음
十二字頭 1책			없음
總綱 8권 8책			없음
총 44권 47책 (總 2364葉/ 正編과 補編만 더했을 때 1858葉)		총 15권 15책 (總 941葉)	

『漢淸文鑑』 첫머리의 범례에서는 『漢淸文鑑』의 편찬 이유와 방향, 저본인 청문감에서 개편한 주요한 사항들을 21개의 조를 들어 설명하였다. 다소 길지만 전문을 옮겨 살펴보겠다.[12]

(1) 『漢淸文鑑』 범례

1[13] 淸文鑑本爲較訂淸語而作故專以淸語爲主凡係事物無不備載且有註釋纖悉該

[12] 범례를 포함하여 『漢』 내의 한글로 표기되었던 모든 만주자는 로마자로 옮겼다. 만문 전사 방식은 Möllendorff식을 따랐으며, 특수문자 표기는 성백인(1977)의 전사법을 따랐다. 『漢』 만문의 한글 전사 표기는 성백인(1984)에 의거했다. 로마자로 전사된 만문은 영문과의 구별을 위해 본고에서 예문이 아닌 본문에서 기술해야 할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할 것이다.

[13] 원문의 전 조항은 '一'로 표시되지만,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표시한다.

暢實淸語之淵藪至若漢語則不過附揭而傍照肰其所爲語率適時用亦足爲後學蹊逕且章程事例間多可觀而所欠者無註釋耳若不文以註之諺以釋之則恐無以曉解故更加編摩改定體制首著漢語而繫以新註下附淸語而仍用原釋庶漢淸二語詳略得中覽閱俱便遂更名曰漢淸文鑑書凡十五卷三十六部二百八十七類

(淸文鑑은 본래 淸語를 較訂하여 저작한 것이므로 오로지 淸語가 중심이다. 무릇 사물에 관계되는 모든 말이 다 실려 있지 않음이 없고, 또 주석이 자세하고 명확하여 실로 淸語의 淵藪이다. 漢語의 경우는 덧붙여 게재하여 傍照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한 말은 대략 현 시대에 사용하는 말에 맞으니 역시 後學의 지름길이 될 만하고, 또 기술 방식과 사용례에서 볼 만한 점이 많으나 결점은 주석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漢文으로 주석을 달거나 諺文으로 풀이를 하지 않는다면 잘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다시 編次를 더하고 체제를 개정하여 먼저 漢語를 쓰고 이어 新註를 달고 아래에 淸語를 붙였으며 原釋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어와 청어 두 언어의 자세하고 간략함이 알맞도록 하여 읽고 보기에 모두 편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리하여 이름을 漢淸文鑑이라 바꾸었다. 이 책은 15卷 36部 287類이다.)[14]

『漢淸文鑑』의 간행 목적과 방식은 1조와 2조에서 알 수 있다. 범례 1조의 내용은 『漢淸文鑑』을 한어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균형 잡힌 두 언어 학습 사전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增』의 한어 대역어는, 피지배민족이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한어 화자들에게 만주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만주어 사용을 무조건 강제하기보다 만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만주어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增』의 한어는 만주어 어휘에 대한 대역어이며 보조적 기능을 한다.

한편 이 조항의 내용은 당시 조선에 만주어 사전에 대한 필요성 못지않게 한어 사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한어 대역어에 대해 한문으로 주석을 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增』의 한어가 조

[14] 1조와 2조의 번역은 성백인(1999:39-40)과 고동호(2014:10-11)의 해석을 크게 참조하였다.

선인들에게 익숙하던 한문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의도에 따라 『漢淸文鑑』은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과 한국어로[15] 작성한 新註를 수록했다. 신주는 한어에 대한 주석이 강화되었지만, 이는 만주어 주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16] 따라서 한어를 먼저 제시하는 형태로 체재를 바꾼 것도, 보조적이었던 한어에 대해 주석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실용적인 사전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다.

> 2 門類分排一從原書而但卷帙甚大不可不節删故語套之冗瑣者删之註解之支離者節之言文差殊不可不推移者或因漢語文義而釋之或從淸註語勢而解之或漢淸二語之互有緊冗者不可取彼而遺此故並存之至若淸語之有一語兩義者並書而書又字以別之
> (門類의 排分은 한결같이 원서를 따랐다. 다만 卷帙이 甚大하여 删削調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語套가 번잡한 것은 删削하고 주석이 支離한 것은 조절하였으며, 言과 文이 차이가 있어 미루어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漢語의 文義에 따라 풀이하거나, 혹은 淸語 주석의 어세에 따라 해석하고, 혹 한어와 청어 두 언어가 서로 긴밀하게 뒤섞인 것은 저것을 취하고 이것을 버릴 수 없어 병존시켰으며, 만주어의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진 경우에는 아울러 쓰되 '又'자를 써서 이를 구별하였다.)

범례 2조에서는 이어서 『漢淸文鑑』 개편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2조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들은 곧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여 다시 살펴보겠다.

(2) 『漢淸文鑑』 개편 방식[17]

---

15 18세기 조선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문자는 구별 없이 한국어와 한글로 통칭한다.

16 마찬가지로 성백인(1983/1999:42-48)에서는, 『漢淸文鑑』이 '漢主滿從'이라는 今西春秋(1958:33-34)의 의견을 반박하며, 이는 淸語爲主의 저본을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는 대등한 한어 겸 만주어사전으로 개편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 제시한 순서는 중요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례에서 언급한 사항을 순서대로 요약한 것이

① 原書의 卷帙이 몹시 크기 때문에 깎고 줄였다.
② 語套가 번잡한 것은 깎고 줄였다. 註解가 지리한 것은 잘랐다.
③ 言과 文이 차이가 있어 推移해야 하는 것은, 漢語의 文義에 따르거나 淸註의 語勢를 따라 해석하였다. 漢淸 두 언어가 서로 굳게 섞인 것은 둘 모두 남겨 두었다.
④ 淸語의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쓰되 又자를 써서 그것을 구별하였다.

(2)의 ①은 『漢淸文鑑』을 제작함에 있어 『增』에서보다 부피를 줄이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표제어의 수를 대폭 줄인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표제어 삭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범례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된 어휘와 삭제된 어휘의 관계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②는 만문 전석을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원서의 부피를 줄인 방법은 표제어의 수만 줄인 것을 넘어, 만문 전석의 부피도 줄이게 되는데, 이때 수정의 근거를 번잡하거나 지리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들고 있다. 어떤 것을 번잡하거나 지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 역시 『漢』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③은 新註의 해석 방침이다. '言'과 '文'이 차이가 있다는 대목에서 '言'과 '文'이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동호(2014:11)에서는 '言'을 만주어로, '文'은 한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범례 1조에서 밝힌 『漢』의 간행 목적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이를 각각 '구어 한어'와 '문어 한어'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漢』의 편찬자들의 입장에서 한어 대역어의 문어적 해석이 만주어 표제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한어 대역어가 문어적 해석과 구어적 쓰임이 서로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문어적 해석을 따르거나 만주어 어휘 의미를

다.

바탕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범례의 이 조항은 『漢淸文鑑』의 한어 사전으로서의 특성을 특히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기준과 이유에 의해 해석할 어휘의 근거 대상을 선정하는지는 범례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는 실제 대역어의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④는 다의어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함께 언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부호 사용에 대한 언급이다. 『增』뿐만 아니라 『漢』 역시 의미별 분류 사전이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는 어휘가 속한 의미 부류에 따른 맥락 속에서 재해석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의어는 여러 부류에 걸쳐 여러 번 수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류에 속한 어휘가 다의성을 가질 때 '又'라는 부호를 사용하여 여러 의미를 나열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18] 실제 『漢』에서는 '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의 종류를 인식하고 접근하기에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3 我人之酬酢漢語不善相曉者專由字音之未協耳盖我人所習漢音一從四聲通解 肰通解之音與文鑑已多不同而釋音之法亦有異焉文鑑則漢字釋音皆以淸字而或用一字或用二合切音或用三合切音就以商相二字論之通解釋音則俱一샹字而文鑑則商字音直以샹之一字釋之相字音以시양二合切音釋之知此法則庶乎字得其音故此書釋音一從原書之法

(우리가 한어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잘 통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글자의 음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우리가 한어음을 배우는 데에 하나같이 四聲通解를 따르는 까닭에 通解의 음과 文鑑이 이미 같지 않은 것이 많고 음을 읽는 방법이 또한 다름이 있다. 文鑑은 한자 음풀이가 모두 만주자로 되어 있으며, 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합절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삼합절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商과 相의 두 글자의 경우, 通解의 음풀이는

18 '又'와 같은 표기는 메타언어라고도 지칭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부호'라는 명칭으로 통칭할 것이다.

모두 ‘샹’ 한 글자이지만, 文鑑은 商자는 ‘샹’이라고 한 글자로 읽고 相자는 이 합절음으로 ‘시양’이라 읽는다. 이 법을 알면 글자의 정확한 소리에 가깝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책의 음풀이는 한결같이 원석의 방식을 따랐다.)

4 五音淸濁之法俱載於通解等書玆不贅焉
(五音淸濁의 방법은 通解 등의 책에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군더더기를 달지 않겠다.)

5 시字中有스이合音지字中즈이合音치字中츠이合音者皆傍圈而別之˚시지˚치˚是也如西시十스이濟지之즈이七치赤츠이之類可証
(‘시’자 중에 ‘스이’ 합음과 ‘지’자 중에 ‘즈이’ 합음, ‘치’자 중에 ‘츠이’ 합음인 것은 모두 옆에 동그라미를 달아서 구별한다. ‘˚시 지˚ 치˚’가 그것이다. 西는 ‘시’, 十은 ‘스이’, 濟는 ‘지’, 之는 ‘즈이’, 七는 ‘치’, 赤는 ‘츠이’ 같은 종류를 밝힐 수 있다.)

6 리字之리이合音者以레書之
(‘리’자가 ‘리이’ 합음인 것은 ‘레’로 쓴다.)

7 쉬字之시위쥐字之지위취字之치위合音者並傍圈之˚쉬˚쥐˚취是也
(‘쉬’자가 ‘시위’, ‘쥐’자가 ‘지위’, ‘취’자가 ‘치위’ 합음인 것은 모두 옆에 동그라미를 단다. ‘˚쉬’, ‘˚쥐’, ‘˚취’가 그렇다.)

8 샤字샤야間音셔字셔여間音쇼字쇼요間音슈字슈유間音싀字시이間音봐字바아間音벼字버어間音보字보오間音부字부우間音비字비이間音也
(‘샤’자는 ‘샤야’ 사이의 소리이고, ‘셔’는 ‘셔여’ 사이의 소리이며, ‘쇼’자는 ‘쇼요’ 사이의 소리이고, ‘슈’자는 ‘슈유’ 사이의 소리이고, ‘싀’자는 ‘시이’ 사이의 소리이다. ‘봐’자는 ‘바아’ 사이의 소리이고, ‘벼’자는 ‘버어’ 사이의 소리이며, ‘보’자는 ‘보오’ 사이의 소리이고 ‘부’자는 ‘부우’ 사이의 소리이고, ‘비’자는 ‘비이’ 사이의 소리이다.)

9 와字아오之重音유字이우之重音他如갸댜무뮤之類倣此
(‘와’자는 ‘아오’의 겹소리이고, ‘유’자는 ‘이우’의 겹소리이므로, ‘갸, 댜, 무,

뤄’ 등이 이를 따른다.)

10 ㅑ類냐字卽니야之二合切音讀如냐字캬갸햐倣此
(‘ㅑ’ 종류의 ‘냐’는 즉 ‘니야’의 이합절음으로 ‘냐’로 읽으며, ‘캬, 갸, 햐’도 이를 따른다.)

11 ㅑ類냔字니얀切讀如냔字뱐퐌샌탠댠롼맨챈쟨캔갠핸倣此如先샌前챈奮쟨是也샌챈쟨原書不切如山샌産챈詹쟨是也
(‘ㅑ’종류의 ‘냔’자가 ‘니얀’으로 절음하여 ‘냔’자로 읽는데, ‘뱐, 퐌, 샌, 탠, 댠, 롼, 맨, 챈, 쟨, 캔, 갠, 핸’이 이를 따르며, ‘先샌’, ‘前챈’, ‘奮쟨’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샌, 챈, 쟨’을 원서에서 절음하지 않은 것은 ‘山샌’, ‘産챈’, ‘詹쟨’과 같은 것들이 있다.)

12 ㅐ類캐字키얘切讀如캐字걔햬倣此
(‘ㅐ’ 종류의 ‘캐’자는 ‘키얘’ 절음으로 ‘캐’와 같이 읽으며, ‘걔, 햬’가 이를 따른다.)

13 ㅑ類냥字니양切讀如냥字샹량챵쟝캉걍향倣此亦有不切者샹챵쟝是也
(‘ㅑ’ 종류의 ‘냥’자는 ‘니양’으로 절음하며 ‘냥’자로 읽는다. ‘샹, 량, 챵, 쟝, 캉, 걍, 향’이 이를 따른다. 또한 절음하지 않는 것으로 ‘샹, 챵, 쟝’이 있다.)

14 ㅔ類볘字비예切讀如볘字녜폐쉐톄뎨례몌쳬졔켸계혜倣此
(‘ㅔ’ 종류의 ‘볘’자는 ‘비예’로 절음하여 ‘볘’로 읽고, ‘녜, 폐, 쉐, 톄, 뎨, 례, 몌, 쳬, 졔, 켸, 계, 혜’가 이를 따른다.)

15 ㅛ類쇼字시요切讀如쇼字룐최쾨죄횐倣此亦有不切者쇼죠쵸是也
(‘ㅛ’ 종류의 ‘쇼’자는 ‘시요’로 절음하고 ‘쇼’자로 읽고, ‘룐, 최, 쾨, 죄, 횐’가 이를 따른다. 또한 절음하지 않는 것으로 ‘쇼, 죠, 쵸’가 있다.)

16 ㅑ類퐈字피얘切讀如퐈字냐뱌탸댜롸샤먀챠쟈캬갸햐倣此亦有不切者샤챠쟈是也
(‘ㅑ’ 종류의 ‘퐈’자는 ‘피얘’ 절음이며 ‘퐈’로 읽고, ‘냐, 뱌, 탸, 댜, 롸, 샤, 먀,

챤, 쟌, 캔, 걘, 핸'가 이를 따른다. 또한 절음하지 않는 것이 '샨, 챤, 쟌'가 있다.)

17 ᄀᆞᆫ類ᄌᆞᆫ字지윤切讀如쥰字ᄉᆞᆫ칸간환倣此亦有不切者슌쥰是也
('ᄀᆞᆫ' 종류의 'ᄌᆞᆫ'은 '지윤' 절음자로 '쥰'으로 읽고, 'ᄉᆞᆫ, 칸, 간, 환'이 이를 따른다. 또한 절음하지 않는 것이 '슌, 쥰'이 있다.

18 如가거고구기之類俱是單音至如과궈궤관광之類俱是切音肰讀無二法故直以本樣字書之而其中ᄉᆞᆫ촨완三字文鑑釋音亦有二合三合切之殊如栓選之音同一ᄉᆞᆫ字而栓以슈완切選以시유완切如川泉之촨則川以츄완切泉以치유완切如元圓之완則元以유완切圓以이유완切同音而異切者如此故ᅀᆞᆫᅀᆞ촨ᅀᆞ완之三合切者圈之淸字中一字兩樣者亦圈之ᅀᆞ쉐ᅀᆞ줴스ᅀᆞ是也文鑑中한샨쟌관젼얀은七字皆有ㄴ傍小點故亦從之
('가, 거, 고, 구, 기'와 같은 종류는 모두 단음이다. '과, 궈, 궤, 관, 광'과 같은 종류는 모두 절음이지만 읽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없으므로 원래의 모양 글자로 쓴다. 그러나 그 중 'ᄉᆞᆫ, 촨, 완' 세 글자는 文鑑에서는 이를 이합자로 절음하거나 삼합자로 절음하는 차이가 있다. '栓'과 '選'의 경우 소리는 동일하게 'ᄉᆞᆫ'자이지만 '栓'은 '슈완'으로 절음하고 '選'은 '시유완'으로 절음하며, '川'과 '泉'의 '촨'은 즉 '川'은 '츄완'으로 절음하고 '泉'은 '치유완'으로 절음한다. '元'과 '圓'의 '완'은 즉 '元'은 '유완'으로 절음하고 '圓'은 '이유완'으로 절음하여, 소리가 같으나 다르게 절음하는 것들은 이와 같다. 'ᅀᆞᆫ, ᅀᆞ촨, ᅀᆞ완'의 삼합절음한 것에는 동그라미를 붙인다. 만주자 중 한 글자가 두 개의 모양인 것은 또한 동그라미를 다는데 'ᅀᆞ쉐, ᅀᆞ줴, 스ᅀᆞ'가 그러하다. 文鑑 중에서 '한, 샨, 쟌, 관, 젼, 얀, 은' 일곱 글자는 모두 'ㄴ' 옆에 작은 점을 붙이므로 또한 그것을 따른다.)

19 漢字釋音中如ᄉᆞᆫ字本音신而今爲션者ᄉᆞᆫ卽신션二音之間也塵쳔眞젼聲셩程청正졍守ᄉᆞᆫ抽ᄎᆞᆫ周ᄌᆞᆫ之類是也如沙사之爲샤者卽古正音也所쇼卓죠助쥬察챠閘쟈涯얘水쉬柴채吹취山산産챤站쟌稍샨罩쟌抄챤鐘죵充츙霜샹之類是也他如번爲반펀爲판먼爲만원爲완인爲연신爲션숭爲슝즘爲즌ᄉᆞᆷ爲션之類甚多覽者詳之
(한자의 음풀이 중 'ᄉᆞᆫ'자와 같은 것은 본래 음이 '신'이며 지금은 '션'인 것으로, 'ᄉᆞᆫ'은 즉 '신'과 '션' 두 음 사이이다. '塵쳔', '眞젼', '聲셩', '程청', '正졍',

‘守셔’, ‘抽쳐’, ‘周져’ 종류가 그러하다. ‘沙사’와 같이 그것을 ‘샤’라 하는 것은 즉 옛 정음이다. ‘所쇼’, ‘卓죠’, ‘助쥬’, ‘察챠’, ‘閘쟈’, ‘涯얘’, ‘水쉬’, ‘柴챼’, ‘吹취’, ‘山샨’, ‘産챤’, ‘站쟌’, ‘稍샨’, ‘罩쟌’, ‘抄챨’, ‘鐘쥥’, ‘充츙’, ‘霜솽’이 이러하다. 달리 ‘번’을 ‘반’이라 하고, ‘펀’을 ‘판’이라 하고, ‘먼’을 ‘만’이라 하고, ‘원’을 ‘완’이라 하고, ‘인’을 ‘연’이라 하고, ‘신’을 ‘션’이라 하고, ‘숭’을 ‘슝’이라 하고, ‘즘’을 ‘즌’이라 하고, ‘심’을 ‘션’이라 하는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읽는 이들은 자세히 살피기 바란다.)

범례 21개의 내용 중 3조에서 19조까지는 한자음 표기에 관한 것이다. 범례의 대부분이 한자음 표기를 다룬다는 점에 대해 『漢淸文鑑』 자체가 한자 주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라는 견해(今西春秋 1958:33-34)도 있다. 그러나 『漢淸文鑑』 이전에도 사역원에서는 청학서를 간행해 온 역사가 있으며 이 때 만문 전사 방식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표기 방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19] 이에 비해 만문으로 전사된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은 『漢淸文鑑』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기존 한학서들의 한자 주음 방식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20] 따라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정밀한 범례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즉, 성백인(1999:26-2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漢淸文鑑』의 漢語音 한글 표음은 漢語音과 만주자 漢語音 표기 방법을 익히 알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매우 복잡한 표음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범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한어 학습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특히 한어의 발음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재를 만드는 일이 사역원에서는 중요

---

19 성백인(1994/1999:117)에서는 사역원 청학서들의 한글 전사 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만문에 병기하여 표시한 것을 편의상 제1 전사법으로, 만문 없이 한글로만 적은 것을 제2 전사법으로 지칭했다. 그리고 『漢』에서 한자음 표음에 사용된 것은, 한어에 붙인 만주자 표음을 다시 한글로 전사한 것으로서 앞의 둘과 구분하여 제3 전사법으로 지칭하였다.

20 필사본 『五方元音』 訓民正音 音解本에서 한자음 전사에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曲曉雲 2012) 그러나 이 역시 정식 간행된 문헌은 아니며, 시기도 알 수 없어, 『漢淸文鑑』 간행 이전에 한자음 전사법을 시험해 본 것인지 아니면, 『漢淸文鑑』 간행 이후 적용해 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 과업이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됨과 동시에『東國正韻』등의 운서가 간행되었던 것 역시 음성 표기에 적합한 문자를 통해 한어 발음을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나라 내에서 음소문자를 통해 한어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사역원 역관들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增』의 간행을 통해 조선의 역관들은 대규모의 생생한 한어 어휘와 그 발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增』의 간행 이후『漢』의 간행이 매우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당시 사역원에서 구어인 한어를 현장감 있게 학습하려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다.『漢』간행 연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古今釋林』(1789)에서『漢淸文鑑』이 언급된 것만 고려하더라도 1790년을 넘지 않는다. 원본인『增』을 연구하고, 표제어의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만문 전석을 개편하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을 고려한다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음이 분명하다.

20 淸字中有異施或借用之法書以ㅗㅗㅗ而讀以ㅗㅗㅗ如傲ㅇㅗoo少ㅅㅗšoo鳥ㄴㅗniyoo是也書以ㅢㅇ而讀以ㅢㅇ如玉ㅢioi穹ㅋㅇkiong是也書以ㄶㄶ而讀以ㄶㄶ如雲ㅇㅜyūn巡ㅅㅜsiyūn是也書以ㄶㅙ而讀以ㄶㅙ如選ㅅㅜsiowan雪ㅅㅙsiowei是也此異施之法也至若ㅢㄴㅇㅜㄹ等音則淸書原無此等字故代以ㅔㄴㅇㅜㄹ如內ㄴㅢnei恩ㅇㅡnㅇㅡng毆ㅇㅜeo二ㅇㅡl也此借用之法也他如微ㅢwei文ㅇㅜnwen之類亦多學者當推以詳之

(만주자 중에는 異施之法과 借用之法이 있다. ‘ㅗ’, ‘ㅗ’, ‘ㅗ’로 쓴 것은 ‘ㅗ’, ‘ㅗ’, ‘ㅗ’로 읽으며, ‘傲ㅇㅗ oo’, ‘少ㅅㅗ šoo’, ‘鳥ㄴㅗ niyoo’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ㅢ’, ‘ㅇ’으로 쓴 것은 ‘ㅢ’, ‘ㅇ’으로 읽으며 ‘玉ㅢ ioi’, ‘穹ㅋㅇ kiong’이 그러하다. ‘ㄶ’, ‘ㄶ’으로 쓴 것은 ‘ㅜ’, ‘ㅜ’으로 읽으며, ‘雲ㅇㅜ yūn’, ‘巡ㅅㅜ siyūn’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ㄶ’, ‘ㅙ’로 쓴 것은 ‘ㅜ’, ‘ㅙ’로 읽으며 ‘選ㅅㅜ siowan’, ‘雪ㅅㅙ siowei’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것이 異施之法이다. ‘ㅢ’, ‘ㄴ’, ‘ㅇ’, ‘ㅜ’, ‘ㄹ’ 등의 소리는 만주글에 원래 없으므로 ‘ㅔ’, ‘ㄴ’, ‘ㅇ’, ‘ㅜ’, ‘ㄹ’로 대신 한다. ‘內ㄴㅢ nei’, ‘恩ㅇㅡ en’, ‘能ㅇㅡ neng’, ‘毆ㅇㅜ eo’, ‘二ㅇㅡ el’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것이 借用之法이다. 달리 ‘微ㅢ’를 ‘wei’로, ‘文ㅇㅜ’을 ‘wen’으로 하는 등의 종류가 또한 많다. 배우는 이는 마땅히 미루어 살펴야

한다.)

21 漢淸語諸書中諺文大槩相同而其中如瓜字漢諺用과淸諺用과今從淸書之法과 ㆍ皆以과과書之
(한어와 청어는 책 중에서 언문으로는 대개 같은데, 그 중 瓜자를 한자-언문은 '과'를 쓰고, 만주자-언문은 '과'를 쓴다. 지금은 만주자책의 방법을 따라 '과' 나 'ㆍ'를 모두 '과', '과'로 쓴다.)

20조와 21조는 앞의 조항들과 비교하면『漢淸文鑑』만문 표기의 다소 일반적인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만문의 異施淸字에 대해서는 만주어의 대표적인 학습서인『淸文啓蒙』(1730)에서도 기술된 바 있는데, 성백인(1976/1999)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였다. 즉, 범례 20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異施之法과 借用之法은 당대 한자음에 대한『漢淸文鑑』의 독자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특히 한자어나 차용어의 경우 만주어의 표기가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축적된 만주어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조는 원서의 만문 표기를 그대로 전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음의 실제 발음에 따라 전사하는 용례를 기술한다. 반면 21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면 조선의 기존 관습에 의한 표기가 아니라 만문을 그대로 전자하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시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漢淸文鑑』의 개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의 전권을 교차 대조하였다.[21] 두 문헌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형에 한하여『增』의 다른 판본을 다시 대조하였다. 이는 두 문헌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느 한 쪽의 오류이기 때문이 아니라『漢』의 저본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1 대조 작업에 이용한『增』과『漢』두 문헌은 순천대학교 정제문 교수의 입력 자료로, 이는 '만주어문학의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만주어 사전 및 만주문학 자료 DB 구축'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 분석을 수행하며 원문 대조와 수정을 거쳤으나, 남은 오류는 필자의 몫이다.

본고에서 『漢』과의 일차적 대조 대상으로 삼은 『增』 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3903-10)이며 성백인(2003), 성백인 외(2004)에 의하면 이는 복각본 계열이다. 교차 대조를 위해 사용한 판본은 원간본 계열인 日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大木文庫 經42(이하 오오키본)와 정본의 필사본인 文淵閣 四庫全書 抄本이다.

1.3. 연구사

『漢淸文鑑』이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Courant (1894-1896:90)에 의해서이다. 이후 사역원의 역학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漢淸文鑑』이 주요 문헌으로 항상 거론되지만, 그러한 비중과 문헌의 가치에 비해 『漢淸文鑑』을 중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漢淸文鑑』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문헌의 소장처와 서지, 간행 시기와 배경을 주로 다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漢淸文鑑』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韓漢淸文鑑』(1956)이라는 서명으로 영인본이 발간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閔泳珪(1956)은 『韓漢淸文鑑』의 해제로서, 사역원 청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개요와 『漢』의 간행 시기, 『漢』의 문헌적 가치, 그리고 서명을 '漢淸文鑑'이 아닌 '韓漢淸文鑑'으로 붙이게 된 까닭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漢』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당시 편찬자들의 직위와 사역원의 다른 청학서들의 만문 전사 표기와의 관계를 근거로 小倉進平(1940)에서 추산한 1775년보다 늦은 1779년경으로 추정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에게 이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뒤이어 국내에서는 유창돈(1957)과 같이 한국어에 차용된 만주어 어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漢淸文鑑』을 이용한 연구가 나타나지만, 본격적인 『漢淸文鑑』 연구의 시작은 今西春秋(1958)라고 하겠다. 문헌의 구성과 체계, 저본인 『增』에서의 변개 사항, 삭제된 어휘들의 종류와 표제항 구성의 특징, 한글 전사 방식의 의의와 양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개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나라의 淸文鑑 편찬 과정에서부터 『漢淸文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漢』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한 상세하고 통찰력 있는 성과이며 이후 연구자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업적이지만, 제시된 수치와 예에 무시하기 어려운 오류들이 존재한다.

초기부터 『漢淸文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전사방법이다. 『漢』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전사법을 사용하였는데, 만문 전사에 사용된 두 가지 방식은 사역원의 연구 전통 속에서 축적되고 검증된 것이었으며, 새로 시도된 한어 전사법에 대해서는 『漢』의 범례에서 공들여 설명하고 있다. 다언어사전으로서 두 기점언어에 맞추어 개발된 별개의 전사 체계는 자연스럽게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漢』의 전사법은 今西春秋(1958)에서뿐만 아니라 崔鶴根(1969)에서도 고찰된다. 그리고 成百仁(1984)에서는 『漢』의 전사법뿐만 아니라 이를 사역원에서 편찬된 역학서들의 전사법과 함께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완질본이 전 세계에 단 두 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과 낙질본으로 전해지는 다른 소장본들이 모두 동일한 판본이기 때문에 朴恩用(1971)에서 초간본으로 소개한 宮崎道三郎 구장본은 『漢』의 유일한 이본으로 제시되는 듯했다. 그러나 成百仁(1983)에서는 宮崎本이 매우 희귀한 校正刷本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판목을 조사한 결과 판본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成百仁(1983)은, 그 이전까지의 많지 않지만 선구적인 여러 연구 업적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오류를 점검하며 종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漢淸文鑑』에 대한 典範이라 할 만한 업적이다. 거질인 『增』과 『漢』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에 입각한 대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한정된 지면 속에서도 『漢』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成百仁(1998)은 이전 『漢淸文鑑』 영인본의 오류를 수정하여 새로 제작하면서 그에 붙인 해제이다.

청나라의 만주어 사전 간행 역사와 淸文鑑에 대한 개괄과 함께, 『漢』에 대한 成百仁(1983)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본 논문이 『漢淸文鑑』을 사전학적인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지만, 『漢』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기반은 이 두 연구에 두고 있다.

『漢淸文鑑』에 대한 또 다른 종합적인 연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高東昊(2014)이다. 이 연구는 成百仁(1983), 成百仁(1998)의 발전적 계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수 조사를 통해 수치화하고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그 사이 진행된 『增』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 연구 역시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漢淸文鑑』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다시 확인하며 실제 3개의 부류를 『增』과 『御』를 함께 비교하여 『漢』의 만주어 어휘를 검토한 崔平圭(1989)와 같은 연구도 있으나, 논의 범위와 내용은 成百仁(1983)을 넘지 않는다.

『漢淸文鑑』이 만주어 문헌임에도, 『漢淸文鑑』의 만주어에 대해서는 연구가 극히 드물다. 이는 『漢』의 만주어가 『增』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이 여겨졌을 수 있다. 『增』의 만주어에 대해서도 今西春秋(1966)에서 淸文鑑 간행의 총체적인 개요를 밝히며 개괄하고, 成百仁(1998)에서 『漢』의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살펴본 것과 함께, 김주원(2002)와 김주원(2013)에서 『御』와 『增』 사이에 걸쳐 번역 양상을 달리 나타내는 문헌들을 통해 『增』의 欽定 新淸語의 속성을 파악하려 한 연구가 거의 전부이다. 따라서 『漢』의 만주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漢淸文鑑』의 만주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일부 이루어진다. 연규동(1994)은 『漢』을 통해 만주어 음소 배열 관계를 계량적으로 밝힌 연구이며, 고동호(2000)는 『漢』의 一云 어구에 나타나는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를 통시 음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

이다. 여기에 『漢淸文鑑』의 만주어 전석 부분이 『增』과 일치하지 않고 달라지는 양상을 통해 『漢』의 편찬자들의 사전 편찬 방식과 만주어에 대한 연구 수준을 검토한 최계영(2015) 정도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漢淸文鑑』 범례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던 한어 전사에 관해서는 황준태(1985)에서 『漢』과 『增』의 표기법을 비교하며 『漢』의 한어 표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 하였다. 거질의 두 문헌을 비교하여 『漢』의 표기법을 이해하려 한 초기의 주목할 만한 시도였지만, 만주어와 만문 표기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서인지 『漢淸文鑑』 범례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반면 신용권(1995)은 『漢』 표기법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漢』의 한어에 대한 한글 표기를 통해 18세기 북방 한어음을 추적하려는 시도이다. 비슷한 시도로는 리득춘(1999)이 있는데, 이 연구는 『漢』의 범례 각 조의 내용이 중국 성운학에서 어떤 개념과 소리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18세기 국어 어휘를 수록한 문헌으로서 『漢淸文鑑』은 매우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 『漢淸文鑑』의 한국어 주석은 근대 국어로 표기되어 있으면서, 해당 항목의 만문 풀이가 의미를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대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어휘 의미의 공백을 메우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漢淸文鑑』의 어휘를 연구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황선봉(1993)이 이러한 연구의 하나이다. 김영일(2001a)에서는 황선봉(1993)에서 다루지 않은 71개 어휘를 『漢淸文鑑』의 한어와 만주어 풀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漢』의 풀이에 기반하여 국어 어휘의 의미를 추적하려는 시도는, 근대 국어뿐만이 아니라 만주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漢』의 대역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漢』에서 만주어 어휘에 대한 직역 방식으로 한국어 대역어를 제시했다면 대응하는 어휘를 통해 해당 한국어의 근대 시기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漢』은 의역이나 번역식 대역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 대응 관계가 기대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漢淸文鑑』의 국어 표기법 역시 일부 주목을 받았다. 김영일(2001b)은 『漢淸文鑑』을 대상으로 국어 표기에 혼란이 나타나는 89개의 예를 제시하였으나, 18세기 국어 전반의 음운과 표기를 다룬 郭忠求(1980)에서 지적된 사항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1.4. 논문의 구성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연구 배경과 연구 대상, 그리고 본 연구가 수혜를 입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漢淸文鑑』 범례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漢淸文鑑』이 체제 개편 의도와 방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제반 논의는 기존 연구의 성과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거나 미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확대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저본인 『御製增訂淸文鑑』에서 『漢淸文鑑』으로의 체재 변화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5장과 6장은 다언어 사전으로서『漢淸文鑑』이 갖는 특성과 독자적인 의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장은 접근구조의 측면에서『漢淸文鑑』과『御製增訂淸文鑑』을 대조한다. 문헌의 부피를 크게 줄이면서 야기된 밀도 높은 구성으로 인해『漢淸文鑑』은 언어 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한 신속 접근구조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3장은『漢淸文鑑』의 거시구조 체계를『御製增訂淸文鑑』과 대조하면서,『漢淸文鑑』에서 삭제한 표제어들의 특성과, 표제어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4장은 두 문헌의 미시구조를 살펴본다.『漢淸文鑑』은 표제어들을 삭제하여 문헌의 부피를 줄이면서도 누락되는 어휘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增』과 『漢』 두 문헌 사이의 차이는 『增』의 이본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염두에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漢』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漢』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저본으로 삼은 『增』의 판본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漢』에서의 변화를 단정 짓기 이전에 관련 현상을 『增』의 이본 대조를 통해 폭넓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5장은 『漢淸文鑑』의 新註를 통해, 사전 언어에 대해 연구한다. 『漢淸文鑑』은 다언어사전이면서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관계가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5장에서는 이러한 『漢』의 기술 언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덧붙인 한국어 대역 부분, 즉 新註를 대상으로 『漢』의 목표언어가 갖는 대역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6장에서는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위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전학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전 분류의 개념들을 검토하고, 서양과 중국, 그리고 조선에서 간행해 온 사전사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漢淸文鑑』이 차지하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겠다.

2.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접근구조

접근구조(access structure)란,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된 탐색 경로라고 정의할 수 있다. (Gouws 1996:19) 표제항의 배열 체계인 거시구조는 표제항까지의 탐색 경로인 외부 접근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표제항의 내부는 표제어에 대한 언어정보를 배치하는 미시구조에 좌우되며 내부 접근구조와 관련이 있다.

현대의 많은 언어 사전들은 표제어들의 검색 방향이 세로로 진행되도록 외부 접근구조를 설계한다. 각 표제어들은 좌측에 기준을 두고 일렬로 정렬된다. 표제어들의 내부 항목은 각 표제어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가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외부 접근구조는 내부 접근구조와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제어의 검색은 표제어 내부 항목의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경우는 외부 접근구조와 내무 접근구조 모두 진행방향이 단선적이지 않다. 표제어가 종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표제어 내부 항목 역시 표제어 아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야 다음 표제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종이 한 면이 여러 세로 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어 검색은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끊임없이 교차해 가며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의 종적 진행은 『增』과 『漢』이 공통적이지만, 좌철 사전인 『增』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며, 우철 사전인 『漢』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외부 접근구조가 표제어 검색이 민활하지 못한 형태인 것에 비해, 내부 접근구조는 시각적으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增』과 『漢』은 미시구조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

에, 큰 변화가 없는 외부 접근구조에 비해 내부 접근구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문자형태별 순서의 사전일 경우에는, 표제어의 순서는 표제어의 어형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1] 알파벳 순서로 배열된 일반적인 언어사전들은 철자 목록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어휘 목록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접근구조가 아닌 최대 구조 속의 하위 정보로 다루어진다.[2] 그러나 의미별 분류사전은 표제어의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휘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목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미별 분류 사전의 어휘목록은 접근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의미 부류별 분류사전으로서『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이 접근구조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과 함께, 적은 부피 속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漢淸文鑑』이 시도한 접근구조의 새로운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외부 접근구조

『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은 의미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류 사전이다. 의미 분류는 대분류 단위인 部와 그 하위 단위인 類, 類의 하위 단위인 則의 삼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增』과『漢』은 공통적으로 部類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휘는 의미에 따라 해당 部類의 위치 속

---

1 문자의 형태에 따른 고유한 문자 배열 순서로 표제어가 나열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본고에서 '알파벳 순서'라는 표현과 혼용하여 사용될 것이다. 알파벳은 일반적으로 좁게는 라틴문자체계를, 넓은 의미로는 음소문자체계를 의미하지만, '알파벳 순서'는 실제 그 문자체계의 음소와는 관계없이 문자 형태에 근거한 배열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away의 'a'와 apple의 'a'는 같은 문자이지만 같은 음소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글의 가나다순이나, 한자의 부수별 순서 역시 문자 형태에 따른 배열 순서이므로, 굳이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문맥이라면 모두 '알파벳 순서'로 통칭하여 사용할 것이다.

2 홍종선 외(2009:101)에서 사전의 최대 구조를 기술하면서, 찾아보기나 자모표를 '전반부 텍스트'로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에서 검색된다.

『增』의 경우에는 의미별 목록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에 따른 목록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만주어의 경우 이는 十二子頭순 색인을 의미한다. 『漢』은 이 철자 순서에 따른 색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부피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인지, 한어 색인이나 만주어 색인 중 선택하지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간행 과정에서의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增』은 어휘 목록을 중첩적으로 제공한다. 사전 본문에 앞서 제시되는 전체 부류의 목록(이하 총목록)은 『增』과 『漢』이 공통적이지만, 『增』은 각 권의 서두에도 해당 권에 속하는 부류의 목록(이하 권두목록)을 다시 제시한다. 『漢』에서 권두목록을 생략한 것은 부피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목록에는 각 권마다 수록되어 있는 의미 부류와 해당 항목에 속한 하위 부류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때 해당 쪽의 숫자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및 한국에서 간행된 사전의 공통점 중의 하나이다. 의미 부류의 목록은 가장 큰 항목인 部가 먼저 제시되고 그 部에 속한 類, 그 類에 속한 則이 차례로 나열되는 순서이다. 卷, 部, 類는 차례로 단을 낮추어 포함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增』은 각 권에 해당하는 部의 명칭 아랫부분에 그 部에 속한 類와 則의 수를 기입한다. 반면 『漢』은 類의 수까지만 표기하였다. 그리고 部의 하위 항목인 類의 명칭은 部의 명칭 옆에 단을 낮추어 제시되며, 그 類 명칭 아래 그 類에 포함된 則의 수가 표시된다. 이 때 『增』은 則이 둘 이상일 경우부터 則의 수를 표시한다. 『增』의 경우 類 명칭 아래 則의 수가 없다면, 하나의 類가 곧 하나의 則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則의 명칭은 『增』이나 『漢』 모두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본문 속에서 해당 部類가 시작될 때는, 각 부류의 명칭이 제시된다.(이하 '본문제목') 각 則은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則이 시작될 때마

다 해당 類의 몇 번째 하위 범주인지를 類의 명칭과 함께 표시한다.

판심에도 어휘들이 속한 類의 명칭을 표기하는데,(이하 '판심제목') 이는 신속 외부 접근구조로 볼 수 있다.[3] 『增』과 『漢』은 목록이나 제목을 제시할 때 부류 명칭의 위계에 따라 단의 높이에 편차를 두어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하게 했다. 『增』과 『漢』에서 부류의 위치와 소속을 선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도입한 시각적 장치들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部가 시작할 때 『增』과 『漢』은 모두 새로운 지면에서 시작한다. 즉

<표 2> 목록의 범주 구분을 위한 물리적 형태 비교

		『增』	『漢』
총목록	항목 구분	하위 항목 단을 낮춤	『增』과 동일
	항목 수	部는 類와 則 모두 표시	部는 類의 수만 표시
		類는 則의 수 표시. 1則일 경우 생략	類는 則의 수 표시
권두목록	항목 구분	하위 항목 단을 낮춤	권두목록 없음
	항목 수	각 하위 항목의 수 모두 표시	
본문제목	항목 구분	하위 항목 단을 낮춤	『增』과 동일
	항목 수	部는 類와 則 모두 표시	部는 類의 수만 표시
		類는 순서만 제시	類는 則의 수 표시
	난상 표시	난상 표시 없음	則의 순서 표시
판심제목		類 명칭	類 명칭이 표시되나 '類'자는 생략됨

3 사용자가 원하는 표제항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신속 외부 접근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기획할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언어 사전들에서는 표제어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표제어 첫 글자의 철자가 바뀔 때 굵은 글씨를 쓴다거나, 종이 상단에 해당 쪽의 처음 혹은 마지막 표제어를 써 넣는다거나, 빈도수나 핵심 어휘 여부 등에 따라 표제어에 별표를 표시하거나 표제어의 글자 색을 입힌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기재들이 외부 접근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다.

이전 部의 뒷부분은 해당 지면의 남는 부분을 비워 시각적으로 분명히 구분되게 한다. 그러나 類가 바뀔 때는, 『增』은 마찬가지로 지면의 남은 부분을 비우지만, 『漢』은 행만을 바꿔 시작한다. 이 때 판심에는 이전 類의 명칭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諭旨部에는 諭旨類와 封表類 두 개의 類가 속해 있는데, 『增』은 諭旨類가 끝나면서 장의 남은 부분을 비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封表類의 장에는 판심에도 '封表類'가 표시된다. 그러나 『漢』은 諭旨類와 같은 장에서 封表類가 시작되며, 판심에는 이전 類의 명칭인 '諭旨'가 기입되어 있다.

각 則의 시작 부분에서 『增』은 이전 則의 행 하단을 비운다.[4] 새로운 행에 해당 則이 속해 있는 類의 명칭을 제시하고, 별도의 則 명칭 없이 그 칙의 순서가 표시된다. 반면 『漢』은 이전 則의 행을 비우고 새로운 행의 첫 어휘 난상에, 『增』에는 없던 난상 표시를 도입하여, 해당 則의 순서를 표시한다.

그런데 『漢』의 난상 표기는 간혹 누락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則이 바뀔 때 이전 則의 마지막 어휘 부분이 끝나면 아래 단을 비우는 편집 방식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구조의 양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목록의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구조의 완성도와 효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통해 표제항까지의 경로를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시하는 경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목록이 제시하고 있는 부류의 제목이 서로 일치하는 지 역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成百仁(1999:12, 40), 高東昊(2014:7)에서는 『漢淸文鑑』 정편의 부류명이 『增』과 달라진 예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

4 則이 시작할 때 장의 남은 부분을 비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의 남은 부분만을 비운다.

면『增』내부와『漢』내부에서도 부류명의 차이가 나타난다.『增』과『漢』에서 제시된 부류명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을 모으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각 제목의 한자가 이체자인 경우는 본 표에서 제외했다.[5]

<표 3>『漢』과『增』목록 부류명의 차이

『增』				『漢』		
총목록	권두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총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君部	君部	君部		帝王部	帝王部	
君類	君類	君類	君類	帝王類	帝王類	帝王
政事類	政事類	政類	政事類	政事類	政事類	政事
鹵簿類	鹵簿器用類	鹵簿器用類	鹵簿器用類	鹵簿器用類	鹵簿器用類	鹵簿器用
筵宴類	筵宴類	筵宴類	筵宴類	宴筵類	筵宴類	筵宴
撂跤類	撩跤類	撩跤類	撩跤類	撩跤類	撩跤類	撩跤
儉省類	省儉類	省儉類	省儉類	省儉類	省儉類	省儉
名譽類	名譽類	名聲類	名聲類	名聲類	名聲類	名聲
趨走類	行走類	行走類	行走類	行走類	行走類	行走
拿放類	拏放類	拿放類	拿放類	拿放類	拿放類	拿放
疎慢類	疎慢類	怠慢迂疎類	怠慢迂疎類	疎慢類	迂疎類	迂疎
潮濕類	濕潮類	濕潮類	濕潮類	濕潮類	濕潮類	濕潮
屈伸類	屈伸類	抽展類	抽展類	屈伸類	抽展類	抽展
衙署類	部院類	部院類	部院類	部院類	部院類	部院
靴襪類	靴韈類	靴襪類	靴襪類	靴襪類	靴襪類	靴襪
熟皮類	熟皮類	熟皮革類	熟皮革類	熟皮革類	熟皮革類	熟皮革

5『增』과『漢』모두에서 다른 부류명들과 차이를 보이는 곳을 음영으로 표현했다.『增』과『漢』이 일관되게 대조를 보일 때는『漢』부분에 표시했고,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판심제목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增』				『漢』		
총목록	권두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총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車部	車轎部	車轎部		車部	車部	
馬匹殘疾類	馬匹殘疾類	馬畜殘疾類	馬畜殘疾類	馬畜殘疾類	馬畜殘疾類	馬畜殘疾

<표 3>을 일견하면 물론 『增』에서 『漢』으로의 변개 양상도 눈에 띄지만, 그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增』의 목록간 불일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增』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목록상의 불일치 역시 이후 연구에서 판본 계열 확인을 위해 대조해야할 부분일 것이다.[6]

동일 문헌 내에서 각 목록의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문헌 내부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漢』의 목록에서 오류로 보이지 않는 변개는 '제왕부'만 존재하며, 이는 조선의 입장에서 사대의 대상인 청의 군왕을 제왕으로 높여 지칭해야 했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漢』 총목록에서 筵宴類를 宴筵類로 굳이 고쳐 작성한 이유는 알 수 없다.[7]

또한 『漢淸文鑑』 목록에서의 오류로는 성백인(1983/1999:4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권7의 怕懼類가 본문의 실제 순서와 달리 총목록에서는 聲響類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밖에도 『漢淸文鑑』과 『御製增訂淸文鑑』의 목록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怕懼類가 목록의 순서에서 보이는 오류를 제외하

6 『增』의 서울대본,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의 세 판본에서 목록상의 오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계열의 판본에 동일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초간본의 오류가 이후 판본에서 수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모든 이본에 동일한 오류가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7 今西春秋(1958:24)에서는 이 바뀐 부류명들이 조선식으로 바뀐 것이라 하였으나, 표에 나타난 각 문헌 내 부류별 명칭의 불일치로 봤을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면 다른 오류들은 모두 類와 則의 숫자를 잘못 기록하였거나 누락한 경우이다.[8]

<표 4> 『漢』과 『增』 목록에서 나타나는 오류들

『增』				『漢』		
총목록	권두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총목록	본문제목	판심제목
君部 1類1則	君部 1類2則	君部 1類2則		帝王部 1類	帝王部 1類	
君類 *	君類 2則	君類	君類	帝王類 2則	帝王類 2則	帝王
政部 13類19則	政部 13類20則	政部 13類20則		政部 (上,下部) 총 13類	政部	
詞訟類 *	詞訟類 2則	詞訟類	詞訟類	詞訟類 2則	詞訟類 2則	詞訟
文學部 6類15則	文學部 6類15則	文學部 4類6則		文學部 6類	文學部 6類	
衙署類 11則	部院類 12則	部院類	部院類	部院類 12則	部院類 12則	部院
食物部(1, 2部) 총13類				食物部 13類	食物部 14類	
米穀類 2則	米穀類 *	米穀類	米穀類	米穀類 2則	米穀類 2則	米穀
樹木類 11則	樹木類 10則	樹木類	樹木類	樹木類 10則	樹木類 10則	樹木
海魚類 *	海魚類 2則	海魚類	海魚類	海魚類 2則	海魚類 2則	海魚

8 『漢』에서는 『增』과는 달리 각 部名을 제시할 때 則의 숫자는 함께 적지 않는다. 표에서 『增』 類名과 함께 있는 *표는 해당 類에 속하는 則의 숫자가 1일 때 『增』 목록에서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즉 1則에 해당한다. 部類則의 해당 숫자는 가독성을 위해 본고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 적었다.

『漢』에서 숫자에 오류를 보이는 곳은 食物部의 1例가 있지만, 『增』은 훨씬 많은 오류를 보여준다. 『增』의 목록은 당연히 만문을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 만문 목록은 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君部 1類1則'은 만문으로 '*han i šošohon, emu hacin, emu meyen*'이므로, 오류가 있는 해당 숫자가 한문 혹은 만문 쪽의 단순한 표기 실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增』의 목록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漢』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漢』이 직접 대본으로 삼았을 『增』의 판본 차이에 의한 것인지, 『增』의 오류를 『漢』을 편찬 당시 수정한 것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增』의 여러 이본들이 같은 오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漢』 편찬자들이 저본의 오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漢』과 『增』의 목록상의 불일치는 『漢』에서의 독자적인 개편이 아니라 『漢』을 편찬할 당시 원서의 오류 사항을 검토하고 일관적인 형태로 수정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의미 부류별 분류 사전으로서 『增』과 『漢』의 어휘는, 각 단어가 속해 있는 의미 범주에 따라 위계 속에서 배치되어 있다. 가장 상위의 범주인 部와 部의 하위 범주인 類를 거쳐 類 속의 則까지는 목록과 제목을 통해 경로가 마련된다. 그러나 則 내에서는 표제어들의 배열 순서를 규정하는 시각적인 장치가 보이지 않으며, 피상적으로는 則 내 단어들이 동등한 위계 위에서 무작위로 배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단어들의 의미와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則 내에서도 어휘 배열 순서를 좌우하는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제어들은 단어의 의미 속성과 품사 범주에 의해 순서가 결정되며, 의미상으로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의 순서로, 형태상으로는 기본형에서 파생형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제어 배열 순서에 관여하는 원리들 중 두드러지는 요소들을 일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의미 기준 배열 순서

① 고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로 배열된다. (황제-신하, 할아버지-아버지 등)

② 순서나 양의 정도가 구분되는 경우 작은 것에서 큰 것의 순서로 배열된다. (1-2, 작은 문-큰 문)

③ 긍정적 의미를 갖거나 밝은 의미를 갖는 것에서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의미를 갖는 것의 순서로 배열된다.(陽-陰, 吉-凶 등)

(2) 형태 기준 배열 순서

④ 명사 부류가 동사 부류보다 먼저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⑤ 어근 명사, 파생 명사, 동사의 순으로 배열된다.

⑥ 해당 명사의 유의어들이 연어들보다 먼저 제시된다.

⑦ 명사를 주어로 하는 동사구 연어가 명사구보다 먼저 제시된다.

⑧ 접사나 어미로 인한 파생/활용형의 동사들은, 접사나 어미가 결합하는 순서로 배열된다. (bu-na-ji-du-nu 등) 따라서 접사 순서에 의한 파생 동사들이 제시된 후 활용형이 제시된다.

알파벳 순서의 사전들이 일반적으로 단일한 외부 접근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增』과 『漢』은 의미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인 외부 접근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어들의 의미 영역은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와 범주의 구분은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增』과 『漢』의 어휘 배열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2. 내부 접근구조

『漢淸文鑑』은 거시구조 상에서 저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접근구조에서도 변화가 많지 않다. 좌철에서 우철로 제책 방식이 바뀌면서 표제어가 진행되는 방향이 변화한 것과, 신속 외부접근구조에서 난상표시와 같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增』의 외부 접근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표제항 내부, 즉 미시구조는 대단히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漢淸文鑑』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던 新註의 수록은 필연적으로 미시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漢』에서는 수록하지 않은 표제어들 중 일부는 의미나 형태에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의 표제항에 어휘 정보가 추가되면서 역시 미시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미시구조의 변화로 인해『增』과『漢』은 내부 접근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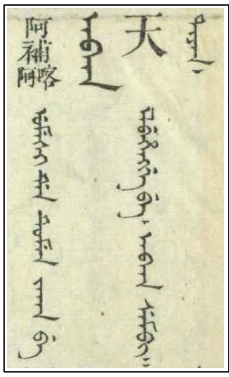
우선『增』의 미시구조는『漢』에 비해 단순한 형태이다.『增』의 표제항은 상하 두 단으로 구분되며 상단은 표제어를, 하단은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이하 전석[9])를 수록한다. 상단의 진행은 가로방향이며, 하단은 세로방향으로 진행된다.

『增』의 내부 접근구조는 문자 자체의 시각적 차이로 인해 변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단 표제어 부분은 중앙의 왼쪽에 만주어 표제어가 오른쪽에 한어 대역어가 배치되는데, 만주어 표제어의 왼쪽에는 한자로 만주어 어휘의 음가를 표시하였고, 한어 대역어의 오른쪽에는 만주자로 한어 어휘의 음가를 표시하였다. 즉 문자형이 한자, 만주자, 한자, 만주자가 서로 교체하며 배열되어 있다. 또한 전석은 표제어에 비해 작은 글자로 쌍행으로 기술된다. 문자 자체의 변별력과 글자 크기의 차별성은 표제항 내 정보의 양상을 구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표제항을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增』에 비해『漢』은 문헌 전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각 표제항 역시 대단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시각적 변별력은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漢』

9『增』御製序에서 만문 뜻풀이를 詮釋(*suhen*)이라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도 이후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되는 '전석'이라는 용어는, 만문 뜻풀이를 의미한다.

<표 5> 『增』의 표제항 구성 (최계영 2015:82에서 수정 인용)



1	2	3	4
5			

1: 만주어 표제어를 한자로 주음한 것

2: 만주어 만문 표제어

3: 한어 대역어

4: 한어 대역어를 만주자로 주음한 것

5: 만문 전석(쌍행. 왼쪽 행부터)

은 표제어들의 음성 표기를 한글로 표시하였으며, 전석 역시 한글로 전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한 변별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전체 문헌의 부피를 줄이고자 표제어는 대거 삭제했지만, 필요한 정보는 가급적 남기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미시구조에 반영되어 표제항 내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정보의 양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漢』의 내부 접근구조는, 문자의 차이, 글자 크기, 글자 배치를 통한 변별력을 이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도구 언어를 도입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우선 『增』 표제항의 2단 구성은 『漢』에서는 4단 구성으로 바뀌며, 표제어단인 1단의 병렬 배치는 『漢』에서는 종적 배치로 바뀐다. 『漢』의 한어 표제어와 만주어 표제어는 각각 본래 문자로 표기되며, 두 표제어단 사이에 신주가 쌍행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만주어 표제어 하단에는 한글로 전사한 전석과 경우에 따라 표제어에 관련된 부가 정보가 소자쌍행으로 기술되어 있다. 『漢』의 단 배치는 서로 다른 문자형과 글자의 크기로 시각적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어 표제어단에는 한어 표제어와 한글 음성표기가 함께 표시된다. 한자로 쓰인 한어의 각 글자는 표제항내에서 가장 큰 크기로 표시되어 있고, 한어의 한글 음성 표기는 각 글자의 하단 우측에 작은 글씨로 표기

<표 6> 『漢』의 표제항 구성 (기본구조) (최계영 2015:83에서 수정 인용)

A: 한어 표제어(『增』의 한어 대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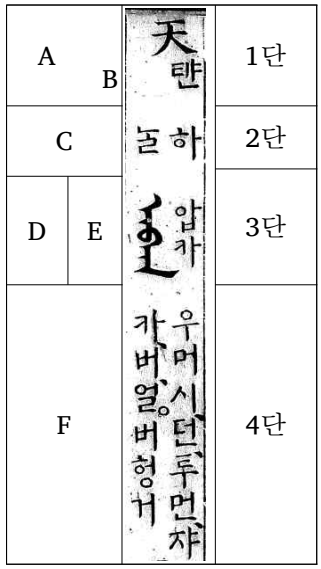
B: 한어 표제어를 한글로 주음한 것

C: 新註(쌍행, 오른쪽 행부터)

D: 만주어 만문 표제어

E: 만문 표제어를 한글로 주음한 것

F: 한글 전자 만문 전석(쌍행, 오른쪽 행부터)



된다. 3단의 만주어 표제어는 만문으로 단의 왼쪽에 놓이며, 단의 오른쪽에 한글 음성 표기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 각 단의 구분과 두 표제어단 내부의 정보는, 문자의 종류와 자형의 크기로 시각적 변별이 용이하다.

『增』에는 없던 새로운 주석인 新註가 추가되고, 삭제된 표제어 중에서 일부 어휘 정보를 남아 있는 표제어에 반영하면서, 『漢』의 표제항은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표제어와 관련된 여러 언어 정보가 표제어의 전석에서 단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增』과는 달리, 『漢』에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명시화하였다. 이 결과로 『漢』 표제항에는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기 때문에, 이 정보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漢』에서는 각종 부호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漢』에서 사용된 부호 체계는 『漢』 제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사역원에서 다양한 유해서들을 간행하면서 사용하고 축적되어 온 방식이 집대성된 형태이다. 이전에 간행되었던 유해서들에서 중복

기능을 갖거나 잉여적인 것으로 보이던 것은『漢』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10]『漢』에서 사용된 부호의 기능과 양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전 유해서들의 하나인『同文類解』에서 사용된 부호를 비교하면 다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11]

<표 7>『漢淸文鑑』에서 사용된 부호

표기	『同文類解』	『漢淸文鑑』
큰 동그라미	한국어 어구와 만주어 어구를 구분함	표제항과 표제항을 구분함
작은 동그라미	한국어와 만주어의 어형이나 의미에 관한 추가 정보 표시	단 내에서 의미나 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할 때 그 사이를 구분함
一云	하나의 한국어 표제어구에 둘 이상의 만주어 어구가 대응될 때 두 번째 만주어 어구의 앞에 제시	하나의 표제어에 둘 이상의 어구가 대응될 때 두 번째 어구 앞에 사용함. 한어 표제어에 대한 유의어는 2단 新註에서 표시하고, 만주어 표제어에 대한 유의어는 4단 전석에서 표시함.
又	하나의 만주어 어구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한국어 어구가 대응되는 경우 두 번째 한국어 어구 앞에 제시	둘 이상의 대응되는 어구를 나열할 때 그 사이에 표기함

10 고동호(2013:29-30)에서『同文類解』에서 사용된 도구 언어의 기능을 상세히 검토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일례로『同文類解』의 '或'은『漢』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11 이 도구 언어는 표제항 내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만문 전사에 사용된 구별 부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 2>의『同文類解』부분의 내용은 고동호(2013:29-30)에서 가져왔다.

12 본고에서 해당 예를 인용할 때는, 가로쓰기에 맞추어 가로획으로 옮겨 인용한다.

표기	『同文類解』	『漢淸文鑑』
上同	없음	표제어의 의미가 바로 위 표제항의 내용과 같다고 판단했을 때 新註와 만문 주석을 생략하고 4단에 '上同'으로 표시
淸語上同	없음	만문 주석이 바로 위 표제항과 같을 때 만문 주석을 생략하고 '淸語上同'으로 표시
尊稱/通稱	한어 표제어구와 한국어 어구의 의미 영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한어의 의미 영역을 좁히기 위해 한국어 어구의 앞에 제시	용법은 『同文類解』와 동일하나 한국어 어구 뒤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음
一名	없음	한어 표제어구의 다른 명칭.
|	한어 표제어를 新註에서 그대로 사용할 때 글자 수만큼 줄을 그어 표시	『同文類解』와 동일[12]
글자 사이 오른쪽 하단의 점	없음	띄어쓰기 표시

『漢淸文鑑』에서 사용된 부호는, 한문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漢淸文鑑』의 편집자들은 이렇게 축적된 부호 사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미시구조 내의 여러 정보의 종류를 쉽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호의 사용은, 원서의 부피를 줄이면서도 가급적 내용의 손실이 없도록 돕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一云'을 사용하여 동의어

나 유의어를 표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남기면서도 해당 동의어나 유의어 항목이 삭제되어 권질을 줄이는 효과도 부여하겠지만, 또한 원서인 『增』에서는 전석에 단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쉽게 파악하기 힘든 어휘 항목의 의미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효력을 갖는다.

3.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거시구조

사전의 거시구조는 표제항의 집합이 이루고 있는 구조적 체계이다. 즉 사전 항목의 구성과 구성된 항목에 포함될 표제어들의 성격, 표제어들의 배열순서 등과 관련이 있다. 문자 형태별 순서의 사전들은 항목의 구성이나 표제어들의 배열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알파벳 순서의 사전들은, 어떤 어휘들을 표제어로 선택했는지, 부표제어를 둘 것인지, 연어를 표제어로 수록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어휘의 미시구조에 반영할 것인지 등이 거시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미 부류별 분류사전은 의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서부터 거시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다. 『漢』의 거시구조는 『增』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미 부류별 항목의 구성과 각 항목에 포함되는 어휘들의 의미 및 기능상에서의 특징은 논외로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增』으로부터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삭제한 어휘들의 유형과, 표제항의 배열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1. 표제어 삭제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漢』 간행의 주요한 목적은 거질인 『增』의 부피를 줄이고 조선인이 이해하기 쉬운 주석을 추가해 실용적인 사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거시구조 차원에서의 부피의 절감은 의미 부류 항목을 줄이거나 표제어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漢』은 正編의 경우 36部 292類 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補編에서만 3類를 줄여 23類로 구성하였다. 부류의 수를 줄이지 않은 것에 비해 권질의 부피는 크게 달라진다.

『漢』은 『增』의 부류 체계를 유지한 채, 각 부류의 표제어 수를 줄여 부피의 절감을 꾀하였다. 표제어로서 삭제된 어휘 수는 5904개에 달한다. 이 때 삭제된 표제어의 유형을 今西春秋(1958:25~28)에서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1] 그러나 성백인(1983, 1999:44)에서는 今西春秋(1958)의 분석이 항목별로 실제와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삭제된 것으로 분류된 상당수의 어휘들이 다른 표제항목에 一云 등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다른 어휘 항목에 부가 수록된 어휘를 제외하면, 완전히 삭제된 어휘는 5014개이다. 즉 890여 개의 어휘는 삭제를 피해 다른 표제어에 추가적인 의미 정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휘들이 삭제된 양상은 부류별로도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인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류에 따라 전혀 삭제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수록된 어휘수와 비슷할 정도로 삭제된 부류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帝王部는 삭제 없이 모든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고, 諭旨部는 2개의 어휘만 삭제되어 있지만, 鳥雀部는 193개의 표제어가 삭제되어 수록된 254개의 표제어수와 비슷할 정도이다. 補編의 경우에는 이보다 삭제율이 더욱 커서 매우 낮은 비율의 어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표제어 수록과 삭제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삭제된 표제어의 유형을 통해 『漢』의 표제어 수록 기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백인(1983, 1999:45)에서는 삭제 어구의 판단 기준을 ① 흔히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어구, (보편의 어구가 대폭 삭제된 것과 같은 맥락

---

[1] ① 特殊한 語句. *abkai kesingge inenggi*(天恩曰), *somina orho*(藏) 등과 주로 보편의 어구, ② 同類의 語句: (a) *biya*(月) 다음에 오는 *genggiyen biya*(明月) 등 (b) *aga galaka*(雨晴) 다음의 *galga oho*(晴了) 등, ③ 同義의 語句: *edun dambi*(刮風) 다음의 *edumbi*(漢語同上) 등, ④ 명사와 어근이 같은 동사: *bisan*(澇) 다음의 *bisambi*(澇了) 등, ⑤ 일정한 변화 어미를 가진 어휘: (a) 使役形 *elbišebumbi*(使河內洗澡) 등, (b) 被役形 *temgetulebumbi*(受旌表) 등, (c) 共同動作形 *tuwakiyandumbi*(一齊看守), *tuwakiyanumbi*(漢語同上) 등, (d) 去來形 *alanambi*(去告訴), *alanjimbi*(來告訴) 등, (e) 現態形 *šadahabi*(乏了) 등, (f) 複數形 *ambasa*(大臣等) 등, (g) 略少形 *neciken*(平坦些) 등. 여기서 예로 든 어휘는 인용자가 일부 원문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표 8> 『漢淸文鑑』의 어휘수와 『增』에서 삭제된 어휘수

	『漢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부 순서	부류명	표제어	一云	소 표제어	합계	삭제	一云	소 표제어	삭제 총수
1	天部	257	5	0	262	19	5	0	24
2	時令部	254	22	0	276	20	22	0	41
3	地部	319	14	0	333	50	14	0	64
4	帝王部	51	0	0	51	0	0	0	0
5	諭旨部	109	0	0	109	2	0	0	2
6	設官部	408	5	0	413	36	5	0	41
7	政部	374	28	0	402	160	27	0	187
8	禮部	374	24	0	398	65	24	0	89
9	樂部	138	5	5	148	9	5	5	19
10	文學部	391	7	0	398	74	7	0	81
11	武功部	788	35	4	827	269	35	4	308
12	人部	3766	397	64	4227	1391	389	64	1843
13	僧道部	70	4	0	74	2	3	0	5
14	奇異部	30	6	0	36	3	6	0	9
15	醫巫部	47	5	0	52	14	5	0	19
16	技藝部	58	3	1	62	34	3	1	38
17	居處部	639	9	5	653	70	8	5	83
18	産業部	616	32	9	657	167	32	9	208
19	烟火部	75	6	1	82	16	5	1	22
20	布帛部	272	5	0	277	46	5	0	51
21	衣飾部	428	15	3	446	152	14	3	169
22	器皿部	469	35	28	532	165	32	28	225
23	營造部	245	12	3	260	172	12	3	187
24	船部	62	3	2	67	29	3	2	34
25	車部	51	3	0	54	10	3	0	13
26	食物部	507	17	3	527	236	17	3	256
27	雜糧部	47	0	0	47	5	0	0	5
28	雜果部	91	1	1	93	11	1	1	13
29	草部	99	7	0	106	15	7	0	22
30	樹木部	161	16	3	180	42	16	3	61
31	花部	126	1	1	128	9	1	1	11
32	鳥雀部	254	3	6	263	193	3	6	202
33	獸部	144	4	2	150	81	4	2	87
34	牲畜部	428	13	4	445	135	13	4	152
35	鱗甲部	106	9	2	117	77	8	2	87
36	蟲部	83	9	0	92	41	8	0	49
37	補編	421	3	0	424	1194	3	0	1197
합계		12758	763	147	13668	5014	745	147	5904

에서) ② 생략해도 그 어구의 의미를 아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말(일부 파생어와 동의어 포함)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 같은 분류는 삭제된 어휘의 대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의미를 기준으로 한 삭제와 문법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삭제를 구분하여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 중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다른 표제항에 부가적으로 수록된 경우는 미시구조에 변화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4.2.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1.1. 문법적 기준

3.1.1.1. 문법 정보 제시

『漢淸文鑑』 범례에서는, 권질이 크기 때문에 부피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 표제어 수록 여부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漢淸文鑑』 간행에 참여한 40명의 인원이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했을 리는 없다. 공동 작업의 일관성과 문헌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침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일부 어휘의 전석 항목에 그 어휘의 풀이에 덧붙어 기술된 문법 설명이다. 이는 원서인 『增』에는 없던 것으로 『漢』의 간행자들이 독자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총 7개의 항목이 발견되는데, 문법적 기능 설명과 동시에 표제어 삭제의 근거를 추가로 기술하고 있다.

(1) 문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예[2]

---

[2] 본고에서 예문은 한어음과 만주어음에 대한 전사는 생략하여 제시하였다. 표제항 내 각 단

(a) <漢 01:20b> 使先 / 使之先之之意 / nende / juleri oso serengge (앞서라 하는 것) ○ 凡淸字下無虛字者令人之辭 ○一云 nene [時令部 時令類 二則]

(b) <漢 01:31b> 一齊溜冰 / 홈씌 어름 즈칙다 / nisundumbi / teisu teisu nisumbi (각각 얼음 지치다) ○ 淸字中nu字du字卽一齊之意故下文略之 [時令部 時令類 九則]

(c) <漢 01:34b> 出外 / 猶言出郊 / bigarame / bigan tala be yaburengge (들판을 다니는 것) ○ 淸語中rame字卽沿字之義下文畧之 [地部 地輿類 二則]

(d) <漢 01:47a> 使水乾 / 믈 ᄆᆞ르게 ᄒᆞ다 / fabumbi / yaya bira birgan i muke be niyalmai hūsun i olhobumbi (어떤 강이나 시내의 물을 사람의 힘으로 마르게 하다) ○ 淸語中bu字卽使字之義故下文畧之 [地部 地輿類 十則]

(e) <漢 04:25b> 各一 / ᄒᆞᆫ나식 / emte / niyalma tome emke goiburengge (사람마다 한 개 맞게 하는 것) ○ 淸字中ta te to卽各字每字意叶淸書字頭音韵用之 [文學部 數目類 一則]

(f) <漢 04:25b> 二次 / 두 번 / juwenggeri / juwe mudan (두 번) ○ 淸字中geri卽次字意故下文略之 [文學部 數目類 一則]

(g) <漢 04:27a> 第三 / 셋재 / ilaci / jai i siramengge (둘째의 다음 것) ○ 淸字中ci卽第字意故下文略之 [文學部 數目類 二則]

이 예들은『漢』에서 선택하지 않는 표제항들에 대한 삭제 근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추가된 각 설명은 해당 표제어 어형에 대한 문법 설명이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접사로 인한 파생어형을 이하 사전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즉, 사전 사용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문법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문헌의 부피를 절감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漢』에서 완전히 삭제된 어휘들 중, 이 설명을 통해 삭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는 총 1487개이다. 이 중 (1g)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나

은 '/'로 구분하였으며, 특정 단에 수록 내용이 없을 경우 '∅'로 표시하였다.『增』과『漢』의 전석 번역은 ( )안에 기술하였고, 이 번역과『漢』예문의 띄어쓰기는 모두 필자의 것이다.

도 발견되지 않았다.

(2) 문법 기술을 통해 삭제된 어휘

(a) 명령형 224개: bira doo(教渡河), nimebu(痛打), juwa(開口), te(居住下) 등

(b) -nu/du 273개: simnendumbi(一齊考試), simnenumbi(漢語同上), ulandumbi(相傳), buksindumbi(各處埋伏) 등

(c) -rame 9개: alarame(走平矮山), judurame(走山脊), ebcileme(走山肋), hejiheleme(走山肋險處), hekdereme(走山肋險坡), haiharame(走山腰), butereme(走山根), dalirame(沿河岸), cikirame(沿河厓)

(d) -bu- 961개: tomilabumbi(使派), takūršabumbi(被使喚), ejebumbi(使記), gosibumbi(被人愛) 등

(e) -ta/te/to 10개: juwete(各二), ilata(各三), duite(各四), sunjata(各五), ninggute(各六), nadata(各七), jakūta(各八), uyute(各九), juwanta(各十), tofohoto(各十五)

(f) -geri 9개: ilanggeri(三次), duinggeri(四次), sunjanggeri(五次), ninggunggeri(六次), nadanggeri(七次), jakūnggeri(八次), uyunggeri(九次), juwanggeri(十次), tofohonggeri(十五次)

(g) -ci 0개

위의 문법 설명과 실제 이에 근거에 삭제된 어휘를 함께 검토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법 설명은, 당시 조선의 역관들이 인식하고 있던 만주어 문법 현상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선 (1b)의 설명을 보면, *-nu*의 이형태형을 *-ndu*가 아닌 *-du*로 기술하고 있다.[3] 이 형태소의 의미는 '함께'뿐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의미도 있지만, 『漢』의 기술에서는 '함께'를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3 『同文類解』 어록해나 『淸文啓蒙』에서도 마찬가지로 *-ndu*가 아니라 *-du*로 언급한다. 이 *d* 앞의 *n*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특정 접사들(*-bu-*, *-ji-*, *-ga-* 등)과 결합할 때 특정 조건 속에서 삽입되는 비음인지, 어근의 일부인지, 특정 조건 하에서 탈락하는 접사의 일부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청나라와 조선의 전통적인 만주어 문법서들은 공통적으로 이 비음을 무시하고 있다.

(1c)에 해당하는 형태는 모음조화에 의한 이형태를 제외하면 *-lame*형과 *-rame*형의 두 이형태가 나타나지만, 문법 기술에서는 *-rame*형만을 언급한다. (1d) 사동의 *-bu-*의 경우, 『增』의 *-bu-* 파생형은 사동형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피동 형태도 적지 않다. (1d)의 기술은 사동사 파생형만을 삭제한다는 언급이기보다는, 피사동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역시 이형태인 *-mbu-*는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1g)의 경우에 대해서는, 『增』의 해당 어휘 항목을 대조하면 이 공백을 이해할 수 있다.

(3) <增 07:61a> ilaci 第三 / jai i siramengge be, ilaci sembi. ereci tolome juwanci tanggūci minggaci de isinambi. (둘째의 다음 것을, 셋째라 한다. 이로부터 수를 세어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등에 이르러가다.) [文學部 數目類 第二]

즉, (1g)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增』에서도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은 경우였으며, 관련 설명을 전석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漢』에서는 이 문법에 관련된 전석 부분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일반화된 문법 기술로 처리하였다.

반면에, 이렇게 삭제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해당 접사가 있는 어형이 생략되지 않고 표제어로 수록된 경우도 있다.

(4) 삭제되지 않은 명령형 표제어

(a) <漢 06:43a> 急着 / 급히 ᄒᆞ라 / hahila / te uthai wacihiya šanggabu serengge (지금 즉시 마치라, 완료하라 하는 것) [人部 催逼類 一則]
<漢 07:42a> 緊急 / 급히 / hahi / umesi ekšerengge (몹시 바쁜 것) ○ 一云 hahi cahi [人部 急忙類 一則]
<漢 07:42a> 上緊 / 급히 ᄒᆞ다 / hahilambi / yaya ekšeme yabure ekšeme weilembi (무릇 바쁘게 다니고 바쁘게 일하다) [人部 急忙類 一則]

(b) <漢 06:50a> 使拏來 / 가져 오라 ○又 다고 / gaji / niyalmai baru minde bu sembi (사람을 향해 나에게 주라 하다) ○一云 gaju 又 benju [人部 取送類 一則]
<漢 06:50a> 拏來 / 가져 오다 / gajimbi / gūwa ba i jaka be ubade isibumbi (다른 곳의 물건을 이곳에 이르게 하다) [人部 取送類 一則]

(c) <漢 10:11b> 背負 / 지라 / unu / yaya jaka be fisa de alifi yabu serengge (어떤 물건을 등에 받아서 다니라 하는 것) [産業部 扛擡類 一則]
<增 21:42b> unuhabi 背負着呢 / unufi yabure be, unuhabi sembi. (지고 다니는 것을, 등에 짐 졌다 한다.) [産業部 扛擡類]

이 예들은, 문법 설명에서 기술한 대로 虛字 즉 어미가 붙지 않은 어간형이 명령형으로 쓰이는 경우이며, 의미상 유추가 어렵지도 않다. 게다가 평서형 동사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漢』에서 이 어간 명령형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한 이유는, 파생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나 신주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4a)의 *hahila*는 *hahi*에 동사 파생 접미사 *-la-*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간이다. 또한 *hahila*의 어근인 *hahi*와 평서형 동사인 *hahilambi*는 *hahila*와는 다른 의미 부류에 속해 있다. 催逼類에서 나타나는 *hahila*는 急忙類에 있는 *hahilambi*의 파생 계열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 부류 속에서 독자적인 의미 단위로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관계로 인한 삭제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4b)에서 *gajimbi*의 명령형 *gaji*는 평서형 *gajimbi*와 나란히 있으면서도 삭제를 피했다. 이는 *gaji* 자체의 형태와 의미로 인해 선택되었다기보다는, *gaji*의 이형태인 불규칙 명령형 *gaju*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benju*에 관한 정보가 *gaji*의 표제항 내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gaju*가 표제어로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저본인『增』

에서 *gaji*를 앞세우고 *gaju*는 '漢語同上'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4]

(4c) *unu*의 경우는, *unumbi* 형태가 저본인『增』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增』에서는 *unumbi*가 아니라 *unuhabi*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는데,『漢』에서는 *unu*와 *unuhabi* 중 명령형인 *unu*를 표제어로 선택한 것이다.

명령형이지만 불규칙한 형태는 삭제되지 않고 수록된다. 또한 명령형으로만 존재하는 동사 역시 그대로 수록된다.

(5) 삭제되지 않은 불규칙 명령형

<漢 06:42b> 使尋找 / ᄎᆞᄌᆞ라 / baisu / waliyabuha jaka be baihana serengge (버리게 한 물건을 찾으러 가라 하는 것) [人部 詳驗類 一則]

<漢 06:45b> 使接受 / 밧으라 / gaisu / niyalma de benehe jaka be gaikini seme hendurengge ○ geli yaya jaka be bargiya serengge (사람에게 보낸 물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 또 어떤 물건을 거두라 하는 것) [人部 取與類 一則]

<漢 12:48b> 讓喫 / 먹으라 / jefu / jetere jaka be angga de ašu serengge (먹는 물건을 입에 머금으라 하는 것) [食物部 飮食類 一則]

*baimbi*와 *gaimbi*, *jembi* 등의 동사는 명령형이 불규칙형인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 외에도 *ombi*의 명령형인 *oso*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불규칙 동사형인 *bimbi*의 *bisu*는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6) 명령형만 존재하는 어휘

<漢 06:58a> 小心着 / 조심ᄒᆞ라 / guwelke / olhošo sere gūnin (주의하라 하는 뜻) ○一云 guweke [人部 愛惜類 一則]

<漢 06:58a> 謹防 / 조심ᄒᆞ여 예방ᄒᆞ라 / jebkele / olhošome seremše serengge (주의하여 방비하라 하는 것) [人部 愛惜類 一則]

---

[4] 4.2절에서 검토되지만,『增』에서 漢語同上으로 기술된 어휘는 총 554개이며, 그 중 164개는『漢』에서는 삭제되고, 389개는 一云 어휘로 추가되며, 1개가 소표제어로 추가된다. 漢語同上 어휘가 표제어로 수록되는 경우는 없다.

*guwelke*와 *jebkele*는 평서형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와 의미만으로는 동사 어간형인 다른 명령형 동사와 구별되지 않지만, 명령형으로만 존재하는 동사들이다.

(7) 삭제되지 않은 *-nu/(n)du-* 파생어

<漢 02:61a> 討論 / 互相講確 / bainumbi / geren i emgi hebešeme giyan be baime gisurembi (여럿이 함께 논의하며 이치를 구하여 말하다) [政部 辦事類 一則]

<漢 03:03a> 鬪歐 / 싸호다 / becunumbi / yaya ishunde toore tantanurengge (무릇 서로 욕하고 때리는 것) [政部 争鬪類 一則]

<漢 04:47a> 對撩跤 / 실홈ᄒᆞ다 / jafunumbi / juwe niyalma ishunde jafafi hūsun meljembi (두 사람이 서로 잡고 힘을 다투다) [武功部 撩跤類 一則]

'함께', '서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접사 *-nu-*에 의해 파생된 동사형도 삭제되지 않고 남은 예를 발견할 수 있으며, (7) 이외에도 *surtenumbi*(奔競)가 있다. 삭제를 피한 *-nu-*파생 동사는 4개가 전부이다. 그리고 *-(n)du-*가 붙은 동사형은 남김없이 삭제되었다.[5]

『增』에서는 *-ndu-*형과 *-nu-*형이 쌍을 이루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n)dumbi* 형을 앞세우고 *-numbi* 형은 '漢語同上'의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漢語同上의 *-numbi* 형 동사들은 대부분이 『增』에서 추가된 단어들이다.[6] 『增』의 *-(n)dumbi* 형은 대개 『御』에서부터 수록되어 있던 것들이며, 『增』에서 추가된 *-(n)dumbi* 형 동사는 *tuilendumbi*, *secindumbi*, *gūyandumbi*가 전부이다.

---

5 『增』에서 *-(n)du*로 인한 파생형은 모두 133개 동사로 『漢』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hendumbi*(말하다)가 대화의 상호성을 고려하면 기원적으로는 *-(n)du-*에 의한 파생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기본형 동사로 본다.

6 예외로 보이는 것으로 *secinumbi*가 있다. *secinumbi*는 『御』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漢語同上의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增』에서는 분화되어 두 번 수록된 경우이다.

『漢』에 남겨진 *-numbi* 형들은 그 형태상으로는 어근과 접사를 분리해 낼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미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은 『御』에서부터 수록되어 있으며, 『增』에서도 이형태의 짝으로 *-(n)dumbi* 형을 갖지 않은 단어들이다.[7]

동일한 접사의 이형태로 보이지만 *-(n)du-* 파생 동사들이 일관적으로 '함께, 서로'의 의미만이 추가된 것에 비해 *-nu-* 파생 동사들은 의미가 확장된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numbi* 형이 고형이고 *-(n)dumbi* 형이 더 생산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8] 40개의 *-nu-* 파생 동사들이 『增』에서 새로 수록된 것은 신조어로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御』에서 누락된 단어들을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삭제되지 않은 *-rame* 파생어

<漢 01:37a> 沿山走 / 산 ᄀᆞ으로 가다 / biturame / alin be hishame yabumbi (산을 스쳐 가다) [地部 地輿類 三則]

<漢 01:50b> 從旁邊 / 겻흐로 / dalbarame / uthai dalba deri sere gisun (즉 가 쪽으로 라는 말) [地部 地輿類 十四則]

*-rame*를 독자적인 접사로 본 것은 다소 흥미로운 시각이다. 『淸文啓蒙』과 같은 전통적인 문법서에서는 *-rame*를 독립적인 형태소로 분리해서 기술하지 않는다.[9] 『淸文啓蒙』은 *rakūnggeo*와 같이 각각의 형태소를 모두 분리할 수 있는 단위도 독립시켜 기술하는데, *-rame*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rame 혹은 *-lame*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을 따라' 혹은 '~

---

7 *secinumbi*를 제외하고 漢語同上 표지가 없는 40개의 *-numbi* 형 단어들은 모두 『御』에서부터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增』에서는 기본형과 함께 *-numbi* 형만 나타나고 *-(n)dumbi*형의 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중 '함께, 서로'의 생산적인 의미를 분리해 내기 어려운 4개 어휘가 『漢』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앞에서 *gaimbi*의 명령형으로 *gaji*가 대표형으로 선택되고, *gaju*는 漢語同上으로 기술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9 『淸書指南』(1682)의 飜淸虛字講約이나 『滿漢類書』(1700)의 字尾類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을 가로질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rame*의 의미 기능이 아니라 이 어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어근 명사가 갖는 의미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rame*는 동사 파생 접사 *-ra/la*와 어미 *-me*가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10] 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근 명사들이 산이나 강, 평원과 같은 지형과 관련된 단어들이며, *-me*가 아닌 다른 어미의 활용형도 간혹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漢』의 편찬자들이 *-rame*를 분석해내지 못하여 하나의 형태소처럼 다루었다고 여기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漢』의 문법 기술은 문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즉 예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형으로 제한적으로 기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합한 명사의 의미 속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의미 영역을 추출할 수 있는 공통부분만을 분리하여 기능어로 제한하는 방식의 문법 기술은, 명사의 의미 속성과 파생 접사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당 언어의 조어법을 탐구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9) 삭제되지 않은 *-bu-* 파생어

<漢 02:61a> 交付 / 通稱 맛지다 / afabumbi / baita be niyalma de nikebure yaya jaka be niyalma de bufi weilebure asarabumbi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 어떤 물건을 사람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고 간직하게 하다) [政部 辦事類 一則]

<漢 07:52a> 被笑話 / 우이이다 / injebumbi / niyalma de basubumbi (남에게 비웃음당하다) [人部 觀視類 一則]

---

10 박은용(1969:169, 171)에서도 *-rame*와 *-lame*를 독립적인 접미사로 기술하였지만, 마찬가지로 *-ra/-la*와 *-me*의 결합형으로 보았다. *-me*는 부동사형 연결어미로, *-me*로 인한 활용형이 부사로 어휘화하기도 한다.성백인(1968/1999:652-653) *funceme*(넘게), *neneme*(먼저), *goidame*(오래), *dahame*(～므로)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피사동 접사인 *-bu-*는 대단히 생산적이다. *-bu-*로 인해 파생된 어휘는 단순한 피사동의 의미에서부터 그로 인해 확장된 폭넓은 의미를 표현한다. 위의 예들은『漢』에서 삭제되지 않았으면서도 접사 파생을 통해 그 의미가 예측 가능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사역형과 자동사형 사이의 의미가 피사동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휘가 있다. 이러한 어휘는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0) 확장된 의미를 갖는 파생어

<漢 03:32a> 合巹 / 동뢰연ᄒᆞ다 / acabumbi / eigen sargan tuktan holboro doroi juwe hūntahan de nure tebufi halanjame omibumbi (부부가 처음 동침하는 예로 두 잔에 술을 담아서 번갈아 마시게 하다) [禮部 宴筵類 一則]

<漢 06:56a> 合 / 通稱 一ᄒᆞ다 / acabumbi / yaya baita gūniha de isibumbi (어떤 일이 의도한 것에 이르게 되다) [人部 喜樂類 一則]

<漢 07:48b> 會見 / 만나 보다 / acambi / yaya ishunde ucarambi (무릇 서로 마주치다) [人部 遇合類 一則]

<漢 08:61a> 該當 / 맛당타 / acambi / uthai giyan sere gisun uttu oci giyan tuttu oci giyan sere be inu uttu oci acambi tuttu oci acambi sembi (즉 합당하다 하는 말, 이러면 합당하다, 저러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또한 uttu oci acambi, tuttu oci acambi라 한다) [人部 散語類 一則]

*acabumbi*는 당연히 *acambi*의 단순한 피사동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abumbi*가 단순 피사동인 경우에는『漢』에서 굳이 어휘로 수록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增』에서는 *acabumbi*가 표제어로 총 6회 수록되지만,『漢』에서는 그 중 2개의 경우만 표제어로 수록해 놓았다.

이 때 수록된 *acabumbi*는 *acambi*의 단순한 피사동의 의미로 볼 수 없다. 하나는 본래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부부가 처음 동침할 때 행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리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합하다'라는 파생 이전 동사인 *acambi*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보여준다. 삭제를 피해 수록된 두 *acabumbi*는 단순한 피사동형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휘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bū-*에 의한 파생어
<漢 03:10b> 轉使人打 / 시겨 치다 / tantabūmbi / niyalma de ulame afabufi tantambi (남에게 전하여 공격하게 해서 때리다) [政部 捶打類 一則]

특이한 어형을 갖는 경우도 삭제를 피해 수록되었다. *tantabūmbi*는 의미상 분명 *tantambi*의 사동형이지만, *-bu-*가 아닌 *-bū-*로 파생되었다.

(12) <增 05:54a> tantabumbi 被打 / niyalma de hendufi tantara be, tantabumbi sembi. geli niyalma i tantara be alime gaire be, inu tantabumbi sembi. (남에게 말해서 때리는 것을, tantabumbi라 한다. 또 남이 때리는 것을 받아 얻는 것을 또한 tantabumbi라 한다) [政部 捶打類]
<增 05:54a> tantabūmbi 轉使人打 / niyalma de ulame afabufi tantara be, tantabūmbi sembi. (남에게 전하여 공격하게 해서 때리는 것을 tantabūmbi라 한다) [政部 捶打類]

『增』에서는 *tantambi*의 피사동사형으로 *tantabumbi*와 *tantabūmbi*를 함께 수록하였다. *tantabumbi*는 *tantambi*의 단순한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비해, *tantabūmbi*는 미묘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漢』에서는 단순 피사동형인 *tantabumbi*는 생략하고,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특이 어형을 보이는 *tantabūmbi*는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bū-*로 인한 파생은 『增』을 통틀어 *tantabūmbi*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어휘는 피사동 파생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간에서 *-bū-*를 분리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3) 삭제되지 않은 수사 파생어

<漢 04:25a> 每幾箇 / 몃식 / udute / neigen udu goibumbi (고르게 몇 나누어 맞추다) [文學部 數目類 一則]

<漢 04:25a> 第幾 / 몃재 / uduci / ton udu de isinaha sere gisun (수가 몇에 다다랐다 하는 말) [文學部 數目類 一則]

<漢 04:25a> 幾次 / 몃 번 / udunggeri / udu mudan sere gisun (몇 번 하는 말) [文學部 數目類 一則]

(1e), (1f), (1g)는 수사에 결합하는 접사들로서, 세 접사를 통틀어 『漢』에 남겨진 예는 *udu*와 결합한 경우밖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제어 배열 순서상 *udu*는 실제 수사들이 나열되기 이전에 나타나므로, (1e), (1f), (1g)로 인한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1e), (1f), (1g)의 설명을 통해 삭제의 근거가 마련된 어휘는 19개에 불과하다.

3.1.1.2. 문법적 파생

『漢』의 문법에 대한 설명과 삭제 근거를 통해 삭제된 어휘 외에도 문법적 관계로 인한 예측 가능성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휘에 920여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11]

---

11 정확한 수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삭제의 이유가 문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arhūšambi*(機密)[政部 辦事類 一則]는 접사 *-ša-*로 인한 문법적 예측 가능성 때문에 삭제되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단어가 『漢』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900여 개의 수치는 동일 어근을 고유하는 파생 동사 목록 속에서 문법적 파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14) 동사류

<增 04:37a> simne 考 / bithe coohai erdemu i fulu eberi be cendeme ilgame sonjo sere be, simne sembi. (文武德의 낫고 모자람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뽑으라 하는 것을 simne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mbi 考試 / yaya cendeme ilgame sonjoro be, simnembi sembi. (무릇 시험하고 분별하여 뽑는 것을 simnembi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bumbi 使考試 / niyalma de hendufi simnere be, simnebumbi sembi. (사람에게 말해서 시험 보는 것을, simnebumbi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nembi 去考試 / tubade simneme genere be, simnenembi sembi. (저쪽으로 시험 보러 가는 것을 simnenembi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njimbi 來考試 / ubade simneme jidere be, simnenjimbi sembi. (이곳에 시험 보러 오는 것을 simnenjimbi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ndumbi 一齊考試 / geren niyalma i simnere be, simnendumbi sembi. (여러 사람이 시험 보는 것을 simnendumbi라 한다.) [設官部 考選類]

<增 04:37a> simnenumbi 漢語同上 / uthai simnendumbi sere gisun. (즉 simnendumbi라는 말.) [設官部 考選類]

<漢 04:27a> 考試 / 과거 뵈다 ○又 試才ᄒᆞ다 / simnembi / bithe coohai erdemu i fulu eberi be cendeme ilgame sonjombi (文武德의 낫고 모자람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뽑다) [設官部 考選類]

*simne*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 및 파생 동사들의 계열을 예로 들면, 『增』에서는 어간을 포함하여 7개의 동사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漢』에서는 기본 동사만을 수록하였다. 여기서 삭제된 동사들 중에는, 앞서 보았던 예들처럼 해당 접사의 문법 기술을 통해 삭제의 이유를 밝힌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설명 없이 삭제된 어휘들도 있다. '가다'의 의미를 추가하

는 *-na/e-*와 '오다'의 의미를 추가하는 *-(n)ji-*로 인한 파생형이 그러한 설명 없이 삭제된 예들이다.

이처럼 접사나 어미로 인한 파생형이나 활용형이, 해당 어근을 공유하는 동사 계열 속에서 예측 가능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漢』에서 삭제한 이러한 접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 파생 접사 : 동사류

(a) -ca/e/o-[12] :

hiracambi(只管斜看), songgocombi(齊哭), gisurecembi(同說話), ilicambi(同站立), injecembi(共笑) 등

(b) -da/e/o-, -ja/e/o-, -ša/e/o-, -ta/e-[13] :

ibedembi(漸漸前進), hanjadambi(行廉), fusejembi(薄處破通), sendejembi(破成豁口), wasihašambi(亂撓), kaduršambi(只是爭强), tuwašatambi(照看), sujutembi(一齊跑) 등

(c) -(n)ji-[14]:

tenjimbi(來坐), ilinjimbi(來站立), nuktenjimbi(來游牧), hadunjimbi(來割), melenjimbi(來飮牲口), hafunjimbi(通過來) 등

(d) -na/e/o-[15]:

---

12 '함께, 서로, 일제히'의 의미를 갖는다. 『淸文啓蒙』에서는 "*nu, du, ca, ce, co* 此五字俱是。相字。共字。衆字。彼此字。大家字。一齊字。在字中協上字韻聯用"<淸文啓蒙 3:50b>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nu/(n)du*'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접사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끊임없이, 언제나'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며, 어간 형성 접미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은용(1969:81-83)

13 이 접사들은 동일한 형태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어휘별로 구분하여 나누어야 하지만, 문법 기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함께 묶었다. 어근을 동사로 파생시키거나, 어근의 행동이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ša, še, ta, da, te, de, do, tu, la, le, lo, mi, je, ra, re, ro, niye, kiya, giya, kiye, hiya, hiye* 此二十二字。俱是行爲動用。力做開展之意。在字中協上字韻聯用。"<淸文啓蒙 3:52a>, "*ša, še, šo, mi, ce, ja, je, jo* 此八字俱是。頻頻不一。不止。不定之意。又微微之意。在字中協上字韻聯用。"<淸文啓蒙 3:51a> 박은용(1969:83-86)

14 동사 *jimbi*(오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어근의 행동이 화자의 방향으로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ji* 來字。在字中聯用。"<淸文啓蒙 3:50a>. 박은용(1969:91-92)에서는 '-na-/-ne-/-no-와 상대적인 관념의 형태소'라 기술하였다.

15 어근의 행동이 화자의 방향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na, ne, no* 此三字俱是。去字。又生出字。長成字。在字中協上字題聯用。"<淸文啓蒙 3:49a> 또한 어근 내용이 나타나거나 생긴다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박은용(1969:97-100)

tenembi(去坐), ilinambi(去站立), amganambi(去睡), hūlhanambi(去偷), obonombi(去洗濯), suksalanambi(去開墾), udanambi(去買) 등

앞서 문법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삭제 이유를 밝혀 놓은 (1)의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15)의 접사 결합형들은 어떠한 설명 없이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의 차이는, 문법 요소들의 학습 난이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의 비일관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역 방식에서도 드러나지만『漢』은 문법 요소들은 엄격하게 대응시키지 않는다. 삭제된 파생어들에 대한 정보는『漢』의 이용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문법 기술을 수록한 것이 더 예외적이다.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는 동사 계열 내에서 (15)와 같은 접사들로 인한 파생어들은 일관적으로 삭제되지만, 같은 접사 파생어로 보인다 하더라도 동일 어근의 계열 속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동사들은『漢』에서도 그대로 수록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isinjimbi*(이르러오다)는,『增』에서 *isimbi*와 문법적 계열을 이루어 수록되었던 경우『漢』에서는 삭제되지만, *haminjimbi*(거의 이르다), *dosimbi*(들어오다) 등과 의미 계열을 이루어 수록된 경우는 그대로 수록된다.

어미로 인한 활용형들 역시 표제어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16) 어미류

(a) -ha/ka[16]:

faha(乾了), wengke(感化了), getereke(勦唋了), tookaha(悞了), saisaha(腰子筐), urehe(熟了), šahūraka(冷了) 등

---

16 과거시제나 완료상을 표현한다. 어간의 모음에 따라 a/e/o의 변이형을 갖는다. "*ka, ha, ko, ho, ke, he* 此六字俱是。了字。矣字。也字。在字尾聯用。乃已然之詞。句中亦有解作之字。的字者。俱隨上字押韻用之。如上用 *a* 下用 *ha*, 上用 *e* 下用 *he*, 上用 *o* 下用 *ho*, 上用 *ha* 下用 *ka*, 上用 *ge* 下用 *ke*, 上用 *fo* 下用 *ko*."<淸文啓蒙 3:18a> -*ha*류와 -*ka*류의 결합조건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ka*류는 중성동사나 재귀동사와 결합한다는 견해가 있다. 박은용(1969:115-119)

(b) -habi[17]:

lifahanahabi(成了泥), šašahabi(攪混住了), urehebi(熟了), serehebi(知覺了), yoyokobi(窮隳頹), berekebi(驚獃了) 등

(c) -kū[18]:

teyerakū(不歇息), teyenderakū(總不歇息), jalandarakū(總不間斷), gaijarakū(不取), ergerakū(不安息), ergenderakū(總不安息) 등

(d) -mbi[19]:

sabdambi(下雨點), labsambi(下雪片), šahūrambi(涼), feniyelembi(成羣), hafukiyambi(使通曉) 등

(e) -rahū[20]:

ondorahū(恐其亂來), nionggajarahū(恐至傷)

어미류 역시 접사류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문법적 계열 속에 위치해 있을 때 삭제된다. 그러나 동일 어근 동사의 파생형들과 어미로 인한 활용형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미의 기능으로 인해 활용형의 의미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된다. 예를 들어, *teyerakū*(不歇息)는 人部 黽勉類에 위치해 있으며, *teyembi*(歇息)를 비롯한 *teyembi*의 파생어들은 人部 歇息類에 수록되어 있지만, 다른 부류의 의미 계열 속에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teyerakū*는 수록되지 않았다.

명사 혹은 형용사 계열의 파생어들도『漢』에서는 대거 삭제되었다.

---

17 (16c)의 *-ha/ka*류에 *bi*가 결합한 형태로 종지형이다. "*kabi, habi, kobi, hobi, kebi, hebi* 此六字俱是。已了字。矣字。也字。乃一事已畢。用此煞尾。另鉉別情。已然之語。"<淸文啓蒙 3:21a>

18 동사 *akū*에서 기인한 것으로 시제나 시상을 표현하는 *-ra/re*, *-ha/he*, *-ka/ke*류와 결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rakū* 不字。在字尾聯用。"<淸文啓蒙 3:26b>, "*kakū, hakū, kekū, hekū* 此四字俱是。未字。不曾字。 沒有字。在字尾聯用。此四 *kū* 字之上。俱要添一阿字念。"<淸文啓蒙 3:27b> 박은용(1969:122-123)

19 현재의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기술하거나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mbi* 在字尾聯用。乃將然未然。煞尾之語。比*ra, re, ro* 等字。詞義實在。"<淸文啓蒙 3:25a>. 『御』, 『增』, 『漢』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동사에 따라 미완의 상적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mbi*형이 아닌 다른 어미와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20 어근의 행동이 일어날까봐 우려된다는 의미를 갖는다.『淸文啓蒙』에서 "*rahū, ayoo* 此二字俱是。恐其字。恐伯字。 *ayoo* 在句尾單用。 上必用 *ra, re, ro* 等字。 *rahū*在字尾聯用。"<淸文啓蒙 3:40b>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ra/re/ro*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rahū*를 별개의 접미사로 제시하였다. 박은용(1969:129)

(17) 명사류

<增 25:46b> ajige 小 / buya ser sere be, ajige sembi. (잘고 조그맣다 하는 것을, ajige라 한다.) [器皿部 大小類]

<增 25:46b> ajida 漢語同上 / uthai ajige sere gisun. (즉 ajige라는 말) [器皿部 大小類]

<增 25:46b> ajigesi 小些的 / geren ajige ningge be, ajigesi sembi. (여럿의 작은 것을 ajigesi라 한다.) [器皿部 大小類]

<增 25:46b> ajigen 幼小 / yaya ajige be, inu ajigen sembi. ajigen de ajigen ci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무릇 작은 것을, 또한 ajigen이라 한다. ajigen de, ajigen ci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器皿部 大小類]

<增 25:46b> ajigan 畧小 / uthai ajigen sere gisun. (즉 ajigen이라는 말) [器皿部 大小類]

<增 25:47a> asikan 畧小 / majige ajige be, asikan sembi. (적이 작은 것을 asikan이라 한다.) [器皿部 大小類]

<增 25:47a> asikasi 畧小的 / asikan jaka be, asikasi sembi. (적이 작은 물건을 asikasi라 한다.) [器皿部 大小類]

<增 25:47a> asigaliyan 畧小些 / heni majige asigan be, asigaliyan sembi. (조금 적이 작은 것을 asigaliyan이라 한다.) [器皿部 大小類]

<漢 11:54a> 小 / 적다 / ajige / buya ser serengge (잘고 조그많다 하는 것) ○一云 ajida 又 osohon [器皿部 大小類]

<漢 11:54a> 小些的 / 죠고만 것 / ajigesi / geren ajige ningge (여럿의 작은 것) ○一云 asikasi [器皿部 大小類]

*ajige*와 같은 의미 계열에 속하는 어휘 중, 『增』에서는 8개의 단어를 같은 의미 부류 안에 나열하고 있지만, 『漢』에서는 이 중 2개의 단어만을 선택해 수록하였다. 계열 내에서 파생 관계나 유의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그 밖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一云과 같은 부호를 활용하여 첨가한다. 그러나 생략된 대부분의 단어들은 문법에 관한 보조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방

식으로 『漢』에서 생략된 명사 계열의 접사들은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18) 파생 접사 : 명사류

(a) -cuka[21]:

hairacuka(可惜), naracuka(可貪戀), usacuka(可傷), gelecuke(可怕), sengguwecuke(可懼) yertecuke(可愧), cecercuke(狠可惱) 등

(b) -cun[22]:

akdacun(可靠處), naracun(係戀), gasacun(怨), basucun(可笑的), ilgacun(有分別), buyecun(愛欲) 등

(c) -hun/hūn[23]:

sartashūn(將悞), derishun(叛離), facuhūn(亂), felehun(冒犯), eberhun(懦), ardashūn(嬌嫩), jilehun(恬然無恥) 등

(d) -kan[24]:

onggolokon(預前些), teniken(將纔), sulfakan(畧舒裕), šanyakan(微白), ajigan(畧小), asikan(畧小), komsokon(少少的) 등

(e) -ku/kū[25]:

nungneku(鬧將), gucihiyereku(肯攀人的), fetereku(慣會苛求), nemšeku(肯爭), tonggolikū(觔斗), fangšakū(燻狐穴器) 등

(f) 어근 명사/-n:

eyen(流), calgin(水滉), bayan(富), uhe(同), ilin(止), oilohon(輕浮), baktan(容), hairan(可惜), juran(起行處) 등

---

21 어근이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를 만든다. "*cuka, cuke* 此二字俱是。可字。堪字。在字尾聯用。"<淸文啓蒙 3:44b> 박은용(1969:142-144). 만주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동일한 범주로 기능하는 경향이 다분하지만, -*cuka*로 파생된 어휘들은 명사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22 어근이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지닌 명사를 만든다. "*cun* 事字意。在字尾聯用。"<淸文啓蒙 3:37a> 의미상 -*cuka*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cun*으로 파생된 어휘는 명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

23 어근의 모양이나 상태를 가진 것, 그러한 사람, 혹은 그러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를 만든다. "*hon,hūn,hun* 此三字俱是。形貌形狀景況之詞。在字尾聯用。"<淸文啓蒙 3:37b>

24 어근이 의미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보이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를 만든다. "*kan, kon, ken, si, liyan, shūn, shun* 此七字俱是。微字。略字。些字。又重上字之詞。在字尾聯用。" <淸文啓蒙 3:41a>

25 어근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도구를 의미하는 명사를 만든다.

(g) -ngga[26]:

hartungga(各屬下人), salungga(有鬚人), cirangga(氣色的), giljangga(能恕的人), jurgangga(有義氣的), urkingge(響亮), targangga(戒), amagangga(後來的) 등

(h) -sa(pl)[27]:

ambasa(大臣等), hafasa(衆官), janggisa(章京等), emete(諸母), amjita(衆伯父), uruse(衆媳婦), hojihosi(衆女婿), nota(衆妹子), meyete(衆妹夫), gegese(衆姐姐), bayasa(衆富家) 등

(i) -tala[28]:

jalutala(直致滿), funcetele(至有餘), abtala(修樹枝), bitele(正在間), mohotolo(至於窮盡), dubentele(直到末尾), fihetele(至於塡滿) 등

(j) -tei[29]:

singgetei(永遠入已), ergeletei(强派)

이상에서 거론한 예들은, 문법적 생산력으로 인해 생략된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법 정보와는 관계없이 생략된 다른 단어들은 의미에 따라 삭제가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2. 의미적 기준

어휘 의미를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 생략해도 무관한 경우는, 의미가 중복되거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 경우와, 굳이 학습하거나 참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26 어근의 속성을 가진 것, 사람 등을 의미하는 명사를 만든다. "*ga, go, ge* 此三字傷是。的字。者字。有字。乃生成已成之詞。在字尾聯用。" <淸文啓蒙 3:9a>
"*ningge, ingge* 此二字俱是。的字。上一字聯用車用俱可。下一字聯用。"<淸文啓蒙 3:9b>

27 어근을 복수형으로 만든다. "*sa, se, si, ta, te,* 此五字俱是。們字。等字。輩字。在字尾聯用。" <淸文啓蒙 3:32a>

28 '~까지, ~되도록'을 의미하는 부사를 만든다. "*tala, tele, tolo* 此三字俱是。至字。到字。在字尾聯用。"<淸文啓蒙 3:40a>

29 '~하면서, ~한 채로'를 의미하는 부사를 만든다. "*hai, tai, tei* 此三字俱是。些須不留。極盡之詞。在字尾聯用。"<淸文啓蒙 3:35b>

3.1.2.1. 중복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중복 수록된 경우, 즉 다의어이다. 동일한 단어가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문맥에서 협소한 맥락에 의해 제한된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맥락이 달라져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부류마다 같은 단어를 수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 기수록 어휘 : 표제어로 중복 수록된 경우
acabumbi(合), akdun(結實), aldungga(奇怪), amdun(黏子), anambi(推侉車), bahanambi(會), baibumbi(用), bakcin(對手), bargiyambi(收), bata(敵冦), bederembi(退), bolgo(乾淨), cambi(箭扛起), cira(嚴密), dangse(檔案), dasambi(改正), dorgi(內里), dosimbi(跟進去), dube(枝尖), emhun(孤), feniyen(羣), gabtambi(射獸), genggiyen(明), hūdun(急快), hūturi(福), jobombi(艱難), langtungga(頭大), micihiyan(淺), narhūšambi(機密), oncohon(傲慢), sara(傘), sindambi(釋放), sithūmbi(篤志), tabumbi(勾), tuwakiyambi(看守), urembi(熟), ureshūn(熟), urgun(喜), waliyambi(吐出), wasikabi(衰敗了), weihe(牙), weihuken(輕), šurdembi(轉迷臥獸), yadalinggū(軟), yadalinggū(弱), yasha(跌包) 등

(19)의 예들은 동일한 단어가 다른 의미 부류에서 동일한 의미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처럼 표제어로 수록되지 않고, 一云이나 소표제어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 기수록 어휘: 一云 / 소표제어로 중복 수록된 경우
anggalambi(求告著走), fafuri(勇健), gege(姐姐), ikūršambi(像蛇行), joholikabi(膽滿肉肥), lete lata(累墜), šuwai seme(細高挑) 등

(20)의 단어들은 『增』에서는 두 번씩 수록되지만 『漢』에서 표제어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관련 어휘에 一云 어휘나 소표제어로 수록하고, 중복을 피하여 표제어로는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류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어휘들 중에는 의성어나 의태어들도 포함된다.

(21) 기수록 어휘: 상징어

biyor seme(膿直流), dar seme(冷極戰樣), dur(衆皷聲), fak seme(忽然迷倒), gang gang(狗急連叫聲), hing seme(很病), jingjing jangjang(羣鳥春鳴聲), keb seme(乏極), kunggur(衆車聲), miyar miyar(獐狍鹿羔急叫聲), patar pitir(魚鳥掙跳聲), sar sar(蚱蠓飛聲), tok tok(連猷木魚聲), šuwar(蛇蟒急過聲) 등

(21)의 의성어나 의태어들은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들이다. 이 단어들은 『增』의 여러 의미 부류에서 중복적으로 수록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漢』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 표제어로 남기고 그 이상의 경우는 삭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biyor seme*와 *fak seme*는 『增』에서는 각각 4회, 3회 수록되었지만, 『漢』에서는 모두 두 번씩 수록되었다.

3.1.2.2. 예측 가능성

문법적 파생어들이 『漢』에서 대거 삭제된 이유는, 『漢』의 예상 사용자들의 만주어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파생어들에 대한 정보가 잉여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漢』에서 생략된 많은 연어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어의 결합으로 생성된 어구가 만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 이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은 분명 잉여적이었을 것이다.

(22) 예측 가능한 연어

aba bargiyambi(收圍), ai sere(說甚麼), anda jafambi(結賓友), bahara songko(可得的踪跡), baharakū songko(不得的踪跡), banin ehe(生相醜), beye teksin(身體停勻), birai cargi(河那邊), birai ebergi(河這邊), bonggo de genehe(頭一個去了), bono de foribuhakū(未被雹打), dorgi namun(內庫), duici jalan i omolo(四代孫), elen de(至足), ere cimari(今早), erun sui(罪孽), fancacuka(可氣), fe gucu(故友), gaifi yabumbi(任意折挫), gala dacun(手快), halhūn edun(暖風), halukan edun(溫風), hūfun ulebumbi(煮粥喂瘦馬), ilha akū turtun(素春紬), ilha noho dardan(大花粧緞), ilhangga turtun(花春紬), jingkini beye(正身), juwan tumen(十萬), kaicame injembi(大聲笑), lalanji oho(爛了), minggan tumen(千萬), mooi calu(木倉), morin bargiyambi(收馬), morin gajimbi(領馬), morin sindambi(撒馬), niša tebuhe (滿載), niyamniyara ehe(騎射不好), niyamniyara mangga(善騎射), niyamniyara sain(騎射好), sabugan akū(沒見時面), soroki amba(忌較大), sula umiyesun(空帶), sunjaci jalan i omolo(五代孫), talkiyan tališambi(電光接連), tanggū tumen(百萬), te ele oho kai(今已足了), tumen tumen(萬萬), ubaliyambi(更變), waha sedehe(漢語同上連用), wesibume fungnembi(晉封), šara nimehe(疼極), šoforo akū(馬不把滑), yasa gehun oho(窮的大瞪著眼) 등

연어를 이루고 있는 어구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해 새롭거나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표제어로 수록될 것이다. 그러나 (22)에서 예로 든 어구들은 합성된 의미가 전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문맥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3.1.2.3. 특수성

의미상 중복이나 잉여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된 어휘들 이외에도, 쓰임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어휘들 역시 삭제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補編에서 삭제된 어휘를 포함한 2100여 개의 어휘들은 잉여성 때문에 삭제된 것들이 아니다. 성백인(1983)의 지적처럼 이

들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어구들로 판단된다.

(23) 삭제된 상징어

bajar seme(物繁碎), biyorung seme(行動鬆懈), buling seme(怔怔的), butu pata(小物連墜聲), cak seme(整齊貌), giyar gir(禽雛喚母聲), giyar giyar(禽鳥急鳴聲), kakūng kikūng(重車重擔聲), kiyar kir(騷鼠等物拒人聲), lang lang seme(搶著滿口喫), mukjuri mukjuri(矬人慢跑), olohoi(驚訝聲), pak pik(衆小爆燁聲), sokso saksa(騎驥馬怒去), tab tib(水點滴聲), ung wang(鼻音), šak sik(甲葉響聲), yang yang(鐘響聲) 등

(21)의 상징어들과는 달리 (23)의 상징어들은『漢』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중에는 수록되어 있는 표제어들 중 일부 어근을 공유하거나, 수록된 표제어를 중첩하여 생성한 경우도 있다. 또한 해당 어휘가 표현하는 의미가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삭제했을 수도 있다. *giyar gir*(어린 새들이 자기 엄마를 찾는 소리), *giyar giyar*(새들이 두려워 우는 소리) 등 조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해도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어휘들이라고 판단될 경우, 어휘 의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삭제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어들 이외에도 조선인 역관들이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많은 단어들이『漢』에서는 삭제된다. 주로 동식물명이나 관직명, 제도 등 명사들이 포함되며, 매우 지엽적인 의미의 동사들도 일부 포함된다.

(24) 쓰임이 적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

juru sirha(太子帝星總名), abkai kesingge inenggi(天恩日), heheri faitame(橫過山腿梁), sin jeku jetere aha(管領下食口糧人), suwayan uhumi(裹綠頭牌黃綾), amsun i yali(祭神肉), monggo buren(蒙古角), gincihiyan tuwabungga hoošan(涇縣榜紙), delun gidame fiyelembi(壓鬃大上), sahiba(獻媚人), ferguwecuke horonggo enduri(神武), tunggulembi(燒柳汁熨傷處), buhiyen i

efin(押寶), samadi hūwa(禪院), tolon tolombi(點火把叉魚), juru gisun i dengjan(燈聯), mansui undurakū(滿地風雲龍緞), ijasha mahala(算盤挌搭帽), kalju(穿木輴的拄棍), šacungga jahūdai(沙船), hiyahan mulan i iletu kiyoo (交椅亮轎), seksen i yali(氷窟凍住的野獸肉), arsari šanyan bele(次白米), ajida jofohori(枸橘), sika foyo(塔墩莎草), wangga jalgasu moo(香椿樹), fulgiyan jamuri ilha(朱千薔薇花), kuringge hoohan(虎斑虫), usihangga gurgu(靈獸), angga cakcahūn(嘴沉), tayungga nimaha(白鯤魚), ashangga yerhuwe(飛螞蟻) 등

이상의 예들은 補編을 제외하고, 『增』 正編의 어휘들 중에서 『漢』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을 部별로 하나씩 예로 든 것이다. 문법이나 의미의 측면에서 다른 표제어들과 중복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적은 어휘들로서, 대부분 조선의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실제 외교나 무역 등의 활동에서도 사용 빈도가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삭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들도 있다.

(25) 삭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예

<增 18:53a> fali 個數 / toloro gisun, juwe fali ilan fali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수 세는 말, 두 개, 세 개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人部 散語類 第六]

<增 25:35a> komso 少 / umesi labdu akū be, komso sembi. (매우 많이 없는 것을 komso라 한다.) [器皿部 多寡類 第二]

(25)의 단어들은 다른 청학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26) (a) orho oci juwan fali jiha de emu fulmiyen 집흔 열낫 돈에 흔 뭇시라 <淸語老乞大 01:25b>

(b) geren komso tehererakū be mederi dorgi niyalma gemu sarengge

여러과 젹으니 ᄀᆞᆺ지 아님을 ᄒᆡᆼᄂᆡ 사ᄅᆞᆷ이 다 아ᄂᆞᆫ 거시라<三譯總解 06:08b>

사용 빈도와 의미, 중복성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도『漢』에서 수록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3.2. 표제어 변화

『增』의 거시구조와『漢』의 거시구조는 표제어의 수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漢』은『增』의 체재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제항 무리들은『增』의 의미 부류와 동일하게 같은 부류 내에서 대개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하나의 표제항이 둘로 분할되어 나타나거나, 배열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표제어의 어형이『增』과 달리 수록된 경우도 있다.

3.2.1. 표제어 분할

고동호(2014:8)에서 지적한 것처럼,『漢』에서는『增』의 표제어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분할하여 제시된 경우가 있다.[30]

(27) 표제어 분할

(a) <增 10:19a> meye 妹夫小姨夫 / non i eigen be meye sembi. baša i eigen be, inu meye sembi. (누이 동생의 남편을 meye라 한다. 처제의 남편을 또한 meye라 한다.) [人部 親戚類 一則]

---

[30] 다만 이 논문에서 제시된 *ice calu*가 *amargi ice calu, julergi ice calu*로 분할되어 수록되었다는 예시는 착오로 판단된다.『增』에도 *amargi ice calu, julergi ice calu*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漢淸文鑑』에서는 *ice calu*는 삭제되어 있다.

<漢 05:40b> 妹夫 / 一一 / meye / non i eigen (누이동생의 남편) [人部 親戚類 一則]
<漢 05:40b> 小姨夫 / 아ᄋᆞ 동셰 / meye / baša i eigen (처제의 남편) [人部 親戚類 一則]

(b) <增 10:19b> keke 大姨大姑 / sargan i eyun be, keke sembi. eigen i eyun be, inu keke sembi. (아내의 언니를 keke라 한다. 남편의 누나를 또한 keke라 한다.) [人部 親戚類 一則]
<漢 05:40b> 大姨 / 처형 / keke / sargan i eyun (아내의 언니) [人部 親戚類 一則]
<漢 05:41a> 大姑 / ᄆᆞᆺ ᄉᆡ누이 / keke / eigen i eyun (남편의 누나) [人部 親戚類 一則]

(c) <增 10:19b> berhu 小姑小妗 / eigen i non be, berhu sembi. jai eyun ini deo i sargan be, inu berhu sembi. (남편의 여동생을 berhu라 한다. 그리고 누나가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또한 berhu라 한다.) [人部 親戚類 一則]
<漢 05:41a> 小姑 / 아ᄋᆞ ᄉᆡ누이 / berhu / eigen i non (남편의 여동생) [人部 親戚類 一則]
<漢 05:41a> 小妗 / 아ᄋᆞ 오라ᄇᆡ 처 / berhu / eyun ini deo i sargan (누나의 자기 남동생의 아내) [人部 親戚類 一則]

(d) <增 16:10a> toribuhangge 慣嫁人投主子的 / ududu eigen halaha hehe, ududu boo halaha aha be, toribuhangge sembi. (허다하게 남편을 바꾼 여자, 허다하게 집을 바꾼 남자를 toribuhangge라 한다.) [人部 咒罵類 一則]
<漢 07:57b> 慣嫁人 / 화냥이 / toribuhangge / ududu eigen halaha hehe (허다하게 남편을 바꾼 여자) [人部 咒罵類 一則]
<漢 07:57b> 投主子的 / 投花 잘 ᄒᆞ는 놈 / toribuhangge / ududu boo halaha aha (허다하게 집을 바꾼 남자) [人部 咒罵類 一則]

(e) <增 16:39b> gakda 瘸一足眇一目 / emu yasa eden emu bethe eden

be, gemu gakda sembi. (한쪽 눈이 장애가 있거나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는 것을 모두 gakda라 한다.) [人部 殘缺類 一則]

<漢 08:15b> 瘸一足 / 흔 다리 저다 / gakda / emu bethe eden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다) [人部 殘缺類 一則]

<漢 08:15b> 眇一目 / 흔 눈 머다 / gakda / emu yasa eden (한쪽 눈이 장애가 있다) [人部 殘缺類 一則]

(f) <增 31:27a> bilembi 下蛋下崽 / niongniyaha coko i jergi ujima, ulhūma cecike i jergi gasha i umhan banjire be, bilembi sembi. jai ulgiyan i jergi ulha, deberen banjire be, inu bilembi sembi. (거위나 닭 등의 가축과, 꿩이나 참새 등의 새가 알 낳는 것을 bilembi라 한다. 또 돼지 등의 짐승이 새끼 낳는 것을 또한 bilembi라 한다.) [牲畜部 牲畜孳生類 一則]

<漢 14:15b> 下蛋 / 알 낫타 / bilembi / niongniyaha coko i jergi ujima ulhūma cecike i jergi gasha umhan banjimbi (거위나 닭 등의 가축과 꿩이나 참새 등의 새가 알 낳다) [牲畜部 牲畜孳生類 一則]

<漢 14:16a> 下崽 / 삿기 낫타 / bilembi / ulgiyan i jergi ulha deberen banjimbi (돼지 등의 짐승이 새끼 낳다) [牲畜部 牲畜孳生類 一則]

이 여섯 개의 예가 표제어가 분할된 예의 전부이다. 이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增』의 표제어가 두 가지 의미로 양분 가능한 경우에 『漢』에서는 이를 별개의 표제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增』의 편찬자들은 하나의 만주어 단어가 한어로는 두 개의 개념에 대응할 때 하나의 표제항에서 두 의미를 모두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문 전석에서 개념을 분리해 정의한 것은 이미 『御』에서부터 수립된 것이며, 만주인들도 고유어의 한 단어가 한어의 두 개념에 대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미가 포함하는 범주를 양분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포괄적인 범주로 풀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漢』의 편찬자들은 이를 별개의 표제어로 나누어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漢』에서 표제어들을 둘로 나누어 수록한 것은, 『漢』 전체적인 구성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는 『漢』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편집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본과의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어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2. 표제어 배열 순서의 차이

성백인(1983, 1999:42)을 비롯하여 연규동(2014:58-59)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增』에서의 滿, 蒙, 漢, 朝(高麗) 순의 배열이 『漢』에서 漢, 朝(高麗), 滿, 蒙 순으로 바뀐 점을 언급하였다.[31] 이러한 순서 변화의 기저에는 漢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사대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곤 했는데, 저본의 표제어 배열 순서를 굳이 바꾸어 수록한 데에는 편찬자들의 의도가 개입했을 것이며, 이러한 표제어 배열 순서에서의 변화는 중국을, 조선을 비롯한 다른 곳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긴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漢에 대한 오랜 事大의 역사를 지닌 조선의 입장에서, 사전 어휘의 배열 순서를 결정할 때 편찬자들의 정치적 문화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漢』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위치 변화의 예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들은 언어 내적인 요소, 즉 단어들 사이의 의미와 기능 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漢』은 『增』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增』의 어휘 배열순서는 『漢』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배열 순서를 가진 두

---

31 예외도 존재한다. 居處部 部院類에 속한 滿本堂(*manju wesimbure bithei ba*)<漢09:31b>, 漢本堂(*nikan wesimbure bithei ba*)<漢09:32a>, 蒙古堂(*monggo bithei ba*)<漢09:32a>은 『增』의 배열 순서가 『漢』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문헌에서, 표제항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예들을 대상으로 『漢』의 어휘 배열 방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9>는 각 언어의 문자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增』과 『漢』에서 각각 배열된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기본적인 순서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滿, 蒙, 漢의 순서를 漢, 滿, 蒙의 순서로 바꾼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나타난 위치 변화는 표제어들 간에 시각적인 형태로는 표시하지 않았던 위계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표 9>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文學部 書類 第8)

『增』		『漢』	
manju hergen	淸字	nikan hergen	漢字
tulergi hergen	外字	fukjingga hergen	篆字
gargata hergen	單字	sidengge hergen	隷書
holboho hergen	連字	manju hergen	淸字
ešeme acabuha hergen	切音字	tulergi hergen	外字
monggo hergen	蒙古字	gargata hergen	單字
nikan hergen	漢字	holboho hergen	連字
fukjingga hergen	篆字	ešeme acabuha hergen	切音字
ilan acangga hergen	三合字	monggo hergen	蒙古字
ginggulere hergen	楷書	ilan acangga hergen	三合字
gidara hergen	行書	ginggulere hergen	楷書
lasihire hergen	草字	gidara hergen	行書
sidengge hergen	隷書	lasihire hergen	草字

<표 9>의 단어들이 단순히 나열된 모습만으로는 각 표제어들의 관계와 위치가 바뀐 양상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위치 변화 정보를

반영하여 다음 표의 형태로 표제어들 간의 관계를 재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文學部 書類 第8) 재배열

『增』		『漢』	
manju hergen	清字	nikan hergen	漢字
tulergi hergen	外字	fukjingga hergen	篆字
gargata hergen	單字	sidengge hergen	隷書
holboho hergen	連字	manju hergen	清字
ešeme acabuha hergen	切音字	tulergi hergen	外字
monggo hergen	蒙古字	gargata hergen	單字
nikan hergen	漢字	holboho hergen	連字
fukjingga hergen	篆字	ešeme acabuha hergen	切音字
ilan acangga hergen	三合字	monggo hergen	蒙古字
ginggulere hergen	楷書	ilan acangga hergen	三合字
gidara hergen	行書	ginggulere hergen	楷書
lasihire hergen	草字	gidara hergen	行書
sidengge hergen	隷書	lasihire hergen	草字

재편집한 <표 10>에서는 표제어들 간의 위계 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비언어적인 이유로 '漢字'를 가장 앞세워 배치함과 동시에, '漢字'와 '清字'의 하위 범주에 속한 어휘들도 대대적인 위치 변동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增』에서 파악되는 어휘들의 위계 관계는 『漢』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漢』의 편집자들은 『增』의 표제어들이 모두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속성에 따라

위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둘째로는 그 위계 관계의 양상이나 중요도를 『增』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2]

『增』에서는 '만주 글자', '몽고 글자', '한자'를 중심으로 관련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면, 『漢』에서는 이를 더 세분하여 위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三合字'는 만주어나 몽골어 어휘의 음가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세 글자를 모아 한 음절을 만든 특수한 글자로서, 『漢』의 편찬자들은 이를 '漢字'로 보지 않은 것이다. 또한 '篆字'와 '隷書'는 '漢字'에 속한 단어로 보았지만, '楷書, 行書, 草字'는 서체의 일종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人部 問答類 第2)

『增』			『漢』	
jasigan	寄的信物		jasigan	寄的信物
jasimbi	寄信物	삭제됨	bithe	書札
anggai jasimbi	寄口信		anggai jasimbi	寄口信
jasibumbi	使寄信	삭제됨	bithelembi	寄字
jasiha	已寄信	삭제됨		
bithe	書札			
bithelembi	寄字			

<표 11>이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增』의 표제항의 위계 관계는 『漢』에서 재분류된다. 『增』은 명사 부류를 먼저 제시하고 동사 부류를 나중에 제시하는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단어의 파생형이나 연어가 잇달아 나열됨으로써 의미상 더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순서

32 좀 더 확대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漢』의 관점에서는, '漢'을 '만주'나 '몽골'에 대등한 개념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로 구성된다.

『漢』은 『增』의 분류 체계와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표제어들의 관계는 『增』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이처럼 표제어의 순서를 변형한 일부의 예들은, 표제어들이 삭제되면서 남겨진 단어들을 전체적인 어휘 배열 규칙에 따라 재배열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즉 <표 11>의 예에서는, 남은 *jasigan*과 *bithe*의 유의어 관계를 더 밀접하게 보고, 관련 동사들을 후위로 돌렸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人部 羞愧類)

『增』			『漢』		
girucun	羞恥		girucun	羞耻	
girutu	有羞恥		girutu	有羞耻	
cikiršambi	婦女面靦		hishūn	肯害羞	上同
girumbi	羞		cikiršambi	婦女面靦	
girubumbi	羞辱	삭제됨	girumbi	羞	
gicuke	可羞	삭제됨			
giruha	羞了	삭제됨			
hishūn	肯害羞				

어휘의 유의어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문헌의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결부되어 표제어들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하며 이것이 순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표 12>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增』의 배열은 *ciciršambi*에서부터 *giruha*까지의 동사들을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인 *girutu*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하위 범주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漢』에서는 *girutu*와 *hishūn*의 유의어 관계가 더 중시되는데, 『漢』에서의 이러한 관계 설정은 '上同'이라는 도구 언어 사용을 통해 新註와 詮

釋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漢』에서는 '上同'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 유의어 관계의 명사가 우선 배치되고, 관련 동사들이 나중에 배열되는 순서를 갖게 된다.

<표 13> 표제어 위치 변화의 예 (武功部 步射類 第1)

『增』			『漢』		
gabtan	射	부가 수록	gabtambi	射箭	射 gabtan
icitai	右手射		icitai	右手射	
hasutai	左手射		hasutai	左手射	
gabtambi	射箭				
gabtabumbi	使射箭	삭제됨			
gabtanambi	去射	삭제됨			
gabtanjimbi	來射	삭제됨			
gabtandumbi	一齊射	삭제됨			
gabtanumbi	漢語同上	삭제됨			

『漢』에서 명사류를 먼저 배치하고 동사류를 나중에 배치하는 배열 방식은 <표 13>과 같은 경우 일관성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增』에서는 *gabtan*을 가장 기본 개념어로 놓고, 하위 범주의 명사들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gabtan*의 관련 동사들을 배열했다. 그리고『漢』에서는 이 동사들 중 *gabtambi*만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다른 동사들은 모두 삭제했으며, *gabtan*의 하위 범주로 보이던 명사들을 그 뒤에 나열했다.『增』에서 기본 개념어로 여겨지던 *gabtan*은『漢』에서는 *gabtambi*의 표제항 내에 부가 어휘로 수록된다.

명사들과 동사들의 배열순서가 다른 항목들에서 나타나던 순서와 달라지는 것은,『漢』의 표제어 배열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품사, 즉 어휘의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의미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gabtambi*는 동사이지만, *gabtan*이 표제어의 지위를 잃는 순간 남은 단어들의 의미 계열에서 가장 상위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위치를 옮긴 단어는 30여 곳에서 더 나타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33] 이를 단순한 오류로 여기지 않는다면, 만주어 어휘들의 의미 관계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제어들의 위치 변화의 범위가 동일 부류 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예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배열 순서에 변화를 보이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동일 부류 내, 그것도 대개는 인근 단어들 속에서 이전 위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단 한 예에 불과하긴 하지만, *dergi asari*(東閣)와 같은 경우는 『增』에서는 補編에 수록되어 있던 단어가 『漢』에서는 正編으로 옮겨 온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漢』의 편찬자들이 단순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제어 선정과 배열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3.2.3. 표제어형의 차이

『漢淸文鑑』에는 18세기의 한어, 한국어, 만주어가 반영되어 있다. 『漢淸文鑑』의 한어와 만주어는 『增』의 어휘를 옮겨온 것이지만 『增』의 어형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가 일부 나타난다. 이러한 불일치의 일차적인

---

33 예를 들어, 『增』의 *miyoocan i cooha*(鳥鎗兵)와 *poo i cooha*(礮手)가 『漢』에서 그 순서를 바꾼 것은, 큰 규모의 것을 먼저 배치하고 작은 규모의 것을 나중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더라도, *ayoo, ajaja*와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순서를 바꾸어 수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요인으로는 저본으로 한 판본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漢』 편찬자들의 의도적인 변개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불일치가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는 『增』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시 『漢』의 제작자들이 더 선호하는 어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漢』 측의 오류일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增』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漢』이 저본으로 삼은 『增』의 판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增』과 『漢』의 언어를 대조하는 작업은 판본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정된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增』의 판본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또한 『增』의 언어와 『漢』의 언어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과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3.2.3.1. 한어

한어를 대상으로 했을 때 『增』과 『漢』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동일한 만주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한어 대역어가 다른 경우와, 『漢』에서 수록하지 않았거나 一云으로 수록한 단어의 한어 대역어를 표제어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한어 표제어가 만문 전석과 함께 사용될 때 어형이 변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어의 음가에 관해서는, 『漢』의 한어 전사 표기가 『增』의 만문 전사형을 기저로 하고 있지만 만주어 전사법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增』 음성형과 『漢』의 음성형을 단순 대응시킬 수 없다. 이 부분은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우선 동일한 만주어 표제어에 대해 『增』과 『漢』이 다른 한어 대역어를 사용한 경우로는 16개 어휘를 찾을 수 있다. 예는 만주어 표제어에 해당

하는『增』과『漢』의 한어만을 대조하여 제시하겠다.

(28) 한어 표제어형이 다른 예

만주어 표제어	『增』 한어	『漢』 한어
biya arganaha	月牙 <01:05a>	月芽 <01:03b>
aniya inenggi	元旦 <02:13b>	元朝 <01:25a>
gerembumbi	達旦 <02:19a>	達朝 <01:27b>
lamun funggala orhoda gurure		
	藍翎侍衛 <04:14a>	籃翎侍衛 <02:30b>
temgetu bithe	參票<05:18b>	蔘票 <02:58b>
juru	耦<07:27b>	偶 <04:07b>
ceceršembi	拉硬弓費力貌<08:35b>	拉硬弓費力 <04:44a>
tuwara niyalma	算命人 <10:10a>	籌命人 <05:34a>
alhūwa buriha	醫矇<16:39b>	翳矇 <08:15b>
sibša	價很落<22:09a>	價很落了 <10:16a>
yatarakū	火燂<23:07a>	火鐮 <10:50b>
jalgasu moo	椿樹<29:17b>	春樹 <13:19a>
wahūn jalgasu moo	臭椿樹<29:18a>	臭春樹 <13:19b>
yentu	窩翅<30:38b>	窩翎 <13:60b>
bukūn[34]	麤[35]羊<31:11b>	獶羊 <14:06a>
šosin	剪刀丁<32:18a>	剪刀釘 <14:38a>

(28)의 예들이 의도적인 수정인지『漢』의 오류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元旦과 達旦의 旦가 朝로 바뀐 것은 피휘로 인한 것이다.[36] 그리고 *ceceršembi*의 경우는 '貌'자를 생략함으로써 한어 표제어의 메타언어적인 성격을 중화시켰다. 이런 식의 변개는 주로 상징어의 한어 대역어를『漢

34 *bukūn*은 음성자 *k*가 *ū*와 결합하는 특이한 어형 중 하나이다.

35 이 글자는 현재의 입력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글꼴을 이체자로 보이는 자형으로 바꾸어 입력한 것이다. 원문의 글자는 麤이다.

36 조선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면서 이름을 旦으로 바꾸었고, 이후 조선에서는 旦자는 朝로 고치거나 朝자로 읽게 되었다. 김주원(2002:131-135)

』에서 표제어로 두지 않고 전석으로 옮겨 수록한 경우와 유사하다. 고동호(2014:8-9)에서는 한어 대역어를 전석으로 옮겨 수록한 어휘들의 분포를 권별로 보여주었으며 모두 307개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만주어 표제어가 의성의태어이거나 문법 형태소인 경우이다. 아래에 해당 예의 일부를 든다.

(29) 한어 대역어를 전석과 같은 단에 수록한 경우

표제어	『增』한어 대역어	『漢』전석내 한어 풀이
kaka kiki	衆人嘻笑 <13:22b>	衆人嘻笑聲 <06:59b>
tur tar	唬的心跳 <13:58b>	唬的心跳貌貌 <07:08a>
tar sehe	心驚 <13:60b>	心驚貌貌 <07:09a>
feser seme	驚唬心動 <13:60b>	驚唬心動貌貌 <07:09a>
šuwar	猛拔刀聲 <14:16a>	拔釗聲 <07:19a>
sar sir	葉落聲 <14:22b>	落葉聲 <07:22a>
kubsuhun	厭人倒臥樣 <15:13b>	厭人倒臥詞 <07:39b>
dur dar seme	震動象 <15:26a>	震動貌 <07:46a>
ek šembi	厭憎<15:37a>	厭憎狀 <07:49b>
kanggūr	冒犯<15:41a>	冒犯貌<07:51a>
yoyo	笑人無能 <15:43a>	笑人無能之語<07:52a>
mo	扒眼笑人 <15:43b>	扒眼笑人之語<07:52a>
baliya	笑人不能事<15:43b>	笑人不能事之語<07:52a>
mur mar seme	執繆<18:18b>	執繆貌<08:51a>
ajaja	驚訝<18:36a>	驚訝聲<08:60a>
nofi	算計人數的口氣<18:44b>	計人數的口氣<08:67b>
kai	業已完口氣<18:45a>	已完口氣<08:67b>

『漢』에서는 삭제된 표제어의 한어 대역어를 대신 수록한 경우도 있다.

(30) 삭제한 표제어의 한어 대역어를 한어 표제어로 사용한 경우

만주어 표제어	『增』 한어	『漢』 한어	해당 삭제 어휘
šorgibuha	被水冲涮了 <02:45a>	被水冲涮<01:46b>	šorgibumbi
jokjambi	着實責打<05:54b>	着實打<03:11a>	jokja
isebumbi	使懲戒<05:55b>	懲戒<03:11a>	isebu
henggenembi	婦女蓬頭垢面<18:11b>	頭瞼腌臜<08:46b>	henggenehebi
nikebumbi	使靠着<21:19a>	靠着<09:78b>	nikembi
saksalibumbi	支架著<22:06b>	支架<10:15a>	saksahūn
eberembumbi	使減去<25:38b>	減去<11:50a>	eberembu
tanggiyambi	重罩漆油<26:35b>	重漆油<12:14b>	tanggiya

이 예 중 *isebumbi*는 한어 대역어뿐만 아니라 만문 전석 역시 *isebu*의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

『增』과 차이가 있는 한어 표제어는 一云으로 수록된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wecen*은 『增』의 한어는 '祭'이지만, 『漢』 표제어는 '祭祀'이다. 그리고 『漢』의 *wecen*은 一云으로 *jukten*(祀)을 수록하고 있다. 이 경우는 一云 어휘의 한어를 『漢』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합쳐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들은 해당 단어의 한어 표제어가 一云 어휘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된 경우이다.

(31) 一云 어휘의 한어 대역어를 한어 표제어로 사용한 경우

만주어 표제어	『增』 대역어	『漢』 한어 표제어	一云 어휘
helnembi	去邀請<06:27b>	去請<03:32b>	solinambi
henjimbi	來邀請<06:27b>	來請<03:32b>	solinjimbi
sosambi	搶擄<08:28a>	搶擄人口<04:39b>	oljilambi
porponohobi	胖笨<11:12b>	膘腫<06:07a>	pongtonohobi
jompi	提<14:05a>	提起<07:11a>	jongko
šakalambi	插話 <14:07a>	横插話<07:12b>	heturembi
baktambi	容得<25:27b>	容得下<11:47a>	yondombi, yumbi

『漢』의 한자음 전사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한자가 만문 전석 내 포함되는 경우 그 단어의 전사법은 한자음 전사법을 따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려 한다.

(32) 만문 전석 내 포함된 한자음의 전사

<增 07:26a> ashabuha gisun 繫辭 / jijuha jijun i fejile sindaha wen wang, jeo gung ni giyangnaha gisun be, ashabuha gisun sembi. [文學部 書類 第四]

<漢 04:06a> 繫辭 / 文王周公所繫之辭 / ashabuha gisun / jijuha jijun i fejile sindaha un wang jeu gung ni giyangnaha gisun [文學部 書類 四則]

(32)의 두 만문 전석은 풀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음의 전사가 달리 나타난다. 동일한 만주자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한자인 경우 『漢』은 이를 한자음 전사 표기 방식을 따라 전사하였다.

이 절에서 살펴본 『增』과 『漢』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한어 표제어에 대해서는 필자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다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漢』에서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은 어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상을 밝혀 놓았을 뿐이다. 『漢』과 차이를 보이는 『增』의 한어형은 필자가 확인한 『增』의 이본들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3.2. 만주어

만주어 표제어형은 두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표제항의 3단에 배치되어 있는 만주어 표제어이며, 다른 하나는 표제항내 一云이나 소표제어 형태로 수록된 어휘이다. 『漢』에서는 표제항 내에 수록되어 있지만 저본인 『增』에서는 본래 표제어였으므로, 표제어형의 변화 양상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3단의 표제어는 만문 어형과 한글 전사형이 함께 있기 때문에『漢』의 판각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나 판목의 마모로 인한 어형 변화의 가능성을 판별하기 쉽다. 그러나 표제항 내 一云이나 소표제어로 수록된 단어는 한글 전사형만 있기 때문에,『增』과『漢』의 어형이 차이를 보이더라도 이것이 문헌 간에 나타나는 차이인지, 아니면 오류나 마모로 인한 것인지 확언이 어렵다.

한어 표제어가『增』의 이본들 간에는 차이가 없는,『增』과『漢』의 문헌 사이의 차이를 보였다면, 만주어 표제어에서 발견된 차이들은 이본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음운이나 표기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漢』이나『增』, 혹은『增』이본들 속에 존재하는 오류의 일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어형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다 판각상의 오류나 판목에서의 소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본과『漢』사이의 만주어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增』과『漢』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의 한계를 전제하고 해당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37]

우선 모음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들도록 한다.

(33) 모음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한어 표제어	『增』만주어 표제어	『漢』만주어 표제어
(a) 山峯微懸處	enggeleshun＜02:33b＞	enggeleshūn＜01:38a＞
(b) 水面青綿	niyokso＜02:43b＞	niokso＜01:45b＞

표제어 중에서는 모음 표기에 차이가 있는 예가 둘밖에 보이지 않는

37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무시하였다.『漢』에서는 단어를 띄어야 하는 경우 오른쪽 점을 찍어 표시한다. 그러나 판목에서 점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점이 없는 어형은 논의에서 제했다. 또한 조사와의 결합형의 경우 띄어쓰기는 수의적이므로 이러한 예는 유의미한 차이로 보지 않았다.

다. 예가 극히 적기는 하지만 이 두 예는 만주어 음운사 및 조선의 만주어 모음 인식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33a)의 *enggeleshūn*의 어형은 『御』와 『增』을 통틀어 『漢』에서만 나타난다. 『增』의 판본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漢』의 저본에 의한 어형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인들이 만주어의 *ū* 음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ū*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는 주로 선행 자음에 따라 구별 표지를 통해 *u*와 구분하지만, '우'로만 표기되는 것은 아니며, 단어에 따라 '워, 오'로 표기되기도 한다[38]. *u*와 *ū*의 혼란은 만문 전석에서도 발견되는데, 『增』의 *gūlmahūn*이 『漢』에서는 *gulmahūn*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39]

(33b)는 이중모음에 대한 만주문 표기법과 관련이 있다. 만주문은 형태소 내부의 이중모음 중에서 선행모음이 *i*일 경우에는 반모음 *y*가, *u*나 *ū*일 경우에는 *w*가 모음 사이에 삽입된다.[40] 그러나 *i*와 *o*의 연쇄에서는 *y*가 단어에 따라 수의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niohon*(무지개)은 *niyohon*으로 표기되는 일은 없다.

『漢』에서 *niokso*는 두 번 수록되는데, 예로 든 '水面靑綿, 믈에 잇기 <漢 01:45b>'와 '水上綿苔, 믈에 잇기 <漢 13:13a>'이다. 수록된 위치는 다르지만 이 둘은 동일한 단어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어는 『增』에서는 서로 다른 어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자는 예와 같이 *niyokso*의 형태이지만, 후자는 『漢』과 동일하게 *niokso*(水上綿苔 <增 29:09a>)로 표기되어 있다. 『增』의 표기 차이는 『御』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41] 이는 『御』와 『增』을 거치며 만주문의 철자가 정비되고 규범화되지만, 모든 어휘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42]

---

38 *ūren*, *ūlet*, *ūren*, *saiyūn*의 *ū*는 '워'로 표기되며, *sūna*의 *ū*는 '오'로 표기되었다. 성백인(1984:40)에 따르면 어두의 *ū*는 '워'로 전사되지만, *ūren*의 경우, 『同文類解』나 『廣彙全書』에서는 *eoren*으로 나타나며 『御』에서 *ūren*이 된다.

39 *giyahūn maktambi*, 放鷹, 매 놋타, <增09:11a>, <漢04:55b>

40 이를 *ešeme acabuha hergen*(빗겨 붙인 글자)이라 한다.

41 『同文類解』에서도 이 어형은 *niyokso*로 나타난다.

42 성백인(1984:46)에서는 *niyokso*가 『大淸全書』와 『滿漢同文全書』에서는 *niyeksu*로 표기되었

(34) 어말 *n*

한어 표제어	『增』 만주어 표제어	『漢』 만주어 표제어
妾	asihan sargan＜10:15a＞	asiha sargan＜05:37b＞
少	asihan＜10:24b＞	asiha＜05:44b＞

표제어에서 단어의 어말 *n*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asihan*~*asiha*에서만 보이지만, 만문 전석으로 확대하면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43] 또한 만주어의 어말 *n*이 탈락하는 현상은, 무권점 만문에서부터 만주어 구어와 시버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고되는 것으로, 표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발화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성백인(1978:121)에서는 치조음 계열의 자음 앞과 어말에서 *n*이 탈락하거나 보존되는 현상은, 초기 만주어 문어 형성에 관계된 만주어 방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恩和巴图(1995:26)에서는 구어 만주어에서 어말 *n*이 탈락하는 현상을 단어의 예와 함께 기술하였으며, 고동호(2004:19)에서는 시버어의 어말 비음이 약화되어 선행모음을 비모음으로 바꾸고 탈락하거나 아무런 흔적 없이 탈락하는 현상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만주어의 발화시에 선행모음을 비모음화시키며 탈락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漢』에서 *n*을 생략한 것은 『漢』의 구어 중심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역원 청학서 중 하나인 『淸語

다는 사실과 함께, 청초기 만주어에서는 *io*~*iyo* 사이의 표기 유동이 있다는 Hauer의 보고를 함께 제시하였다.

43 『增』의 어말 *n*이 『漢』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weilen*<增 05:06b>, *šuruhan*<增 07:11a>, *sulakan*<增 13:14b>, *ashan*<增 14:29a>, *imeten*<增 22:39a>, *katahan*<增 27:24b> 등은 『增』의 전석에서는 어말 n이 나타나지만 『漢』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휘들이다. 반면 *marga*<增 14:25b>, *naha*<增 16:27a>, *were*<增 22:23b>, *judura*<增 32:38b> 등은 『增』에서는 없던 어말 *n*이 『漢』에서는 표기된다. 그리고 『增』은 어말 *n*을 변별하기 힘들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어말 n의 정확한 표기나 발음이 의미 변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老乞大』에서도 *mingga*<03:12a> (cf. *minggan*)와 같은 어형이 나타난다.[44]

(34)의 예에서는 또한 만주어의 *h*~g의 혼란이 드러나기도 한다. 『增』의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asihan sargan*은 서울대본과 오오키본에서 동일한 어형으로 수록되지만, 사고전서 초본에서는 표제어형이 다르다. 사고전서 초본의 표제어형은 *asigan sargan*<10:32a>으로 *h*가 *g*로 기술되어 있지만, 해당 표제항의 전석에서는 *asihan sargan*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동일 문헌 내에서의 *h*~*g* 혼용을 보여준다.[45]

h 음의 혼란은 『增』과 『漢』의 표제어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문 전석에서는 드물지 않게 보인다.[46] *h*는 *g*뿐만 아니라 *k*와도 교체된다.

(35) 전석내 *h*~*g* 혼란

만주어 표제어	『增』	『漢』
genggiyen abka	bolgo<01:02b>	bolho<01:01a>
yeru	dorhon<02:36b>	dorgon<01:40b>
soriha sirdan	hiyaganjame<08:21a>	hiyahanjame<04:36b>
bušuhūn	burhiyan<18:15b>[47]	burgiyen<08:48b>
cendeku sihan	hašagan<22:14b>	hašahan<10:20a>
hiyalhūwari	giyalhūwa<23:05b>[48]	hiyalhūwa<10:49b>

44 성백인(1984:27)에서는, 『三譯總解』에 나타나는 *towa*, *labdo*, *gelgun akū*, *targū* (각각의 규범형은 *tuwa*, *labdu*, *gelhun akū*, *tarhūn*이다)와 같은 표기는 주로 순치 이전(17세기 이전)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淸語老乞大』의 경우는 만문자획을 비롯하여 우리말 번역과 한글 표음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은 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淸語老乞大』에 규범형과는 다른 어형이 없지 않으며, 이는 『增』이나 『漢』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기법의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고, 발음상의 혼란이나 변화가 일부 철자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45 『淸文啓蒙』의 異施淸字 발음 설명 중에서는 어중과 어말에서 *g*를 *h*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淸文啓蒙』의 설명은 *g*에서 *h*로 발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성백인(1976:91-92)에서의 설명처럼 이는 舊滿洲檔 이후 만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g*와 *h*의 표기 혼란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표기에서만의 혼란이 아니라 실제 발음상에서의 유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46 『淸語老乞大』에서는 *boigoji*가 *boihoji*로만 나타난다.

47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은 *burgiyen*이다.

48 사고전서 초본은 *hiyalhūwa*이다.

sirakū	sigaha＜24:40a＞	sihaha＜11:23b＞
fusurjehe	dogo＜25:57a＞[49]	doho＜11:58b＞
barambi	šasigan＜27:43a＞	šasihan＜12:51b＞
teksin	unagan＜29:22b＞	unahan＜13:23a＞
cakūran	hiyapiname＜29:24b＞	giyapiname＜13:24b＞
fiyegu moo	wasigašame＜29:25a＞[50]	wasihašame＜13:24b＞

(36) 전석 내 *h*~*k* 혼란

만주어 표제어	『增』	『漢』
horon	algihangge＜05:04a＞[51]	algikangge＜02:50b＞
dabali	hetuke＜14:41b＞	hetuhe＜07:30a＞
jumara	lukuken＜31:15b＞	luhuken＜14:09a＞

*h*가 *g*와 *k* 모두와 혼동된다는 것은 연구개음과 마찰음 사이의 혼란이기도 하지만, 연구개 파열음 내 즉 *g*와 *k* 사이에도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상된 대로 『增』과 『漢』은 *g*와 *k* 사이의 혼란을 보여주며, 이러한 유무기음의 혼란은 연구개 파열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치조 파열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순파열음에서는 유무기 사이의 혼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52]

(37) 표제어에서 나타나는 유무기 파열음 혼란

한어 표제어	『增』 만주어 표제어	『漢』 만주어 표제어

49 사고전서 초본은 *doho*이다.

50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은 *wasihašame*이다.

51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에서는 *algikangge*로 나타난다.

52 이것이 음운 차원의 현상인지, 음성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표기 혼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문 표기상 *g*~*k*~*h*는 점과 권으로 구별되며, *d*~*t* 역시 점으로만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판목의 마모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漢』에서는 한글로 발음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표기 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양순파열음 *b*~ *p* 사이에 혼란이 없는 이유가, 이 두 문자는 점과 권으로 구별되지 않고 문자형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어미 -*fi*가 어휘에 따라 -*pi*라는 이형태를 갖는 것도 파열음 계열의 표기 혼란이 음운론적 현상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舉要告訴	tonggime＜12:17b＞	tongkime＜06:37b＞
不時來往	jodombi＜15:09a＞	jotombi＜07:37b＞
忍了	jengke＜18:06b＞	jengge＜08:43b＞
侶鳳逑	ekidun cecike＜30:33b＞	ekitun cecike＜13:59a＞

(37)의 예들은, 『增』의 유기 파열음이 『漢』에서는 무기 파열음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增』의 무기 파열음이 유기 파열음으로 기술된 예이다. 이 역시 표제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38) 전석내 유무기 파열음 혼란

만주어 표제어	『增』	『漢』
conggiri	conggibume＜07:13a＞[53]	congkibume＜03:53a＞
tuwabun	tonggime＜07:24a＞	tongkime＜04:05a＞
šeyelhen	asigan＜30:06a＞	asikan＜13:48a＞
hūngsi	asigan＜30:06b＞[54]	asikan＜13:48b＞
niyo ilha	dalga＜補 03:28b＞[55]	talga＜15:31a＞

『增』과 『漢』 사이에 보이는 유무기 파열음 혼란의 양상은, 높은 비율로 『增』의 무기음이 『漢』에서 유기음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단 거론할 수 있는 예시가 많지 않고, 다른 청학서인 『三譯總解』의 경우 *sokdotolo*＜07:05b＞(cf. *soktotolo*)와 같이 유기음이 무기음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增』과 『漢』 사이에는 *l*~*r*의 혼란도 나타난다. 이 현상은 성백인(1984:81)에서 『同文類解』의 오각이거나 편자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라고 설명했던 *elde*＜01:04b＞(cf. *erde*)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3 오오키본에서는 *congkibume*이다.
54 오오키본은 *asikan*이다.
55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은 *talga*이다.

(39) 표제어에서 나타나는 *l*~*r* 혼란

한어 표제어	『增』만주어 표제어	『漢』만주어 표제어
饑熱發暈	niyalhūnjambi＜15:12a＞	niyarhūnjambi＜07:39a＞

*l*과 *r*의 혼란을 보이는 경우는 표제어 중에서는 1건이 나타나지만, 만문 전석 내에서는 더 많은 수를 찾을 수 있다.

(40) 전석내 *l*~*r* 혼란

만주어 표제어	『增』	『漢』
boljon	calgibume＜02:43a＞	cargibume＜01:45a＞
genggiyen ejen	eldefi＜03:03a＞	erdefi＜02:01b＞
tuwakū	hargašarangge＜05:05b＞	halgašarangge＜02:51a＞
fekucembi	urgun＜14:41a＞	ulgūn＜07:29b＞
buthašara be kadalara fiyenten	urebume＜20:39a＞	ulebume＜09:49b＞
cahara	bergeleme＜25:11b＞	belgeleme＜11:36a＞
teku undehen	joorire＜26:50b＞	joolire＜12:21b＞
halmun	muheren＜26:58a＞	muhelen＜12:26a＞
belge	šurga＜28:45a＞	šulga＜13:08a＞
wašakda burga	ferge＜29:22b＞	felge＜13:22b＞

그러나 *l*~*r*의 혼란은 조선인에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성백인(1978:123)에서는 *r*과 *l* 표기의 특이한 예로, *ilanggeri* ↔ *ILANGGELI* ; *juwanggeri* ↔ *JUWANGGELI*, *JUWANGGERI* ; *dagilambi* ↔ *DAGIRAMBI* ; *dagilafi* ↔ *DAGILABI*, *DAGIRABI* ; *julergi* ↔ *JURLEGI*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는 무권점 만문 시기에서부터 나타나는 혼란일 수 있다. 또한 성백인(1990:58-59)에서는 초기 사전에서 *r*과 *l*이 혼동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하면서, *r* 표기의 혼란이 음운 현상의 반영이었

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유무기 파열음에서『增』이본들 사이에도 표기 혼란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l*~*r*에 대해서는『增』이본들 내에서 표기혼란이 나타나지 않는다.

『增』과『漢』사이에 일부 철자의 차이가 아닌 표제어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41) 표제어의 차이

한어 표제어	『增』만주어 표제어	『漢』만주어 표제어
淡黑	sahahūkan＜23:31b＞	sahahūn＜10:65b＞

*sahahūkan*은『增』과『漢』에 모두 두 번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增』의 어형이 오류인 경우이다. 이 사실은『增』의 전석과 이본을 확인하면 더욱 분명하다. 우선 서울대본과『漢』의 해당 표제항을 비교해 보면,『增』표제항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42) *sahahūkan*『增』서울대본

(a) ＜增 23:31b＞ sahahūkan 淡黑 / gelfiyeken sahaliyan boco be, sahahūn sembi, geli farhūn babe inu sahahūn sembi. (옅은 검은색을 sahahūn이라 한다. 또 어두운 곳을 또한 sahahūn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b) ＜增 23:31b＞ sahahūkan 墨色 / majige sahahūn be, sahahūn boco sembi. (다소 거무스름한 것을 거무스름한 색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43) *sahahūkan*『漢』

(a) ＜漢 10:65b＞ 淡黑 / —— / sahahūn / gelfiyeken sahaliyan boco ○ geli farhūn ba (옅은 검은 색 ○ 또 어두운 곳)[布帛部 采色類 二則]

(b) ＜漢 10:65b＞ 墨色 / —— / sahahūkan / majige sahahūn (다소 거무스름하다) [布帛部 采色類 二則]

(42a)의 *sahahūkan*은 전석에서는 *sahahūn*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일한 항목이 『漢』에서는 *sahahūn*이며 전석의 내용 역시 *sahahūn*에 해당하기 때문에, (42a)의 표제어는 *sahahūn*이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42b)의 전석은 동어반복의 오류를 보인다. 즉 서울대본 『增』은 두 표제항 모두 오류가 나타난다.

(44) *sahahūkan* 『增』 오오키본

(a) <增 23:31b> sahahūkan 淡黑 / gelfiyeken sahaliyan boco be, sahahūn sembi, geli farhūn babe inu sahahūn sembi. (옅은 검은색을 sahahūn이라 한다. 또 어두운 곳을 또한 sahahūn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b) <增 23:31b> sahahūkan 墨色 / majige sahahūn be, sahahūkan boco sembi. (다소 거무스름한 것을 sahahūkan 색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45) *sahahūkan* 『增』 사고전서 초본

<增 23:41b> sahahūn 淡黑 / gelfiyeken sahaliyan boco be, sahahūn sembi, geli farhūn babe inu sahahūn sembi. (옅은 검은색을 sahahūn이라 한다. 또 어두운 곳을 또한 sahahūn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增 23:41b> sahahūkan 墨色 / majige sahahūn be, sahahūkan boco sembi. (다소 거무스름한 것을 sahahūkan 색이라 한다.) [布帛部 采色類 第二]

오오키본을 보면, (44a) *sahahūkan*의 오류는 서울대본과 동일하지만, (44b) 전석은 오류 없이 나타난다. 사고전서 초본의 두 표제항은 『漢』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漢』의 一云이나 소표제어로 수록된 어형이 『增』의 표제어와 다른 경우를 확인하기로 한다.

(46) 一云/소표제어 수록 어휘의 차이

『增』만주어표제어	『漢』 一云/소표제어 (『漢』수록 표제어)
(a) falanggū faifan＜07:07b＞	falanggū faidan＜03:49a＞ (falanggū forimbi 鼓掌)
(b) toksaka＜16:08a＞	tuksaka＜07:56b＞ (lehele 野種)
(c) ebdereku＜18:06b＞	ebderekū＜08:43b＞ (ebderen 賊害)
(d) toksorome＜19:33a＞	下屯去 toksolome＜09:22b＞ (tokso 莊屯)
(e) amba garma＜32:54a＞	amba galman＜14:53a＞ (hongkolo galman 大黃蚊子)

『漢』에서 기술된 어휘형이 오류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본다면, 一云이나 소표제어로 수록된 어휘에서 보이는 양상도, 표제어나 전석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일치한다. 다만, (46a)에서와 같이 *faifan*이 *faidan*의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漢』의 오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增』과 『漢』에서 어형과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예들을 검토한 결과, 『增』과 『漢』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은 『增』의 판본들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漢』이나 『增』의 일방적인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많은 경우가 무권점 만문에서부터 초기 만주어 문헌과 구어형에서 혼란을 보이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漢』이 저본에 충실하다는 가정 하에 어형 차이를 살핀다면, 판본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增』의 서울대본이나 오오키본, 사고전서 초본이 모두 정확한 저본이 아닐 것이다. 저본의 계열은 오오키본으로 대표되는 원각본과 사고전서 초본으로 대표되는 정본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御製增訂淸文鑑』과『漢淸文鑑』의 미시구조

표제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주석을 다는『漢』의 개편 방식은 거시구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시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3장에서 보았듯이 표제어가 다른 부류에서 중복 수록되거나 의미나 기능면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경우, 해당 단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삭제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삭제를 피해 다른 관련어의 표제항 내에 어휘 정보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가 추가된 표제항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미시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漢』은 편찬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조선인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미시구조에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게 된다. 문헌의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대원칙 아래 새로운 내용의 추가는 부피의 부담을 늘이게 되고,『漢』은 표제어 다음으로 전체 문헌의 부피를 좌우하는 뜻풀이 부분을 줄여 부피 절감을 꾀한다.

새로운 주석, 즉 新註의 추가와, 삭제된 표제어 정보의 반영, 전석의 축소 등이『漢』미시구조의 개편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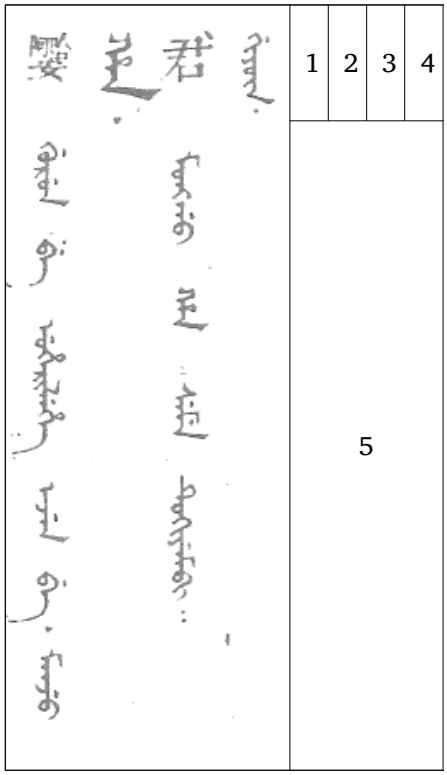
4.1. 미시구조의 유형

4.1.1. 기본 유형

우선『增』과『漢』의 미시구조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增』은 표제항을 구성한 방식이 일관적이며 단순하다. 물론 속입신어에서는 만

문 풀이 부분이 누락된 어휘들이 다수 추가되어 있지만, 적어도 정편과 보편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增』의 미시구조는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며, 상단은 표제어를, 하단에는 만문 전석을 수록하고 있다. 표제어단인 상단은 4열로 구분되며, 만주어 표제어, 한어 대역어를 안쪽에 두 어구의 음성 표기형을 바깥 열에 배치하고 있다.

<표 14> 미시구조 변화



1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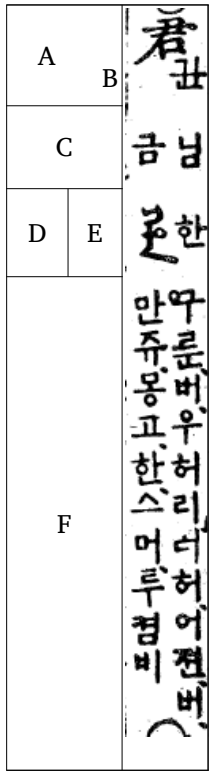
2 → D

3 → A

4 → B

C 추가

5 → F



『增』은 기본적으로 만문 표제어와 한문 대역어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문헌이 좌철이며 만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왼쪽에 놓인 만문 표제어가 한문 대역어보다 주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漢』은 훨씬 더 복잡한 미시구조를 갖는다. 『漢』은 기본적으로 4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의 구조와 미시구조의 유형이 『增』처럼 일관적이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漢』은 『增』의 한문 대역어를 표제어로서 가장 상단에 배치하였다. 한문 문헌이 대개 그러하듯이 우철 제본까지 고려하면 한어를 더 앞세운 사전으로 만들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문 표제어의 각 글자는 하단 우측에 한글로 한자 주음이 표시되었다. 앞서 범례에서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한자의 한글 주음 표기에 관한 것이다. 2단은 新註 부분으로, 예로 든 앞의 표에서처럼 고유 어휘를 대역어로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한문으로 풀이한 경우도 있다. 『增』의 대표 표제어인 만문 표제어는 이 新註 아래 3단에 배치되었다. 만문 표제어의 오른쪽 옆에는 한글로 이 어휘의 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하단인 4단에는 『增』의 만문 풀이부분을 한글로 전자하여 수록하였다. 이 때 원문의 단어 사이의 공백을 『漢』에서는 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 풀이 부분에서 사용된 한글 전사 표기 방식과 만문 표제어 옆에 사용된 전사 표기 방식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漢』의 한어 표제어의 성격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시구조상 항목의 배치 순서가 반드시 비언어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몇 가지 주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청나라보다는 이전의 명나라를 중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만주어보다 한어를 더 높이 여겼겠지만, 그러한 정치적 사고가 만주어 사전을 저본으로 한 『漢淸文鑑』이라는 사전을 편찬하는 데 문헌의 구조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작용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1]

그보다는 언어적인 이유, 즉 의미 기술을 위한 한자의 표의성(연규동 1996:129)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제어인 한어가 학습 대상인 기점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표제항 전체의 의미를 관장하는

---

1 이병근(2000:59-60)에서도 조선 시대의 어휘집들이 한어를 표제어로 삼는 경향을 중국 중심의 사고로 해석했다.

개념어로서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漢淸文鑑』이 의미별 분류 사전으로서, 상위 개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위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면을 볼 때, 표제항 내부의 미시구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구조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접근 편의성을 들 수 있다. 한어를 더 중시한다는 관점을 벗어난다 해도 조선이 역사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조선의 한자에 대한 친화도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표제항을 구분하는 접근구조의 면에서도 익숙한 한자로 된 어휘가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어 어휘를 표제어로 하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에도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때까지 조선에서 간행되어 왔던 사전 편찬의 전통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漢』의 표제항 구성 순서와 표기 방식은 조선에서 이전에 간행했던 『同文類解』 및 다른 유해류 역학서들을 떠올리게 한다. 한어 표제어를 가장 상단에 배치하고 한국어 주석을 달고[2] 이 아래에 만주어 단어를 배치한 순서가 일치하며, 도구 언어를 사용하여 항목을 구분하는 방식 또한 유사하다. 구별부호를 사용하여 만문을 전사한 방식도 대단히 비슷하다. 한어를 표제어로 제시하는 것 역시 편찬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면서도 이전 사전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습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漢』의 독자는, 사역원 역학서에 익숙한 역관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漢』 표제항의 구성에서 『增』과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新註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增』에 있는 것을 변형한 것이라면 新註 부분은 『漢淸文鑑』 편집자들이 직접 작성해 넣은 고유한 것이다. 신주를 작성한 언어는 한국어만이 아니라 文語 중국어인 한문도 포함된다. 한문은 구어 한

2 新註의 '한국어'는 당연히 18세기 조선어이다. 기술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통칭한다. 문자 역시 '훈민정음'이나 '언문' 등 당대 문자명을 구분하지 않고 '한글'로 통칭한다.

어와는 달리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익숙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즉 『漢』은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목표언어를 2개의 언어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3]

『增』의 표제어인 만주어 어휘는 신주 다음 단에 위치해 있다. 한어 표제어와 신주, 그리고 만주어 표제어의 3단 종적 구성은, 얼핏 한어 표제어를 기점언어화하고 한국어 대역어와 만주어 어휘가 목표언어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러나 한어 어휘와 만주어 어휘의 관계는, 저본이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없이, 한어 어휘가 목표언어이며 만주어 어휘가 기점언어인 관계이다. 이러한 문헌을 저본으로 한 『漢』에 와서는, 만주어 어휘가 기점언어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한어 대역어 역시 기점언어의 위치로 바뀐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하나의 기점언어에 목표언어가 둘인 다언어사전이 아니라, 두 개의 기점언어에 목표언어도 둘인 이중구조로 된 사전인 것이다.

또한 1단과 2단이 한어 사전의 역할을 하고, 3단과 4단이 만주어 사전의 역할을 하는 이중 구조이다. 한어 표제어가 개념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상징어 등) 1단과 2단이 함께 생략되고 3단과 4단만이 남는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성백인(1983, 1999:48)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단이 형식상으로는 한어의 풀이 또는 주석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이 풀이 중 상당수가 만문 전석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漢, 滿 표제어에 대한 공통의 풀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 2단은 한어 역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 3, 4단은 만주어 역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어 표제어 단과 만주어 표제어 단 사이에 신주가 배치된 것은, 漢-韓-滿의 언어별 위상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표제어들의 음성과 만문 전석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 사전의 특성상, 한국어 주석과 만주어 전석 간의 문자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피하기

---

[3] 신주에서 나타나는 이중 언어 사전의 대역 방식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위한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1.2. 복합적 유형

앞의 <표 14>에서 제시된 것은『漢淸文鑑』표제항 구성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 표와 비교해 보자.

<표 15>는[4]『漢』에 나타나는 표제항 유형 중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제항과 표제항 사이는 표제어의 글자 크기에 준하는 큰 동그라미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일 단 내에서 정보의 속성이 구별되어 다시 내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행의 글자 크기에 맞는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漢淸文鑑』에서는 저본인『增』에는 나타나지 않는 도구 언어 표기를 통해 용법과 의미가 전환되는 곳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同文類解』에서도 일부 이미 시도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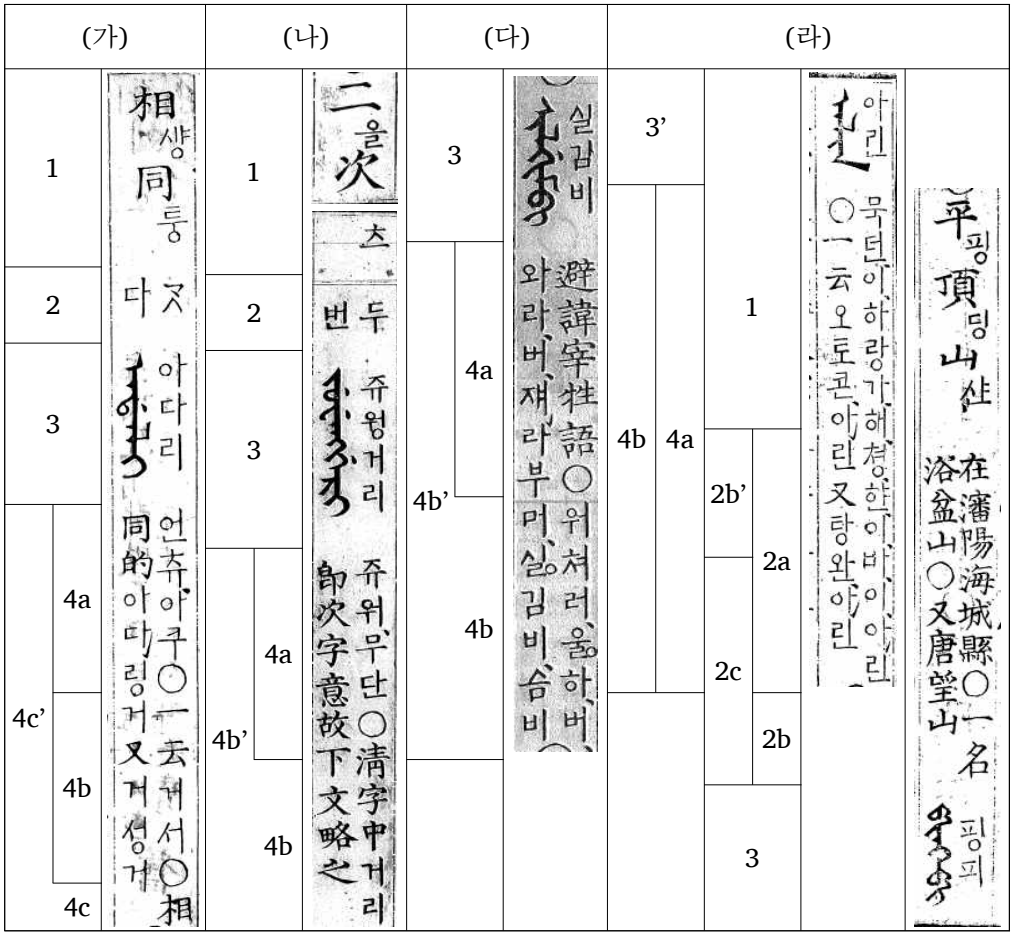
표제항 (가)에서는, 표제어에서 삭제된 *gese*가 *adali* 표제항에 一云 어구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가4b). 또한 *adali*와 *gese*의 파생형이 한어 소표제어 형태로 다시 추가되어 있다(가4c). 추가 정보는 전석이 기재된 4단에 전석 다음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나)의 4b는『增』에는 없었던 문법적 설명을 추가하여 기술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가 설명은 만주어에 대한 문법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형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문 표제어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앞 절에서 확인하였다. (다)는 표제항의 4단 구성 자체에 변형이 있는 경우, 즉 1단과 2단이 삭제된 경우이다. (다)와 같이 일부 단이 통째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3단인 만문 표제어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만문 표제어가 생략된 경우

---

4 표 안의 각 숫자는 단의 번호이다.

는 단 1건이 발견된다.[5] (라)는 2단 新註 부분에 어휘 정보가 추가된 경우이다. 이때 추가된 어형은 한어 표제어에 대응되는 어구이다. 설명식 풀이(라2a)와 구분하기 위해 도구 언어 중 동그라미가 항목을 나누었으며, 이어서 대역 어휘(라2b)와 또 대역 어휘의 동의어 혹은 유의어(라2c)

<표 15> 『漢』 표제항의 여러 형태



5 *gocimbi*(拉胡琴)[樂部 樂類 三則]<漢 03:49a>가 이에 해당한다. 『漢』에서는 3단과 4단을 함께 삭제하고 '淸語上同'이라는 주석을 대신 적고 있다. 즉 이 *gocimbi*는 『漢』에서는 만문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계영(2015:87-88)에서 이 예를 다루며 설명하고 있으나, 만문 표제어도 전석과 함께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놓지는 않았다.

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만주어 표제어에 대한 유의어 정보는 표제항(가)에서처럼 一云 어휘로 추가되었다(라4b).

이와 같은『漢』표제항 구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今西春秋(1958)와 성백인(1998, 1999:27)에서 이미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신주의 유형과 표제항 미시구조의 유형을 구분 없이 다루고 있는 면이 있다.[6] 신주와 표제항의 물리적 유형을 단순화시켜 보면, 대역 방식의 차이는 3단 신주에 반영되며, 만주어 어휘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정보는 4단에 추가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漢』의 미시구조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유형을 갖게 된 이유는, 원서보다 한층 부피를 줄이면서도 원서의 정보를 최대한 담아내려는 상충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당시 조선인 역관들에게 시급했던 구어 한어와 만주어 학습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중적 사전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 역시 사전의 복잡한 구조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漢』미시구조를 복잡하게 한 한 원인인, 표제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어떠한 양상을 갖는지를 살펴보겠다.

4.2. 어휘 관계 정보

표제어로서는 삭제되었으나 어휘 정보는 남겨서 다른 단어의 표제항에 추가하여 수록한 경우로는, 삭제한 단어의 전석을 남겨 반영한 유형과

6 성백인(1998, 1999:27)에서는 신주의 유형 중 대표적인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한글로 된 우리말 對譯, ② 한글로 된 우리말 풀이, ③ 標題漢語와 같다는 뜻으로, 漢語 字數대로 - 와 같이 선을 그은 것, ④ 一部는 ③과 같이 선을 긋고 우리말 풀이를 이어 붙인 것, ⑤ 漢文으로 註釋된 것, ⑥ 漢文으로 된 註釋 끝에 또 '一云' 또는 '一名'이라 하고 漢文註釋을 덧붙인 것, ⑦ 新註가 없는 것(新註가 없는 곳은 淸語註釋이 '上同'이라 되어 있는 곳임), ⑧ 滿洲語가 標題語로 되어 있어 新註가 없는 경우(이러한 項目에는 한글 전자 淸語註釋 앞머리에 御製增訂淸文鑑의 漢語對譯을 옮겨 놓고 있는데, 新註는 없다.) 이 중 ⑤까지는 신주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⑥, ⑦, ⑧은 미시구조의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어를 남겨 추가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단어를 다른 표제항에 추가하여 수록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7]

표제어로서는 삭제되었지만, 다른 표제항에 의미나 기능상에서의 관계로 인해 부가 수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성백인(1983)과 고동호(2014)에서 분류되고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유형과 속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정도로만 정리하고, 주로 이전 연구에서 전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검토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논하기로 한다.

4.2.1. 一云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一云으로 만주어 단어가 추가되며, 문법적 파생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한어 대역어와 함께 소표제어 형태로 추가된다. 또한 의미와 기능에 있어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더라도 삭제된 경우와 삭제되지 않은 경우가 혼재한다.

『漢淸文鑑』의 편집자들이 어휘를 선별할 때, 다른 단어와 동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만 각각 개별 표제어로 수록해야 할 경우와, 다른 표제항에 一云으로 추가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편집자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때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서인 『增』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이다.

(1) 漢語同上 / 漢語亦同上

(a) 漢語同上

---

7 삭제한 단어의 전석을 반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다룬다.

<增 18:05a> fangšambi / 强是爲非 / yaya inu babe waka obume laidara be, fangšambi sembi. (무릇 옳은 것을 틀리게 만들며 우기는 것을 fangšambi라 한다.) [人部 兇惡類 第一]

<增 18:05a> fangnambi / 漢語同上 / uthai fangšambi sere gisun. (즉 fangšambi라는 말) [人部 兇惡類 第一]

<漢 08:43a> 强是爲非 / 억지로 우기다 / fangšambi / yaya inu babe waka obume laidambi (무릇 옳은 것을 틀리게 만들며 우기다) ○一云 fangnambi [人部 兇惡類 一則]

(b) 漢語亦同上

<增 06:43a> bucehe 死 / niyalma ufaraha be, bucehe sembi. (사람이 죽은 것을 bucehe라 한다.) [禮部 喪服類 第一]

<增 06:43a> budehe 漢語同上 / niyalmai bucehe be, inu budehe seme gisurembi. (사람이 죽은 것을 또한 budehe라 말한다.) [禮部 喪服類 第一]

<增 06:43a> endehe 漢語亦同上 / niyalmai budehe be, inu endehe seme gisurembi. (사람이 죽은 것을 또한 endehe라 말한다.) [禮部 喪服類 第一]

<漢 03:42b> 死 / 通稱 죽다 / bucehe / niyalma ufaraha (사람이 죽었다) ○一云 budehe 又 endehe [禮部 喪服類 一則]

『增』은 단어의 의미가 앞의 표제어와 거의 동일할 경우 한어 대역어를 생략하고 '漢語同上'을 표기한다. 그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로 동의어일 경우에는 '漢語亦同上'을 표기한다. 단어의 동의어 관계가 원서의 한어 대역어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增』의 *fangnambi*는 한어 대역어 대신 漢語同上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으며, 『漢』에서는 이 漢語同上인 *fangnambi*를 *fangšambi*의 一云 어휘로 수록하였다. 또한 *bucehe*의 경우는 漢語同上인 *budehe*와 漢語亦同上인 *endehe*가 『漢』에서는 一云 항목에서 '又'로 연결되어 나란히 수록되었

다. 『增』의 전석을 보면, *endehe*는 *budehe*의 동의어로 되어 있지만, *budehe*가 *bucehe*의 一云 어휘가 되었기 때문에 *endehe* 역시 *bucehe*의 一云 어휘로 함께 수록된 것이다.

(2) 漢名同上 / 漢名亦同上

(a) 漢名同上

<增 32:19a> eite 籠頭 / futa i jergi jaka be murime arafi, morin ulha i uju de etuburengge be, eite sembi. (끈 등의 물건을 꼬아 만들어서, 말이나 짐승의 머리에 씌우는 것을 eite라 한다.) [牲畜部 牲畜器用類 第二]

<增 32:19a> longto 漢名同上 / eite be, inu longto sembi. (eite를 또한 longto라 한다.) [牲畜部 牲畜器用類 第二]

<漢 14:38b> 籠頭 / 바구레 / eite / futa i jergi jaka be murime arafi morin ulha i uju de etuburengge (끈 등의 물건을 꼬아 만들어서 말이나 짐승의 머리에 씌우는 것) ○一云 longto [牲畜部 牲畜器用類 二則]

(b) 漢名亦同上

<增 32:48b> heliyen 螳螂 / meifen den, beye golmin, hefeli amba, asha bi, julergi bethe dehe i adali, gūwa umiyaha be jafafi jembi. (목이 높고, 몸이 길고, 배가 크고, 날개가 있다. 앞다리는 갈고리와 비슷하다. 다른 벌레를 잡아서 먹는다.) [蟲部 蟲類 第二]

<增 32:48b> heliyen sebsehe 漢名同上 / heliyen be, inu heliyen sebsehe sembi. (heliyen을 또한 heliyen sebsehe라 한다.) [蟲部 蟲類 第二]

<增 32:48b> heliyen umiyaha 漢名亦同上 / heliyen be, inu heliyen umiyaha sembi. (heliyen을 또한 heliyen umiyaha라 한다.) [蟲部 蟲類 第二]

<漢 14:50b> 螳螂 / 어영가시 / heliyen / meifen den beye golmin hefeli amba asha bi julergi bethe dehe i adali gūwa umiyaha be jafafi jembi (목이 높고 몸이 길고 배가 크고 날개가 있다. 앞 다리는 갈고리와 비슷하다. 다른 벌레를 잡아서 먹는다.) ○一云 heliyen sebsehe 又 heliyen

umiyaha [蟲部 蟲類 二則]

(2)와 같이, 漢語同上이 아니라 漢名同上인 경우도 나타난다. 漢語同上이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를 의미한다면 漢名同上은 그보다 더 긴밀한 의미 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한어 대역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漢名同上도 漢語同上과 같은 방식으로 一云에 추가되었다.

漢名同上을 포함하여 『增』의 漢語同上이 주석으로 표기된 어휘는 모두 554개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어휘들이 『漢』에서 모두 一云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漢』의 一云 수록 어휘 중 漢名同上 및 漢語同上의 주석이 있는 것은 모두 389개이다. 『漢』과 『增』의 一云과 '同上'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의 가로 행은 『增』에서 漢語同上이나 漢名同上으로 주석된 어휘를 구분한 것이며, 세로 열은 그것이 『漢』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즉 『增』에서 '同上' 등으로 처리했던 어휘 중 164개는, 문법적 파생어이거나 특수한 어휘인 경우에 해당하여 표제어에서 삭제되었으며 一云으로도 추가되지 않았다.

<표 16> 漢語同上과 一云의 관계

	漢語同上	漢名同上	합계
一云	370	19	389
삭제	156	8	164
소표제어	1		1
합계	527	27	554

그런데 『漢』의 一云 어휘는 총 763개이다. 그 중 389개는 『增』의 漢

語同上/漢名同上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374개 어휘는 다른 근거로 一云 여부를 판단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성백인(1983, 1999:49)의 언급이 있다. 『漢』 표제어에서 생략되어 一云으로 수록된 어휘는, 『增』 전석에 반드시 그 어구가 어떤 어구와 뜻이 같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3) (a)

<增 02:17a> cimari 明日 / enenggi i sirame inenggi be, cimari sembi. (오늘의 연이은 날을 cimari라 한다.) [時令部 時令類 第六]

<增 02:17b> cimaha 明朝 / cimari be, inu cimaha sembi. (cimari를 또한 cimaha라 한다.) [時令部 時令類 第六]

<增 02:17b> jai inenggi 次日 / uthai cimari sere gisun. (즉 cimari라는 말) [時令部 時令類 第六]

<漢 01:26a> 明日 / 릭일 / cimari / enenggi i sirame inenggi (오늘의 연이은 날) ○一云 cimaha 又 jai inenggi [時令部 時令類 六則]

(b)

<增 07:13b> ihan buren 號筒 / teišun i tūhe fulgiyere ergi narhūn, fejergi meyen muwa, jilgan lurgin ningge be, ihan buren sembi. (주석으로 두드려 만든 부는 쪽은 좁고, 아래의 단은 굵으며, 소리가 둔탁한 것을 ihan buren이라 한다.) [樂部 樂器類 第二]

<增 07:13b> amba buren 大銅角 / ihan buren be, geli amba buren sembi. (ihan buren을 또한 amba buren이라 한다.) [樂部 樂器類 第二]

<漢 03:54a> 號筒 / 쇠 쥬라 ○其形上銳下廣 / ihan buren / teišun i tūhe fulgiyere ergi narhūn fejergi meyen muwa jilgan lurgin ningge (주석으로 두드려 만든 부는 쪽은 좁고 아래의 단은 굵으며 소리가 둔탁한 것) ○一云 amba buren [樂部 樂器類 二則]

(3)의 예문들은 『增』에서 漢語同上과 같은 객관적 표지가 없을 때, 전

석의 구문을 살펴 동의어 관계를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3a)의 경우 *cimari, cimaha, jai inenggi*의 『增』 한어 대역어는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석의 내용은 이 어휘들이 같은 의미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사실 그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는다. (3b)도 마찬가지이다. *ihan buren*과 *amba buren*의 한어 대역어는 서로 다르지만, *amba buren*의 만문 주석은 *ihan buren*을 의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한어 대역어는 각기 다르더라도, 만문 주석에서 다른 표제어의 동의어로 기술되어 있는 어휘들을 『漢』에서는 一云 어휘로 수록하였다. 앞선 예문 (1)의 漢語同上만큼은 아니라 해도 이와 같은 형식의 만문 주석은 동의어를 식별할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a)의 *fangnambi*나 (1b)의 *budehe* 등도 漢語同上이라는 표지가 없었더라도 만문 주석을 통해 一云 어휘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와 (2)의 一云 어휘들도 『增』의 전석은 동의어에 대한 정보 이상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석 기술 방식은 동일한데 漢語同上으로 주석된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漢語同上인 어휘들이 의미의 유사성이나 동의성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이다. 전석을 통해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들 간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세밀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漢語同上이나 漢名同上과 같은 도구 언어 사용을 통해 관계의 밀접한 정도를 표현하고자 시도했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增』 한어 대역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해당 만주어 표제어의 의미 차이를, 한어 대역어를 통해 다르게 번역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두 유형의 표지 사용 여부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인다. 즉 서로 다른 어휘로 대역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몹시 어려울 때 漢語同上 등으로 대역을 포기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一云 어휘와 표제어의 관계에서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은, 동의어 관계에 있는 두 단어 중 어떤 것을 표제어로 선택하고 어떤 것을 一云 어휘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리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수의 一云 어휘들은 그 전석이 공통적으로 'A를 B라 한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 표제어로 남은 것은 A이고 一云으로 추가된 것이 B이다.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漢』의 편찬자들은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석의 내용, 그리고 전석의 구조적 특징까지 모두 검토한 끝에 표제어의 선정과 삭제, 그리고 추가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전석의 구조와 一云 어휘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일관적이지만 또한 예외도 있다.

(4) (a)

<增 06:27a> soli 請 / gucu niyaman be helneme gana sere be, soli sembi. (벗이나 친지를 청하러 가서 데려 오라 하는 것을 sol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solimbi 請人 / niyalma be helnere be, solimbi sembi. (사람을 청하러 가는 것을 soli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solibumbi 使請 / niyalma de hendufi solire be, solibumbi sembi.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 청하는 것을 solibu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solinambi 去請 / genefi solire be, solinambi sembi. (가서 사람 청하는 것을 solina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solinjimbi 來請 / jifi solire be, solinjimbi sembi. (와서 사람 청하는 것을 solinji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helne 邀請 / solina sere be, helne sembi. (사람 청하러 가라 하는 것을 helne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helnembi 去邀請 / solinambi sere be, helnembi sembi. (사람 청하러 간다 하는 것을 helne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增 06:27b> henjimbi 來邀請 / solinjire be, henjimbi sembi. (사람 청하러 오는 것을 henjimbi라 한다.) [禮部 筵宴類]

(b)

<漢 03:32b> 請人 / 사ᄅᆞᆷ 청ᄒᆞ다 / solimbi / niyalma be helnembi (사람을 청한다) [禮部 筵宴類 一則]

<漢 03:32b> 去請 / 청ᄒᆞ라 가다 / helnembi / solinambi sere gisun (사람 청하러 간다 하는 말) ○一云 solinambi [禮部 筵宴類 一則]

<漢 03:32b> 來請 / 청ᄒᆞ라 오다 / henjimbi / solinjimbi sere gisun (사람 청하러 온다 하는 말) ○一云 solinjimbi [禮部 筵宴類 一則]

(4a) 그룹은 표제어 *soli*에서부터 *henjimbi*까지의 『增』 표제항들이다. 그리고 (4b) 『漢』의 단어들을 보면 이 8개 표제어 중에 3개를 표제어로 수록하였으며, 2개는 선택한 표제어 중 2개 단어에 각각 一云으로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一云으로 선택된 단어와 표제어로 선택된 단어의 전석은 앞에서 일반화시킨 공식에서 어긋난다.

우선 『漢』 표제어 *solimbi*의 선택은 *soli*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 계열 내에서 대표형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bu-*, *-na-*, *-(n)ji-* 등의 접사가 붙어 파생된 동사들은 계열 내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helnembi* 역시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동사 계열 내에서 선택된 대표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helnembi*는 *solimbi* 계열에서 삭제된 동사 *solinambi*의 동의어이며, 一云 어휘 공식에 의하면 *solinambi*의 一云 어휘로 추가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4)의 예는, 표제어나 一云 어휘의 선택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helnembi*는 어형에서도 반영되듯이 *-na/ne-* 접사로 인한 파생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helnembi*와 *henjimbi* 어형을 통해 어근형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helnembi* 계열의 어휘들은 다른 접사들로 인한 파생형 역시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solinambi*와 *helnembi*가 동의어 관계에 있고, *solinambi*가 A, *helnembi*가 B의 위치에 해당하지만, *solinambi*가 아니라 *helnembi*를 표제어로 선택했다는 것은, 一云 어휘를 선택할 때 가시적인 표지와 전석 구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형과 문법적 예측 가능 정도를 또한 고려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파생 형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생산력 있는 형태보다, 어근과 파생형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어형이 선택된 것이다.

이와 같이 一云 어휘의 선택은 대체로 『增』에서 同上류의 도구 언어 표지로 주석한 경우와, 同上류 어휘의 전석과 동일한 전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에서 선택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의어 간의 형태 정보를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이 더 적은 어휘, 즉 학습 필요성이 더 높은 어휘를 표제어로 남기는 등의 섬세한 선별 작업을 추가적으로 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云 어휘들 중에는 표제어와 一云 어휘 간에 형식적인 표지를 찾아내기 어려운 단어들도 남아 있다. 이들이야말로 『漢淸文鑑』 간행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면밀히 고찰한 후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a)

<增 07:40b> tacihiyambi 教訓 / yaya jorire tacibure be, tacihiyambi sembi. (무릇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tacihiyambi라 한다.) [文學部 文教類]

<增 07:40b> tacihiyabumbi 使教訓 / niyalma de hendufi tacihiyara be, tacihiyabumbi sembi. (사람에게 말해서 훈육하는 것을 tacihiyabumbi라 한다.) [文學部 文教類]

<增 07:40b> tacibumbi 指教 / joriha tacibuha be, tacibumbi sembi.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tacibumbi라 한다.) [文學部 文教類]

<漢 04:16a> 教訓 / ──ᄒᆞ다 / tacihiyambi / yaya jorire taciburengge (무

릇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一云 tacibumbi [文學部 文教類 一則]

(b)

<增 07:49a> gidakū 鎮尺 / bithe arara de hoošan gidarangge be, gidakū sembi. (글을 쓸 때 종이 누르는 것을 gidakū라 한다.) [文學部 文學什物類 第二]

<增 07:49a> muheren 倣圈 / hergen arara de hoošan gidara hošonggo muheliyen teišun i jergi jaka i weren be, muheren sembi. (글자 쓸 때 종이 누르는, 각지거나 둥근 주석 등 물건의 테를 muheren이라 한다.) [文學部 文學什物類 第二]

<漢 04:21a> 鎮尺 / 셔진 / gidakū / bithe arara de hoošan gidarangge (글 쓸 때 종이 누르는 것) ○一云 muheren [文學部 文學什物類 二則]

(c)

<增 08:19a> silhimbi 專衝一處 / emu ba be funtume dosire be, silhimbi sembi. (한 곳을 뚫으며 들어가는 것을 silhimbi라 한다.) [武功部 征伐類 第四]

<增 08:19a> funtumbi 突入 / bata i feniyen de silhime dosire be, funtumbi sembi. (적의 무리에 뚫으며 들어가는 것을 funtumbi라 한다.) [武功部 征伐類 第四]

<增 08:19b> fondolombi 穿入 / bata i feniyen de bireme faksa dosire be, fondolombi sembi. (적의 무리에 완전히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fondolombi라 한다.) [武功部 征伐類 第四]

<漢 04:35b> 穿入 / 뚜루 지르다 / fondolombi / bata i feniyen de bireme faksa dosimbi (적의 무리에 완전히 곧바로 들어가다.) ○一云 funtumbi 又 silhimbi [武功部 征伐類 四則]

(d)

<增 08:34b> šab seme 箭擦過聲 / niru sirdan i hishame duleke asuki. (화살이 스쳐 지나간 기척) [武功部 步射類 第二]

<增 08:35a> tas seme 箭擦着聲 / gabtaha agūra hishabuha asuki. (쏜 무기가 스쳐 지나친 기척) [武功部 步射類 第二]

<漢 04:43a> ∅ / 살 스쳐 지ᄂᆞᆫ 소ᄅᆡ / šab seme / niru sirdan i hishame duleke asuki (화살이 스쳐 지나간 기척) ○一云 tas seme [武功部 步射類 二則]

(e)

<增 10:11a> olji 擄來人 / cooha ci sosafi gajiha niyalma be, olji sembi. (전쟁에서 노략해서 얻은 사람을 olji라 한다.) [人部 人類 第五]

<增 10:11b> helen 所擒活口 / batai turgun be, sara niyalma be, helen sembi. (적의 상황을 아는 사람을 helen이라 한다.) [人部 人類 第五]

<漢 05:35a> 擄來人 / 被擄ᄒᆞ여 온 사ᄅᆞᆷ / olji / cooha ci sosafi gajiha niyalma (전쟁에서 노략해서 얻은 사람) ○一云 helen [人部 人類 五則]

(f)

<增 31:48b> mumurembi 打腦樁 / morin i jergi ulha uju gidafi fiyokocome maktara be, mumurembi sembi. (말 등의 짐승이 머리를 내리고 발길질하며 사람 차는 것을 mumurembi라 한다.) [牲畜部 馬匹動作類 第二]

<增 31:48b> fiyokocombi 撂蹶子 / morin i jergi, ulha i amargi bethe sasa tukiyecere be, fiyokocombi sembi. (말 등 짐승이 뒷다리를 함께 치켜드는 것을 fiyokocombi라 한다.) [牲畜部 馬匹動作類 第二]

<漢 14:28b> 打腦樁 / 모도 굴러 ᄎᆞ다 / mumurembi / morin i jergi ulha uju gidafi fiyokocome maktambi (말 등의 짐승이 머리 내리고 발길질하며 사람을 차다) ○一云 fiyokocombi [牲畜部 馬匹動作類 二則]

앞서 전석이 일관된 구조들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과 달리, (5)의 예들은, 一云 어휘와 표제어 간에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동의 관계 표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단어들의 유사성은 전석을 면밀히 해석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 (5)에서 예로 든 단어들의 전석을 함께 살펴보면, 이 단어들은 이전의 一云 어휘들과 동의 관계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은 표제어와 의미상 유의어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전 단어들처럼 표제어의 동의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의 단어들에서 또 다시 표제어와 一云 어휘 중 어떤 것을 표제어로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사전의 어휘 배열이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서 더 지엽적인 의미를 가진 것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면,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들 중 먼저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표제어로 선택된다고 할 수도 있다. 漢語同上으로 주석된 단어들이 주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의어의 뒤에 배치되며, 이들의 의미 관계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c)가 이러한 가설의 반례가 된다. (5c)가 유의어 선택의 일반적 규칙에서 벗어나 어휘의 의미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표제어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 간에 엄격한 一云 어휘 선택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여기서 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漢』의 一云 어휘 판단 기준에는 저본의 물리적인 표지 외에도, 어휘의 형태에 따른 판단과 단어들 간의 실제 의미 차이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단어들 중에는 표제어와 어느 정도 의미 차이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성백인 1983, 1999:54)

이밖에도 『增』의 어형과 다른 형태의 어휘가 一云으로 수록된 경우도 나타난다. 앞서 <표 8>에서, 『漢淸文鑑』에 一云으로 수록된 어휘수와 『增』에서 一云형으로 수록되며 탈락한 어휘수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漢淸文鑑』이 『增』형과는 다른 어휘를 一云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6) 『增』의 표제어형과 一云 어형이 다른 경우

<增 17:41b> anagan 借端 / gūwa baita de aname šolo tucibure be, anagan arambi sembi. (다른 일에 미루어 여유가 나게 하는 것을 anagan arambi라 한다.) [人部 懶惰類]

<增 17:42a> anakū arambi 漢語同上 / uthai anagan arambi sere gisun de adali (즉 anagan arambi라는 말과 같다) [人部 懶惰類]

<增 17:42a> kanagan 推故 / anagan arara be, inu kanagan arambi seme gisurembi.(핑계 만드는 것을 또한 kanagan arambi라 말한다.) [人部 懶惰類]

<漢 08:35b> 借端 / 다른 일로 핑계ᄒᆞ다 / anagan / gūwa baita de aname šolo tucibure be anagan arambi sembi (다른 일에 미루어 여유가 나게 하는 것을 anagan arambi라 한다.) ○一云 anakū arambi 又 kanagan arambi [人部 懶惰類]

『漢淸文鑑』에 一云으로 제시된 두 어구 중 *anakū arambi*는 漢語同上이며, *kanagan*은 만문 전석을 통해 표제어 *anagan*과의 유의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增』의 표제어형과 『漢』의 一云 어휘는 어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增』의 어휘 관계를 먼저 검토해 봤을 때, *anakū arambi*는 *anagan*의 漢語同上으로 주석되어 있지만, 엄밀히 대응하는 어휘는 *anakū*만 해당된다. *anagan*과 *kanagan*은 유의어 관계이고 *anakū arambi*는 *anagan arambi*와 대응되는 관계이다. 즉 『增』에서의 漢語同上은 의미 관계만 표시한 것이고, 단어들의 엄격한 대응관계는 무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漢』에서는 一云 어휘들 간의 대응 관계는 일치시키려 노력했지만, 표제어와의 대응에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anakū arambi*는 漢語同上이므로 어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一云으로 수록되었고, 그에 비해 *kanagan*은 一云 어형인 *anakū arambi*와 대응시켜 *kanagan arambi*로 수록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漢語同上인 *anakū arambi*와 표제어 *anagan* 사이의 대응 불일치는 『漢』에 와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표 17> 『漢』一云 어휘와 『增』 삭제 어휘의 불일치

『漢』		『增』
표제어	一云	一云으로 삭제된 어휘
biya gehun	biya genggiyen	genggiyen biya
bithe	bithe cagan	cagan
baisin	abgari banjimbi	abgari
juse	juse dasu	dasu
mukūn	mukūn falga	falga
niyaman	niyaman hūncihin	hūncihin
ungga	ungga dangga	dangga
buyen	buyen cihalan	cihalan
gucu	gucu gargan	gargan
amtan	amtan simten	simten
anakū jui	unucun jui	unucun
yasa gedehun	yasa gehun	gehun
anagan	kanagan arambi	kanagan
tung tang	tung tung tang tang	tungtung tangtang
lehele	tuksaka	toksaka
falanggū forimbi	falanggū faidan	falanggū faifan

<표 17>은 이와 같이 『增』 어휘와 『漢』 一云 어휘가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들을 정리한 것이다. 一云 어휘가 又로 둘 이상 나열된 경우, 해당하지 않는 예는 생략했다.

이밖에도 『漢』에서 一云으로 수록된 어휘가 『增』에서는 독립된 표제어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7) (a)

<增 12:32a> elhe 緩 / yaya hūdun akū manda be, elhe sembi. (무릇 서두름 없이 완만한 것을 elhe라 한다.) [人部 遲悞類]

<增 12:32a> nuhan 從容 / uthai elhe sere gisun inu elhe nuhan seme holbofi gisurembi ekšerakū arbun. (즉 elhe라는 말이다, 또 elhe nuhan 이라 붙여서 말한다. 바쁘지 않은 모양) [人部 遲悞類]

<漢 06:43b> 緩 / 완완이 / elhe / yaya hūdun akū manda (무릇 서두름 없이 완만하다) [人部 遲悞類 一則]

<漢 06:43b> 從容 / ── / nuhan / uthai elhe sere gisun (즉 elhe라는 말이다) ○一云 elhe nuhan [人部 遲悞類 一則]

(b)

<增 18:17a> modo 遲鈍 / aššara arbušara gisun mudan sijihūn be modo sembi. geli yaya ildamu akū be, inu modo sembi. (행하는 말과 소리가 뻣뻣한 것을 modo라 한다. 또 살갑지 않은 것을 또한 modo라 한다.) [人部 鈍繆類]

<增 18:17a> mufuyen 魯鈍 / gūnin isinjire jigeyen modo be, mufuyen sembi. geli mufuyen modo seme holbofi gisurembi. (생각이 이르는 것이 늦고 둔한 것을 mufuyen이라 한다. 또 mufuyen modo라고 붙여서 말한다.) [人部 鈍繆類]

<漢 08:50a> 遲鈍 / ── / modo / aššara arbušara gisun mudan sijihūn ○ geli yaya ildamu akū (행하는 말과 소리가 뻣뻣하다 ○ 또 무릇 살갑지 않다) [人部 鈍繆類]

<漢 08:50a> 魯鈍 / ── / mufuyen / gūnin isinjire jigeyen modo (생각이 이르는 것이 늦고 둔하다) ○一云 mufuyen modo [人部 鈍繆類]

(c)

<增 18:34a> we 誰 / takarakū niyalma be getukeleme fonjimbihede we sembi. geli we ya seme holbofi gisurembi. (알지 못하는 사람을 확인하러 물을 때 we라 한다. 또 we ya라고 붙여 말한다.) [人部 爾我類]

<增 18:34b> ya 那箇 / gebu be sambime niyalma be takarakū dacilame fonjimbihede, ya sembi. (이름은 알면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자세히 물을 때 ya라 한다.) [人部 爾我類]

<漢 08:59a> 誰 / 누고 / we / takarakū niyalma be getukeleme fonjirengge (알지 못하는 사람을 확인하려 묻는 것) ○一云 we ya [人部

爾我類]

<漢 08:59a> 那箇 / 어ᄂᆡ / ya / gebu be sambime niyalma be takarakū dacilame fonjirengge (이름은 알면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자세히 묻는 것) [人部 爾我類]

(7)의 예들은, 『漢』의 표제어 및 一云 어휘와 비교하기 위해 꼭 관계가 있지 않아도 주변 단어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7a)의 경우에는 *nuhan*의 一云 형이 논의 대상이며, (7b)의 경우에는 *mufeyen*의 一云형이, (7c)의 경우에는 *we*의 一云 어구가 해당된다.

(7a)의 一云 어구인 *elhe nuhan*은 앞의 (6)의 경우처럼, 『增』 표제어를 삭제하면서 어구의 대응을 위해 변형된 어구가 一云으로 수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삭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 *elhe*는 실제로는 『漢』에서 삭제되지 않고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7b)의 *mufuyen modo* 역시 마찬가지이며, (7c) *we*의 一云 어구인 *we ya*도 마찬가지이다. *ya*의 변형 어구로 수록되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 ya는 독립된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물론 『增』에 *elhe nuhan*이나 *mufuyen modo*, *we ya*는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7a)와 (7b), (7c)의 一云 어구는 『漢』에서는 삭제한 『增』의 전석 부분에서 비롯되었다. (7) 예문의 『增』 전석은, '*holbofi gisurembi*(붙여 말한다)' 즉 연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어 정보는 전석의 축소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하지만 소표제어 형태로 표제항내 포함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유형은, 다른 一云형들과 물리적 구조가 다른 경우이다. 즉 만주어 표제어만 수록된 것이 아니라 한어 대역어가 나란히 병행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두 예를 발견할 수 있다.

(8) (a)

<增 10:10b> nehū 使婢 / aha hehe be, nehū sembi. (종인 여자를 nehū라

한다.) [人部 人類 第五]

<增 10:10b> nehūji 老婢 / uthai nehū sere gisun, geli se baha aha hehesi be, nehūji mama seme hūlambi. (즉 nehū라는 말, 또 나이 많은 종인 여자들을 nehūji mama라고 부른다.) [人部 人類 第五]

<漢 05:34b> 使婢 / 계집 죵 / nehū / hehe aha (여자 종) ○一云 nehūji 又 老婢 [人部 人類 五則]

(b)

<增 10:19a> eyun 姐姐 / ama amji eshen de banjiha sargan jui, beye ci se fulungge be eyun sembi. jai emu jalan i niyaman hūncihin, beye ci se fulungge be, inu eyun sembi. (아버지, 백부, 숙부에게서 태어난 딸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를 eyun이라 한다. 또 한 세대의 친지이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를 또한 eyun이라 한다.) [人部 親戚類]

<增 10:19a> gege 漢語同上 / eyun be, gege sembi. (eyun을 gege라 한다.) [人部 親戚類]

<漢 05:40b> 姐姐 / 맛 누의 / eyun / ama amji eshen de banjiha sargan jui beye ci se fulungge ○ jai emu jalan i niyaman hūncihin beye ci se fulungge (아버지, 백부, 숙부에게서 태어난 딸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 또 한 세대의 친지이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一云 gege 又 女伴相稱之語 [人部 親戚類]

4.2.2. 소표제어

앞서 『漢』에 수록되지 않고 삭제된 어휘의 상당수가 파생이나 활용을 통해 생성해 낼 수 있는 어휘들에 속한다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유형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漢』에서는 관련 표제어의 4단 전석 부분 뒤에 한어 소표제어 형태로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9) 소표제어로 수록된 예

(a)

<增 07:07b> carki tūmbi 打札板 / ucun i mudan de acabume carki guwembure be carki tūmbi sembi. (노래의 음에 맞추어 판을 울리는 것을 carki tūmbi라 한다.) [樂部 樂類 第三]

<增 07:07b> carkidambi 漢語同上 / carki tūre be, inu carkidambi sembi. (판을 두드리는 것을 또한 carkidambi라 한다.) [樂部 樂類 第三]

<增 07:16b> carki 楂板 / moo be šusihe i adali dergi isheliyen, fejergi oncokon, ududu arafi, uše ulifi guwebume tūrengge be carki sembi. (나무를 채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넙적하게 몇 개 만들어서, 띠를 끼워 울리며 두드리는 것을 carki라 한다.) [樂部 樂器類 第三]

<漢 03:56b> 楂板 / 以木板作籤子而上狹下廣貫於革條擊而作聲 / carki / moo be šusihe i adali dergi isheliyen fejergi oncokon ududu arafi uše ulifi guwebume tūrengge (나무를 채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넙적하게 몇 개 만들어서 띠를 끼워 울리며 두드리는 것) ○ 打札板曰 carki tūmbi[8] 又 carkidambi [樂部 樂器類 三則]

(b)

<增 13:05b> yandugan 請託的 / yaya jaka gisun be niyalma de baifi ulame isibure be, yandugan sembi. (무릇 물건이나 말을 사람에게 구해서 전하여 이르게하는 것을 yandugan이라 한다.) [人部 求望類]

<增 13:05b> yandumbi 請託 / yaya baita be niyalma de ulame baime yabure be, yandumbi sembi. (무릇 일을 사람에게 전하여 구하러 가는 것을 yandumbi라 한다.) [人部 求望類]

<漢 06:52b> 請託 / 청촉ᄒᆞ다 / yandumbi / yaya baita be niyalma de ulame baime yabumbi (무릇 일을 사람에게 전하여 구하러 가다) ○ 請託

8 『漢』의 원문에서는 *carki*와 *tūmbi* 사이에 띄어쓰기를 의미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漢』과 『增』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단순한 『漢』에서의 오류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오류로 보고 『增』의 어형으로 옮겼다.

的 yandugan [人部 求望類]

(c)

<增 16:26a> fumbi 發麻 / gala bethe gidabufi menerere be, fumbi sembi. (팔이나 다리가 눌려서 마비되는 것을 fumbi라 한다.) [人部 疼痛類 第二]

<增 16:26a> fungkebi 麻了 / gala bethe fumpi menereke be, fungkebi sembi. (팔이나 다리가 뻣뻣하고 마비된 것을 fungkebi라 한다.) [人部 疼痛類 第二]

<漢 08:07a> 發麻 / 저리다 / fumbi / gala bethe gidabufi menerembi (팔이나 다리가 눌려서 마비되다.) ○ 麻了 fungkebi [人部 疼痛類 二則]

(d)

<增 17:49b> geoden 局騙 / niyalma be mudan tebure be, geoden sembi. (사람을 속이는 것을 geoden이라 한다.) [人部 奸邪類]

<增 17:49b> geodebumbi 局弄 / argadame eiterere be, geodebumbi sembi. (꾀 써서 속이는 것을 geodebumbi라 한다.) [人部 奸邪類]

<漢 08:39a> 局騙 / 設計ᄒᆞ여 속이ᄂᆞᆫ 것 / geoden / niyalma be mudan tebumbi (사람을 속인다) ○ 局弄 geodebumbi [人部 奸邪類 一則]

(9a)의 *carkidambi*는 漢語同上으로 주석된 어휘 중 한어 소표제어로 삽입된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carki tūmbi*와 *carkidambi*는 이들이 부가된 표제어 *carki*와의 인근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소표제어로 수록되었다.『漢』의 편집자들이 어휘의 관계를 파악할 때 표제어의 위치상 근접한 곳에 있는 단어들에 국한시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9b) *yandumbi*에는 명사형(혹은 형용사형) *yandugan*이 부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와 파생어 간의 관계가 형태상 쉽게 유추하거나 파생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파생형을 소표제어로 수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c) *fumbi* 역시 표제어의 완료형으로 *fungkebi*를 파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없다

면 조선인 학습자들은 *fumbi*의 완료형을 *fuhe* 혹은 *fuhebi*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9d) *geoden*은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이 표제어로 선택된 경우이다. 그리고『增』에 *geoden*의 동사형이라 할 수 있을 *geodembi*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자동사형이 없이 *geodebumbi*만 나타난다.『增』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geodembi*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geoden*과 *geodebumbi*의 어휘 계열에서 유의미한 공백일 것이다. 『漢』에서 *geodebumbi*를 소표제어로 수록한 것은 동시에 *geodembi*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一云과는 별도로『漢』에서 소표제어 형식으로 부가 어휘를 제시한 까닭은 만문 표제어만으로 관련 어휘를 파생시키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단어를 표제어로 제시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처럼 소표제어의 존재가 어휘의 파생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하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잉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10) <增 12:04a> kicen 功夫 / yaya hacin i faššame yabuci acara ba be, kicen sembi. (어떤 종류의 힘써 행하면 마땅한 것을 kicen이라 한다.) [人部 黽勉類]

<增 12:04a> kicembi 用功 / yaya hacin de gūnin sithūfi yabure be, kicembi sembi. (어떤 종류에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을 kicembi라 한다.) [人部 黽勉類]

<漢 06:31a> 功夫 / ── / kicen / yaya hacin i faššame yabuci acara ba (어떤 종류의 힘써 행하면 마땅한 것) ○ 用功 kicembi [人部 黽勉類 一則]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漢』은 동사의 파생 계열 내에서 어근 명사

가 대표형으로 수록되면 다른 파생 동사들은 별도의 기술 없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0)의 예는 *kicembi*가 *kicen*의 소표제어로 부가 수록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9)의 예들처럼 표제어와 소표제어의 파생관계가 선명하지 않아 추가 수록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와 대조적이다. 즉 (10)과 같은 경우는, 삭제와 소표제어 수록에 관한 일관적인 원칙을 판단할 수 없다.

(11) <漢 08:11a> 膿 / 고롬 / niyaki / nišargan ci tucire tumin šula (부은 것에서 나오는 된 진물) ○ 長膿 niyakinahabi [人部 瘡膿類 二則]
<漢 08:11b> 瘡痂 / 더덩이 / huthe / yoo i notho (창질의 껍질) ○ 瘡結痂 huthenehebi [人部 瘡膿類 二則]
<漢 08:12a> 瘡疤 / 죵긔 허물 / fiyartun / beye de bisire yoo suiha feye i toron (몸에 있는 창질이 섞였던 상처의 흉터) ○ 成瘡疤 fiyartunahabi [人部 瘡膿類 二則]

(11)의 예들은 동일한 의미 부류 내에서, 표제어와 소표제어들이 동일한 유형의 파생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들이다. 부피를 줄이고 중복을 피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한 패턴의 소표제어 수록은 잉여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성백인(1983, 1999:55)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漢』의 파생어 처리 방식에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부가된 소표제어들은 대부분 파생어들이지만, 유의어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一云 어휘들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

(12) 一云과 유사한 기능의 소표제어
(a)
<增 09:12a> isibumbi 初次調練鷹狗 / giyahūn silmen indahūn i jergi jaka be, gūlmahūn ulhūma de tuktan dosimbume urebure be, isibumbi sembi. (매, 새매, 개 등의 것을, 토끼, 꿩에 처음 들여보내 훈련시키는 것을 isibumbi라 한다.) [武功部 頑鷹犬類]

<增 09:12b> darambumbi 調練鷹狗 / giyahūn silmen indahūn i jergi jaka be isibume urebure be darambumbi sembi. (매, 새매, 개 등의 것을 훈련시키는 것을 darambumbi라 한다.) [武功部 頑鷹犬類]

<漢 04:56b> 調練鷹狗 / 매와 개 길드리다 ○ 初次調練 / darambumbi / giyahūn silmen indahūn i jergi jaka be isibume urebumbi (매, 새매, 개 등의 것을 훈련시키다) ○ 初次調練 isibumbi [武功部 頑鷹犬類 一則]

(b)

<增 15:06a> genembi 去 / tubade yore be, genembi sembi. (저기에 가는 것을 genembi라 한다.) [人部 去來類]

<增 15:06a> yombi 同行 / genere be, yombi sembi. (가는 것을 yombi라 한다.) [人部 去來類]

<漢 07:36a> 去 / 가다 / genembi / tubade yombi (저기에 가다) ○ 同行 yombi [人部 去來類 一則]

(12)의 예에서 나타나는 표제어와 소표제어 사이의 유의 관계는 一云 어휘들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큰 차이가 없다. 굳이 구분하자면, 一云 어휘들만큼 유사도가 크지는 않지만 의미상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표제어 수록의 기준은 문법적 파생 관계에서부터 의미상 유의어 관계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제어 배열 순서가 나중인 어휘가 앞선 어휘의 표제항 안으로 배치되는 경향은 一云 어휘와 동일하다.

표제어 삭제 원칙과의 비일관성이나, 잉여적인 소표제어의 수록, 그리고 一云 어휘 처리방식과의 유사성 등은『漢』편찬 과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편 원칙이 엄격하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소표제어 수록 기준을 더 의심하게 하거나『漢』의 오류로 보이는 예들도 나타난다.

(13) <增 17:29b> hūlhi 糊塗 / mentuhun farhūn niyalma be, hūlhi sembi, yaya jaka getuken akūngge be, inu hūlhi sembi.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hūlhi라 한다. 어떤 물건이 맑지 않은 것을 또한 hūlhi라 한다.) [人部 愚昧類]

<增 17:30a> hūlhikan 畧糊塗 / majige hūlhi be, hūlhikan sembi. (다소 흐린 것을 hūlhikan이라 한다.) [人部 愚昧類]

<增 17:30a> hūlhitu 糊塗人 / hūlhi niyalma be, hūlhitu sembi. (흐린 사람을 hūlhitu라 한다.) [人部 愚昧類]

<增 17:30a> hūlhidambi 行事糊塗 / yaya babe getukelerakū yabure be, hūlhidambi sembi. (어떤 일을 명백하지 않게 행하는 것을 hūlhidambi라 한다.) [人部 愚昧類]

<增 17:30a> liyeliyehun 昏憒 / yaya hūlhi be, liyeliyehun sembi. (무릇 흐린 것을 liyeliyehun이라 한다.) [人部 愚昧類]

<漢 08:30a> 糊塗 / 흐리다 / hūlhi / mentuhun farhūn niyalma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 yaya jaka getuken akūngge ○一云 liyeliyehun [人部 愚昧類]

<漢 08:30a> 糊塗人 / 흐린 사ᄅᆞᆷ / hūlhitu / hūlhi niyalma (흐린 사람) ○ 行事糊塗 hūlhidambi [人部 愚昧類]

*liyeliyehun*은 *hūlhi*의 유의어이므로 『漢』에서 *liyeliyehun*을 *hūlhi*의 一云 어휘로 추가한 것은 일관적이고 적절한 처리이다. 그러나 *hūlhidambi*의 경우는 *hūlhi*와 일차적인 파생관계에 있고, *hūlhitu*와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hūlhitu*가 아니라 *hūlhi*의 소표제어로 수록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이다.

(14) <增 07:08b> deyenggulembi 謳 / geren niyalma sasa uculendure be, deyenggulembi sembi.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deyenggulembi라 한다.) [樂部 樂類 第三]

<增 07:08b> yangkūnggalambi 歌 / mudan gaime uculere be,

yangkūnggalambi sembi. (음을 취하며 노래하는 것을 yangkūnggalambi 라 한다) [樂部 樂類 第三]

<漢 03:50a> 謳 / 衆人齊唱曰一 / deyenggulembi / geren niyalma sasa uculendumbi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다) ○ 謳歌之謳曰 yangkūnggalambi [樂部 樂類 第三]

(14)는 『漢』의 오류로 보인다. 소표제어 *yangkūnggalambi*는 '謳歌之謳曰'가 아니라 '謳歌之歌曰'이었어야 저본의 해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주석이 오류가 아니라면, 『漢』의 편찬자들은 두 단어가 '노래하다'를 의미하는 유의어이지만 *deyenggulembi*는 '여러 사람의 행위'라는 점을 구분해 내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시 '謳'를 '衆人齊唱'으로 풀이한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deyenggulembi*와 *yangkūnggalambi*는 구별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표제항 내 수록된 一云 어휘와 소표제어의 수록 양상을 정리하자면, 一云 어휘는 기본적으로 동의어 및 동의어에 가까운 유의어들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관계가 반드시 동의어만큼 밀접하지 않은 어휘들도 一云 어휘의 수록대상에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수록된 어형이 『增』 표제어와 다른 경우도 나타난다.

그에 비해 소표제어로 수록된 어휘들은 문법적 파생 관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역시 일관적인 기준이 확고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미상 관련이 있는 어휘들도 포함되며, 잉여적인 경우들도 여럿 발견된다.

앞의 <표 8>을 다시 확인해 보면, 一云 어휘나 소표제어의 수록 정도가 부류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류별 편차가 一云 어휘나 소표제어 수록 기준의 일관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 듯도 하다. 즉 여러 편찬자의 공동 작업 속에서 본래의 작업 지침이 엄격하게 적용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一云 어휘와 소표제어의 성격은, 명백하게 일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향을 통해 기본 방침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의어나 유의어 관계의 어휘는 一云으로 수록하고, 문법적 파생 관계의 어휘들은 소표제어로 수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 어휘의 수록은, 표제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휘 정보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4.3. 전석 구문의 변화

만문 전석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漢淸文鑑』에 대단히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19세기 이전 편찬된 전 세계의 사전들 중에서, 『漢淸文鑑』 이외에 다언어사전으로서 원어 뜻풀이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사전의 존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용적인 사전으로 만들기 위해 원서인 『增』의 부피를 축소하는 작업과 만문 전석을 수록하는 일은 일면 모순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9] 『漢』의 신주는 대역어 제시가 어려울 경우 만문 전석의 내용을 반영하여 풀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문 전석의 존재 자체가 어휘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漢』의 편찬자들이 사전을 편찬함에 있어 만문 전석의 수록 여부를 비언어적인 이유로 인해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는 순전히 만주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수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대 사역원의 역관들은, 원어로 구성된 원어 뜻풀이가 외국어 학습에 갖는 기능과 가치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9 今西春秋(1958:31)에서는 전석을 수록하는 것보다 표제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석을 수록한 것은 한어 사전임과 동시에 만주어 사전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 견해를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고에서는 원어 뜻풀이가 갖는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시 문헌의 부피를 줄이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漢』의 편집자들은 이를, 만문 전석을 최소한으로 가공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계영(2015)에서 『漢淸文鑑』 만문 전석이 『增』에서부터 어떻게 개편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표제항은 수록해야 했으나 전석이 잉여적인 경우, 다른 어휘들의 전석과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은 백과사전식 정보 등 상당한 양의 전석들이 『漢』에서는 축소되었다. 또한 전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구문을 만들기 위해 문법 요소들이 변화하기도 하며, 동시에 『增』 전석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정확하지 않은 어휘들이 수정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다루었던 『漢』 전석의 유형과 개편 양상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며 논의를 보완하여, 이러한 개편을 통해 형성된 『漢淸文鑑』의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4.3.1. 등가물 형식의 전석

『漢』 전석 개편의 기본 방침은 전석의 부피를 축소하는 것이다.

(15) 전석의 삭제

<漢 13:55b> 山啄木 / 닷져고리 / fiyorhon / indahūn cecike de adali gunggulu akū moo be toksime umiyaha be baime jembi sahaliyan niowanggiyan hacingga boco ningge bi (오디새와 비슷하다, 볏이 없고 나무를 두드려 벌레를 찾아 먹는다, 검고 푸른 각종 색 있는 것이 있다) [鳥雀部 雀類 一則]

<漢 13:55b> 鎮打木 / ∅ / torhon / 上同 [鳥雀部 雀類 一則]

예와 같이 뒤에 배치된 단어의 의미가 앞의 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질 때, 『漢』에서는 신주와 만문 전석을 삭제하고 '上同'이라는 부호로 표시하였다.[10] 이렇게 上同으로 처리된 표제항은 『漢』에 48개 나타나는데, 上同의 어휘들은 앞 절의 一云 어휘나 한어 소표제어 유형과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一云 어휘나 한어 소표제어를 선별하는 작업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적용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또한 표제어와 표제어 사이의 개념상 위계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세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옳기 위해서는, 당대 한어 어휘 사용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가능성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漢』의 대부분의 어휘들은, 위와 같이 전석 전체를 삭제하기보다는, 전석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부피의 축소를 꾀한다.[11] 그리고 그렇게 전석을 축소한 결과는 부피의 절감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 사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16) 중복 어구의 삭제

(a)

<增 14:02a> gisun 言 / gūnin be ulhibume angga ci tucikengge be, gisun sembi. (생각을 설명하려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gisun이라 한다.) [人部 言論類]

<漢 07:09b> 言 / 言語之一 / gisun / gūnin be ulhibume angga ci tucikengge (생각을 설명하려 입으로부터 나온 것) [人部 言論類 一則]

---

10 2.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上同'이나 '一云' 등의 메타언어 표기를 본고에서는 모두 '부호'로 통칭한다.

11 예문 중 『增』의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漢』에서 삭제되었거나 변화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하 모두 동일하다.

(b)

<增 28:03b> urembi 熟 / bujufi sain ojoro be, urembi sembi, jai yaya tubihe i jergi jaka erinde isinafi jeci ojoro be, inu urembi sembi. (삶아서 제대로 되는 것을 urembi라 한다, 또 어떤 과일 등의 것이 시기에 이르러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또한 urembi라 한다.) [食物部 生熟類]

<漢 12:53b> 熟 / 닉다 / urembi / bujufi sain ombi ○ jai yaya tubihe i jergi jaka erin de isinafi jeci ombi (삶아서 제대로 되다 ○ 또 어떤 과일 등의 것이 시기에 이르러 먹을 수 있다) [食物部 生熟類 一則]

(16a)는 명사의 예이며, (16b)는 동사의 예이다. 표제어의 품사와 관계없이 『增』의 전석은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 즉 'A를 B라 한다'의 구조이다. 이 때 B가 표제어에 해당한다. 반면 『漢』의 전석은 이러한 메타 언어식 구조를 갖지 않는다. 『漢』 전석에는 표제어가 노출되지 않으며, 전석은 곧 표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등가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漢』의 전석은 표제어의 품사와 동일한 어형을 띤다.

『漢』과 『增』의 전석이 보이는 문장 구조의 차이는 각각 백과사전적인 특성과 언어사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의 기본적 분류는 수록 어휘의 종류를 통해 구분되겠지만, 어휘 수가 많아지고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의 근본적인 차이는 표제항의 속성이다. 백과사전의 표제항은 지시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사전의 표제항은 기호와 연결되어 있다.(황지엔화 2014:99-102, 345-347) 지시물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제어의 비교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구체적인 지시물이 있는 단어 간의 비교에서는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17) <增 25:26a> ilhai hungkereku 花澆 / ilha suitara de baitalara tetun be, ilhai hungkereku sembi. (꽃에 물 줄 때 사용하는 그릇을 ilhai hungkereku라 한다.) [器皿部 器用類 第八]

<漢 11:46a> 花澆 / 花草에 믈 흘리ᄂᆞᆫ 그릇 / ilhai hungkereku / ilha

suitara de baitalara tetun[S:te.tun][12] (꽃에 물 줄 때 사용하는 그릇) [器皿部 器用類 八則]

언어사전도 어휘가 표현하는 기호의 활용을 위해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백과사전도 표제어에 대한 언어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두 사전의 이론적 경계는 해석 내용에 있다기보다 해석 방식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增』의 전석은 기호에 대한 해석임이 분명하다. 『增』의 전석에는 지시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지시물을 지칭하는 기호가 표제어임이 메타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漢』에서 기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언어를 삭제함으로써, 『漢』의 전석은 기호에 대한 등가 표현, 즉 지시물에 대한 설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漢』의 편찬자들이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전석을 변개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순전히 전석의 부피를 줄이고자 했던 과정의 부수적인 결과인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대의 일반적인 언어사전들이 갖는 시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사전을 표방하는 현대의 사전들 역시 뜻풀이 부분은 등가물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 어휘 'bird'에 대한 '새'라는 대역어는 사용자에게 암묵적으로 'bird는 한국어로 새라고 한다'는 문장으로 읽히게 된다. 언어사전이라는 사전적 속성이 지시물이 아니라 언어 기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8) (a)

<增 06:19b> sufangga lujen 象輅 / durun, <u>moo lujen</u> i adali, oyo de duin farsi sufan i weihe kiyalmahabi jakūn morin baitalambi. (모양은 木輅와 비슷하다. 지붕에 네 덩이 상아를 놓아 꾸몄다. 여덟 마리 말을 사용한다.) [禮部 鹵簿器用類 第五]

<漢 03:27b> 象輅 / 制同上而以象牙餙輅頂駕之以八馬者 / sufangga lujen

[12] 원문에는 *te*와 *tun* 사이에 띄어쓰기를 표시하는 점이 찍혀 있다. *tetun*의 오류로 보이지만, 원문의 어형을 [S:] 주석을 통해 남겨 둔다.

/ durun dergi i adali oyo de duin farsi sufan i weihe kiyalmahabi jakūn morin baitalambi (모양은 위와 비슷하다. 지붕에 네 덩이 상아를 놓아 꾸몄다. 여덟 마리 말을 사용한다.) [禮部 鹵簿器用類 五則]

(b)

<增 12:46a> šan dabu 使算入 / yaya ubu goibu sere be, šan dabu sembi. (무릇 몫대로 나누라 하는 것을 šan dabu라고 한다.) [人部 分給類]

<漢 06:49a> 使籌入 / 수에 너흐라 / šan dabu / yaya ubu goibu sere gisun (무릇 몫대로 나누라 하는 말) [人部 分給類 一則]

(18)의 예들은, 전석의 마지막 어구를 표제어형에 맞추어 변형시키지 않은 예들이다. 『增』의 전석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개가 보이지만, 전석 마지막 어형은 바뀌지 않았다. (18a)의 경우에는, 문장 마지막 동사인 *baitalambi*를 *baitalarangge*라고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할 것이다. 이는 전석의 '*moo lujen*'을 '*dergi*'로 교체하여 이전 표제항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18b)의 경우는 *yaya ubu goibu*만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에 더 부합하지만, 전석을 축소는 하되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형하였다.

4.3.2. 화용론적 정보의 유지

전석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전체 어휘 12,758개의 전석에 가해진 변개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은 비율을 갖는다.

<표 18> 『漢』 전석의 변개 비율

	동일	축소	전석삭제	다른 전석	합계
어휘 수(개)	1978	10672	85	23	12,758
비율(%)	15.5	83.6	0.7	0.2	100

전체 어휘의 15.5%에 달하는 1978개 단어는 전석에 전혀 변화 없이 수록되었다. 또한 23개의 단어는 『增』의 전석과 전혀 다른 전석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18)의 예들은, 일부 단어나 구에 불과하더라도 전석의 축소를 겪은 경우이다. 『增』에서 전석을 축소해 오는 과정에서도 표제어와 등가형의 전석으로 변개하지 않은 이유를 (18)의 예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9) 『增』의 전석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

<增 02:09b> aniyaingge 某年的 / tere aniya i baita, ere aniya i baita be, tere aniyaingge. ere aniyaingge sembi. (저 해의 일, 이 해의 일을 tere aniyaingga, ere aniyaingga라 한다.) [時令部 時令類 第四]

<漢 01:22b> 某年的 / 아모 히ㅅ것 / aniyaingge / tere aniyai baita ere aniyai baita be tere aniyaingge ere aniyaingge sembi (저 해의 일, 이 해의 일을 tere aniyaingga, ere aniyaingga라 한다.) [時令部 時令類 四則]

<增 12:16a> aiseme 怎麼說來 / gūwa niyalmai gisurehe be dacilame fonjimbihede, aiseme gisurehe aiseme henduhe sembi.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져 물을 때, aiseme gisurehe, aiseme henduhe라고 한다.) [人部 問答類]

<漢 06:36b> 怎麼說來 / 무어시라 ᄒᆞ더냐 / aiseme / gūwa niyalmai gisurehe be dacilame fonjimbihede ai seme gisurehe ai seme henduhe sembi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져 물을 때, aiseme gisurehe, aiseme henduhe라고 한다.) [人部 問答類 一則]

<增 18:53b> funde 替 / yaya oronde weilere yabure be, funde weilembi funde yabumbi sembi. (어떤 빈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니는 것을 funde weilembi, funde yabumbi라 한다.) [人部 散語類 第六]

<漢 08:75a> 替 / ᄃᆡ에 / funde / yaya oron de weilere yabure be funde weilembi funde yabumbi sembi (어떤 빈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니는 것을 funde weilembi, funde yabumbi라 한다.) [人部 散語類 六則]

(19)의 예들 역시, 전석의 내용이 표제어의 등가물을 이루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예들은『增』의 전석이 표제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제어가 사용되는 환경이나 맥락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漢』에서도 풀이 방식을 바꾸거나 줄이지 않고 저본인『增』전석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옮겨 왔다.[13]

이와 같이 표제어의 화용적 맥락이나 용례를 제시하는 경우는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는 (19)의 예들처럼 거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어휘를 삭제하여 전석을 축소한 경우에도 어휘의 사용 맥락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생략되지 않는다.

(20) (a)

<增 12:12a> ferguwecuke 奇 / encu hacin i sain sabi tucinjifi niyalma tome kiyakiyame saišame hendumbihede, absi ferguwecuke sembi, ferguwecuke niyalma, ferguwecuke jaka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alimbaharakū saišame maktara gūnin. (다른 종류의 길조가 나타나서 사람들마다 칭송하며 말할 때, absi ferguwecuke라고 한다. ferguwecuke niyalma, ferguwecuke jaka 등의 말에 사용한다. 몹시 칭송하는 뜻) [人部 稱奬類]

<漢 06:35a> 奇 / 긔이ᄒᆞ다 / ferguwecuke / encu hacin i sain sabi be absi ferguwecuke sembi ○ ferguwecuke niyalma ferguwecuke jaka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alimbaharakū saišame maktara gūnin (다른 종류의 길조를 absi ferguwecuke라고 한다. ○ ferguwecuke niyalma, ferguwecuke jaka 등의 말에 사용한다. 몹시 칭송하는 뜻) [人部 稱奬類 一則]

(b)

<增 12:38a> niša 著實實的 / niyalma de eletele bure gaire be, niša

[13] (19)의 예들에 나타난 변개 사항은 띄어쓰기 정도에 불과하다. 띄어쓰기 이외의 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는 <표 18>에서 변개가 없는 동일한 경우에 포함했다.

bumbi, niša gaimbi sembi, geli niša tebu niša gida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ujen labdu obu sere gūnin. (사람들에게 충분할 만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niša bumbi, niša gaimbi라 한다. 또 niša tebu, niša gida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무겁고 많게 되라 하는 뜻이다.) [人部 取與類]

<漢 06:46a> 着實實的 / 실ㅅ다이 / niša / niyalma de eletele bure gaire be niša bumbi niša gaimbi sembi ○ geli niša tebu niša gida sere gisun de baitalambi ujen labdu obu sere gūnin (사람들에게 충분할 만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niša bumbi, niša gaimbi라 한다. ○ 또 niša tebu, niša gida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무겁고 많게 되라 하는 뜻이다.) [人部 取與類 一則]

(c)

<增 15:43b> baliya 笑人不能事 / baita mutebuhekū niyalma be basume hendumbihede, baliya sembi, waliyaha sere gisun de adali. (일을 능히 하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말할 때 baliya라고 한다. '버렸다' 하는 말과 같다.) [人部 鄙薄類]

<漢 07:52a> ∅ / ∅ / baliya / 笑人不能事之語 ○ baita mutebuhekū niyalma be basume hendumbihede baliya sembi (일을 능히 하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말할 때 baliya라고 한다.) ○一云 waliyaha [人部 鄙薄類 一則]

(20)의 예들은, 전석의 일부 단어나 어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어휘가 사용되는 용례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둔 경우이다. 『漢』은 『增』의 전석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잉여적이라고 여겨지는 어구들을 삭제하는데, 축소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줄인다. 이렇게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어휘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 가급적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21) (a)

<增 16:08a> gise 娼妓 / hūda gaime niyalma be halbure hehesi be gise sembi, hehesi becunume ohode ede duibuleme toombi. (돈을 얻으려 남

자를 집에 들이는 여자들을 gise라 한다. 여자들이 서로 싸울 때 이에 빗대어 욕한다.) [人部 咒罵類]

<漢 07:56b> 娼妓 / 기싱 / gise / hūda gaime niyalma be halbure hehesi (돈을 얻으려 남자를 집에 들이는 여자들) [人部 咒罵類 一則]

(b)

<增 25:33a> jaci 太 / dabanaha sere gūnin, jaci labdu, jaci komso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과도했다는 뜻이다. jaci labdu, jaci komso 등의 말에 사용한다.) [器皿部 多寡類 第一]

<漢 11:48b> 太 / 太過히 / jaci / dabanaha sere gūnin (과도했다는 뜻) [器皿部 多寡類 一則]

<漢 11:48b> 甚 / 너모 / hon / umesi sere gisun de adali hon sain hon ehe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아주'라는 말과 같다. hon sain, hon ehe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一云 asuru [器皿部 多寡類 一則]

<漢 11:48b> 着實 / ᄀᆞ장 / dembei / mujakū sere gisun de adali dembei labdu dembei saikan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몹시'라는 말과 같다. dembei labdu, dembei saikan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一云 mujakū [器皿部 多寡類 一則]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어휘 사용 정보를 생략한 예도 들어 둔다. (21)의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20b)의 *jaci*의 경우는 잉여적인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유사한 의미의 *hon*이나 *dembei*가 이러한 용례를 모두 수록한 것과 대비된다. (21a) 역시 어휘 사용에 관한 용례가 생략된 경우이다. 최계영(2015:93)에서는 이 예 역시 잉여적이라고 여겨진 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했으나, 점잖지 못한 문맥을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增』 전석에 나타난 연어에 관한 용법은 『漢』에 여러 형태로 반영된다. 필요에 따라 전석에서는 삭제되기도 하고, 소표제어 형태로 수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석에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增 12:44a> engki congki 將彀 / engki congki seme holbofi gisurembi arkan isika sere gūnin. (engki congki라고 붙여 말한다. 겨우 미쳤다 하는 뜻이다) [人部 均賑類]
<漢 06:48a> 將彀 / 거의 당ᄒᆞ다 / engki congki / arkan isika sere gūnin (겨우 미쳤다 하는 뜻) [人部 均賑類 一則]

(22)는『增』의 전석에 연어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으나 곧 표제어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어 정보는 전석에서 다시 기술될 필요가 없는 것이며『漢』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다.

(23) <增 18:09a> nantuhūn 貪汚 / giyan akū ulin gaijara be, nantuhūn sembi. doosi nantuhūn seme holbofi gisurembi. (합당치 않게 재물을 얻으려는 것을 nantuhūn이라 한다. doosi nantuhūn이라 붙여서 말한다.) [人部 貪婪類]
<漢 08:44b> 貪汚 / ── / nantuhūn / giyan akū ulin gaijara be doosi nantuhūn sembi (합당치 않게 재물을 얻으려는 것을 doosi nantuhūn이라 한다.) [人部 貪婪類 一則]

반면, (23)은 연어에 대한 정보를 남기면서 전석을 줄이는 작업의 결과, 표제어와 전석에서 풀이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연어 정보를 전석에 남기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漢』의 이 전석은 "*giyan akū ulin gaijarangge* ○ *doosi nantuhūn seme holbofi gisurembi*"와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

역시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연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 예도 들어둔다.

(24) 연어 정보가 삭제된 예

<增 10:43b> oron 魄 / e i simen be, oron sembi, fayangga oron seme holbofi gisurembi. (陰液을 oron이라 한다. fayangga oron이라고 붙여 말한다.) [人部 人身類 第八]
<漢 05:59a> 魄 / 陰液爲一 / oron / e i simen (陰液) [人部 人身類 八則]

<增 11:23b> wesihun 貴 / hūncihin sain derengge be, wesihun sembi, bayan wesihun seme holbofi gisurembi. (혈족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wesihun이라 한다. bayan wesihun이라고 붙여 말한다.) [人部 福祉類]
<漢 06:14b> 貴 / 一 / wesihun / hūturi sain derengge (복되고 좋은 상태) [人部 福祉類 一則]

<增 18:29b> bireme hereme 有的沒的 / uthai bireme sere gisun, bireme hereme seme holbofi gisurembi. (즉 '전부 다'라는 말이다. bireme hereme라고 붙여서 말한다) [人部 完全類]
<漢 08:55b> 有的沒的 / 잇ᄂᆞᆫ 것 업ᄂᆞᆫ 것 / bireme hereme / uthai bireme sere gisun (즉 '전부 다'라는 말) [人部 完全類 一則]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들은, 『增』의 전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漢』의 전석이 갖는 특징에 대한 것이었다. 『增』의 전석에서 잉여적인 구문을 삭제하는 과정 속에서 『漢』의 전석은 표제어와 등가물을 이루는 형태로 변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피의 절감이 목적이므로 전석의 축소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표제어를 사용하는 용례나 연어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漢』이 언어 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결과를 낳는다.

4.3.3. 명확한 전석으로 교체

이밖에도 『漢』은 표제어를 선별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어휘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준다. 파생 관계에 있거나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표제어로 선택한 단어보다 삭제할 단어의 전석이 더 명확한 의미를 보여 주는 경우, 삭제 어휘의 전석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최계영 2015:96-97)

(25) <增 01:18a> undan 春雪凝凍 / niyengniyeri amba nimanggi de oilo gecefi morin gurgu be, eterakū niyalma suntaha etufi yabuci ojoro be, undan sembi. (봄에 큰 눈에 겉이 얼어서 말이나 짐승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설마를 신고 다녀야 하는 것을 undan이라 한다) [天部 天文類 第六]
<增 01:18b> undanahabi 雪浮凍 / undan banjinaha be, undanahabi sembi. (undan이 생긴 것을 undanahabi라 한다) [天部 天文類 第六]

<漢 01:15a> 雪浮凍 / 봄눈 것만 어다 / undanahabi / niyengniyeri amba nimanggi de oilo gecefi morin gurgu be eterakū niyalma suntaha etufi yabuci ojorongge (봄에 큰 눈에 겉이 얼어서 말이나 짐승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설마를 신고 다녀야 하는 것) [天部 天文類 六則]

(25)는 삭제된 표제어의 전석을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漢』에서는 *undan*은 삭제하고 *undanahabi*만을 수록하였는데, 수록된 *undanahabi*의 전석은 본래 *undan*의 전석이다. 두 단어에 대한 『增』의 전석을 살펴보면 『漢』에서 전석을 교체한 이유는 분명히 드러난다. *undanahabi*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undan*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6) <增 18:12a> gibagan 閣疤 / yaya jaka de boriname latufi katahangge be, gibagan sembi. (어떤 물건에 콧물이 묻어서 마른 것을 gibagan이라 한다.) [人部 邋遢類]
<增 18:12a> gibaganahabi 閣疤住了 / gibagan bisire be gibaganahabi sembi. (콧물 자국이 있는 것을 gibganahabi라 한다.) [人部 邋遢類]
<漢 08:46b> 閣疤住了 / 코ㅅ믈 무더 ᄆᆞ르다 / gibaganahabi / yaya jaka de boriname latufi katahabi (어떤 물건에 콧물이 묻어서 말라 있

다) ○ 閣疤 gibagan [人部 邋遢類 一則]

(26)의 예도 (25)와 마찬가지로 삭제한 표제어의 전석으로 교체된 경우이다. 차이가 있다면 (26)에서는 삭제한 표제어 *gibagan*과 한어 대역어를 수록한 표제어 *gibaganahabi*의 소표제어로 추가해 놓은 것이다.

(27) <增 29:32a> wantahai šartan 杉木 / gargan akū golmin moo be, wantahai šartan sembi. (가지 없는 긴 나무를 wantahai šartan이라 한다.) [樹部 樹木類 第九]
<增 29:32a> šartan 杉槁 / narhūn wantahai šartan moo be, šartan sembi. (가느다란 삼나무를 šartan이라 한다.) [樹部 樹木類 第九]

<漢 13:29a> 杉槁 / 無枝細長之木 / šartan / gargan akū golmin moo (가지 없는 긴 나무) ○一云 wantahai šartan [樹部 樹木類 九則]

(27)은 一云으로 수록한 단어의 전석을 사용한 경우이다. 『漢』의 *šartan*의 전석도 본래 『增』에 있던 *šartan*의 전석이 아니라 *wantahai šartan*의 전석이다. 이 때 두 단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는 무시되어 있다.

(28) <增 06:40b> untun 女手鼓 / isheliyen weren i emu ergi de sukū burifi, emu gala de jafafi, emu galai forirengge be, untun sembi, boode wecere de baitalambi. (좁은 테로 한 쪽에 가죽을 메워서,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두드리는 것을 untun이라 한다. 집에서 제사할 때 사용한다.) [禮部 祭祀器用類 第二]
<增 06:40b> imcin 男手鼓 / untun be inu imcin sembi, fudešere saman baitalambi. (untun을 또한 imcin이라 한다. 굿하는 무당이 사용한다.) [禮部 祭祀器用類 第二]

<漢 03:41b> 女手皷 / 무당의 손ㅅ북 / untun / isheliyen weren i emu ergi de sukū burifi emu gala de jafafi emu galai forirengge ○

haha i forirengge be imcin sembi (좁은 테로 한 쪽에 가죽을 메워서 한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두드리는 것 ○ 남자가 두드리는 것을 imcin이라 한다.) [禮部 祭祀器用類 二則]

(28)은 표제어의 본래 전석과 함께 소표제어로 삽입한 단어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한 경우이다. 그러나 『漢』에서 추가한 *imcin*에 대한 내용은 『增』에서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漢』의 편찬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추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변형은, '굿'이나 '무당'과 같은 토속 신앙과 관련된 어휘에 대해, 본래 의미의 정확성보다는 조선인 입장에서의 이해와 응용을 더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록한 표제어의 전석이 아닌 삭제한 단어의 전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제어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어휘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생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었던 어휘들 중 가장 의미 정보가 상세한 어휘의 전석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漢』의 전석은, 문헌 전체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삭제되는 어휘의 정보들을 가급적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석을 개편했다고 할 수 있다.

표제어 어형의 예측 가능성으로 인한 잉여성으로 표제어를 삭제하면서도, 그 어휘의 의미가 선택된 표제어의 의미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석을 교체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어구를 삭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휘의 사용 맥락이나 용례, 연어구 등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지 않고 수록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작업 속에서 『漢』의 전석이 표제어 어형에 상응하는 등가물의 형태로 수정되고, 백과사전식 정보는 삭제되어감에 따라, 사전 자체의 성격이 언어 사전의 속성을 더 명확히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5. 新註와 사전언어

범례 1조의 '若不文以註之諺以釋之則恐無以曉解'는 『漢淸文鑑』을 제작하게 된 주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漢淸文鑑』에는 한문이나 한국어로 작성한 新註가 추가되었다.

新註는 명백히 조선인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 신주가 한문이나 한국어로 주석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漢淸文鑑』의 잠재적 이용자가 한글로 기술된 한국어는 물론이거니와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주는 한어 표제어를 중요한 기술 대상으로 한다. 범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增』의 만주어는 주석이 자세하고 명확하지만, 한어는 부수적이다'는 말은, 한어 어휘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명확한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漢』의 신주는, 만주어 표제어만큼이나 한어 어휘를 주요한 대역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주는 또한 『漢淸文鑑』의 고유한 대역 방식을 보여준다. 의미부류별로 구성된 『漢淸文鑑』의 체재는 표제항의 배열이 문자형태별 사전과 다르다는 피상적인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역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거시구조 내에서 어휘들은 서로 의존적인 개념 관계 속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의 절감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한 사전이라면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漢』에서 굳이 삭제하지 않은 만문 전석의 존재가 기점언어의 개념을 온전히 표현해야 하는 대역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사전의 잠재적 이용자가 대역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의 특성상 『漢』의 대역어는 기점어휘의 의미소를 모두 포괄하여 제시해야 할 부담이 적으며, 제한된 문맥 속에서의 대체

어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漢淸文鑑』의 이용자는, 한문과 만주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춘 전문 역관들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대상 사용자의 제한은 대역 어휘가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漢』의 대역어가 갖는 특성으로 귀결될 것이다.

『漢淸文鑑』에서는 한국어 화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석을 추가함으로써,『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대역어가 모두 기점언어로 위치하게 되었다. 범례에서 확인하였듯이 한어 어휘에 대한 주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어 표제어가 실제로는 본래의 기점언어였던 만주어 어휘의 대역어라는 것이다.[1] 따라서『漢』의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관계는 이중의 위계를 갖게 되지만,『漢』에서 한어 어휘에 대한 주석을 중시하면서 원서의 언어 관계는 역전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신주의 유형을 검토하고, 신주의 대역 방식이 갖는 특성을 살펴본 후,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漢淸文鑑』의 사전언어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5.1. 新註의 유형

한문과 한글을 기술언어로 사용하며, 다의어의 의미를 함께 수록하거나 여러 대역 방식을 중첩하여 사용하면서 新註는 대단히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성백인(1983/1999:48-50)에서 신주의 유형을 크게 ① 한글로 적은 것, ② 한문으로 된 것, ③ 국한문 혼용으로 된 것으로 구분하고, 여러 유형 가운데 일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성백인(1998), 고동

1『漢』의 두 기점언어인 만주어와 한어의 대역 관계는『增』의 대역 방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의 관심은『漢』에서의 기점언어인 만주어 및 한어와 목표언어인 한국어 사이의 관계이다.

호(2014) 등에서도 신주의 유형 중 일부를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신주는 그 유형이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신주의 모든 유형을 밝혀 놓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신주는 문자형에서도 구별되지만, 대역방식에 의해서도 구별되며, 이를 혼재하여 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漢淸文鑑』의 신주는 만주어와 한어 모두의 균형 잡힌 주석이어야 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한국어와 한문 두 가지 언어로 기술한 두 언어 체계의 대역문이다. 대역 방식 또한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주의 유형은 몇 가지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주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유형은, 어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록하면서도 대역 작업의 편의를 꾀하려는 태도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주의 실제 유형들을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주의 유형
① 한어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② 어휘 제시형 대역
㉠ 한자로 쓰인 한자어
㉡ 한글로 쓰인 한자어나 고유어
③ 풀이식 대역
㉠ 한문으로 기술
㉡ 한국어로 기술
④ 신주가 생략되는 경우

신주 중 많은 경우는 위에서 구분한 유형의 혼재형을 보여준다. 대역어는 한 번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른 어휘나 풀이를 추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구분은 2단에 가장 처음 제시된 대역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둘 이상의 대역 어휘가 나열되었거나 대역 방식이 다른 형태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앞세운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양상은 해당

유형의 예문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2)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a) <漢 06:11a> 天生福人 / ——— / fulingga / abkai hesebuhe hūturi fengšen amba niyalma (하늘이 내린 복이 큰 사람) [人部 性情類 一則]

(b) <漢 07:54a> 約束 / ——ᄒᆞ다 ○ 又 잡죄다 / jafatambi / ehe waka de isinarahū seme doigonde ciralame tacibume bargiyatame kadalambi (악하고 그릇된 데에 이를까 하여 미리 엄하게 가르치며 거두어 통솔하다) [人部 責備類 一則]

신주 중에는 (2a)와 같이 표제 한어에 추가적인 주석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대역어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신주의 위치에는 표제 한어의 글자 수만큼 획을 그어 표시했다. 성백인(1983/1999:50)에서는 이러한 경우, 1단은 한어이고 2단은 한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표제 한어를 한문으로 읽어도 의미가 통할 때는, 굳이 대역하지 않고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역 방식은 대역 작업의 편의성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표제 한어를 그대로 사용한 유형에는 (2b)와 같이 한국어 어휘형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는 단어의 실질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부분은 표제 한어이며, 한국어 부분은 대역어의 개념 변화 없이 품사만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2b)는 또한 고유어 대역 어휘가 추가된 형태를 보여준다.

(3) 다른 한자어로 대역된 경우

(a) <漢 03:35a> 祚肉 / 祭肉 / kesi yali / ambarame wecere de dele alime gaire doboho yali (크게 제사지낼 때 임금이 받아 얻는 공물로 바친 고기) [禮部 祭祀類 一則]

(b) <漢 04:38a> 倉皇急奔 / ———走ᄒᆞ다[2] / buceme susame / bata

gidabufi tuheme afame facihiyašame burulara arbun (적을 제압해서 거꾸러뜨려 공격하여 황급히 달아나는 모양) [武功部 征伐類 六則]

(3)의 예는, 표제 한어와는 다른 한자어가 대역 어휘로 제시된 유형의 예이다. 표제 한어가 이해 가능한 어휘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역 어휘로 제시된 한자어는 적어도 표제 한어보다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어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혹은 표제 한어의 의미를 보조하기 위한 유의어로서 제시되었을 수도 있다.

(3b)는 대역어의 일부가 표제 한어를 옮겨 온 것인데, 새로 덧붙은 한자를 통해 새로운 어휘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어에 '하다, 하는 것' 등의 표현을 덧붙여 표제어의 품사가 결정된 형태는 역시 같은 유형으로 보았다.

(4) 한문으로 작성된 풀이형 대역

(a) <漢 02:09a> 光祿大夫 / 正一品階 ○ 以下文官階 / doro de aisilaha amban / bithei hafan i jingkini uju jergingge (문관 정 1품계인 자) [諭旨部 封表類 一則]

(b) <漢 14:07a> 貍 / 似野貓而色黑 / ujirhi / malahi de adali bime boco yacikan ilhū bederi bi (삵과 비슷하면서 색은 다소 검고 세로 줄무늬가 있다) [獸部 獸類 五則]

(4)의 유형은 한문으로 단어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기술된 내용은 만문 전석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때의 한문 풀이는 『漢』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漢』의 한문 풀이와 동일한 것을 수록한 사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4a)는 신주의 형태가 단독 어휘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표제어의 대체 가능한

2 이 예에서처럼 표제 한어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인 줄표가 표제 한어의 글자 수와 동일하지 않을 때의 정확한 용법은 『漢』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미상 앞 글자부터 순서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역어라 할 수 없다. 이 역시 표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어로 작성된 어휘 제시형 대역

(a) <漢 06:08a> 瘦 / 여위다 / turga / niyere kanggili niyalma (유약하고 마른 사람) [人部 容貌類 七則]

(b) <漢 05:04b> 弩弓 / 소뇌 / fitheku beri / igen akū beri de songgiha tabufi sirdan be fitheburengge ○ buthašara afarade gemu baitalambi (弓弭 없는 활에 밀쇠를 꽂고 화살을 채우게 한 것 ○ 사냥할 때, 싸울 때 모두 사용한다) [武功部 軍器類 三則]

(c) <漢 08:44b> 獨佔 / 혼자 가지다 / emhulembi / niyalma de saliburakū emhun ejelembi ○ doosi gamji sere gūnin (남에게 몫을 주지 않고 혼자 차지하다 ○ 탐욕스럽다는 뜻이다) [人部 貪婪類 一則]

(d) <漢 04:49a> 按脖子蹳脚 / 목을 누루고 죡치다 / meifen be gidaralame tasihimbi / beyei baru tatame gajifi meifen be gidahai tasihimbi (몸을 향하여 당겨 가지고 목을 누른 채로 족치다) [武功部 撩跤類 一則]

한국어로 작성된 신주 역시 대역 어휘를 제시한 경우와 정의식 풀이를 사용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5)의 예는 그 중 어휘로 대역된 유형이다. (5a)는 고유어 단어로, (5b)는 한글로 표기한 한자어로 대역되었다. 한자어라는 의미에서는 (5b)가 (3)의 예들과 다르지 않겠지만, 한자로 쓰지 않아도 이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면에서 두 경우가 구분된다. (5c)는 단독 어휘는 아니지만 단일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휘 대역으로 보았다.

(5d)는 정의식 풀이와 다소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만문 표제어가 연어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어구를 직역한 형태가 정의식 풀이와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신주의 대역 구조가 만문 표제어의 직역에 가깝다면 어휘 대역으로 보았다. 구 형태의 표제어 4437개 중에 571개는 직역 형태의 대역을, 489개

는 한국어 개별 어휘 형태의 대역을 보인다. 다른 경우는 풀이식 대역이다.

(6) 한국어로 작성된 풀이형 대역

(a) <漢 03:09b> 脚絆 / 죄인의 발에 얽는 쇠 사슬 / sideri / weilengge niyalmai bethe de tabure selei muheren (죄 지은 사람의 발에 채우는 쇠로 된 고리) [政部 刑罰類 二則]

(b) <漢 04:43a> ∅ / ∅ / šab sib seme / 여러 살 쏘는 소릭 ○ geren niyalma temšeme gabtaha agūra i asuki (여러 사람이 다투어 쏜 무기의 기척) [武功部 步射類 二則]

(c) <漢 06:17b> 養志 / 부모의 뜻대로 효양ᄒᆞ다 / mujin be ujimbi / ama eme i gūnin serebure onggolo tosome acabure gūnin serebuhe amala dahame yabume mutembi (부모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 짐작하여 합당한 뜻이 드러난 후에 따라 행할 수 있다.) [人部 孝養類 一則]

(6)의 유형이 풀이식 대역의 예들이다. (6a)에서 확인되듯이 풀이식 대역의 내용은 대부분 만문 전석을 번역한 것이다. (6b)는 신주가 생략된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한어 표제어를 생략하면서 신주가 수록되는 2단이 함께 생략되고, 만문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 주석은 만문 주석과 함께 4단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표제항 내의 구조는 한국어 주석이 4단에 배치되어 신주 단인 2단이 생략된 형태이지만, 『漢』의 독자적인 풀이가 반영되어 있어 한국어 정의식 풀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예는 19개 어휘가 발견된다. (6c)는 (5d)와 대조된다. 만주어 표제어가 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5d)가 연어구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직역 구조라면 (6c)는 전석의 내용을 반영하여 번역된 것이다.

(7) 신주가 생략된 경우

(a) <漢 07:52a> ∅ / ∅ / baliya / 笑人不能事之語 ○ baita mutebuhekū niyalma be basume hendumbihede baliya sembi (일을 능히 하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말할 때 baliya라 한다) ○一云 waliyaha [人部 鄙薄類 一

則]

(b) <漢 13:51b> 鴟鴞 / ∅ / yabšahū / 上同 [鳥雀部 鳥類 五則]

마지막으로 (7)의 예들은 신주가 생략된 유형이다. (7a)는 물리적으로는 (6b)와 같은 구조이다. 한어 표제어가 생략되어 있고, 신주가 위치했어야 할 2단이 함께 생략되었다. 『增』의 한어 대역어는 전석과 함께 4단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6b)의 4단에 함께 배치된 표제어의 의미 주석 부분이 한국어 풀이라면, (7a)는 『增』의 한어 대역어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즉, 『漢』의 독자적인 풀이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주가 생략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7b)는 신주와 만문 전석이 함께 생략되고, 이전 표제항의 의미와 같다는 표지인 '上同'이 표시된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유형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漢』 12,758개 어휘의 신주를 분류했을 때, 『漢』의 전체적인 대역 양상은 <표 19>와 같이 정리된다.

<표 19> 신주의 유형별 비율(%)

한자			한글		생략
한자 어휘		한문 풀이	한국어 어휘	한국어 풀이	
표제어 동일	한자어				
9.4	2.4	20.3	42.1	23.1	2.6

문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자를 사용한 비율은 32.2%이며, 한글로 작성한 비율은 65.2%이다. 어휘 대역과 풀이식 대역으로 구분하면, 대역 어휘를 사용한 경우는 54.0%이며 풀이식으로 대역한 경우는 43.4%이다. 즉 전체적인 경향은 한글로 작성된 한국어 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휘 대역과 풀이식 대역의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어휘 대역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점언어인 표제 한어

가 목표 언어로 활용된 비율도 9.4%에 달하며, 이 표제 한어의 개별적인 어형을 반드시 독립적인 단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표제 한어를 활용한『漢』의 태도는 개별 어휘화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6d)와 같은 연어구의 직역식 대역도 어휘 대역이 아니라 풀이식 대역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어 어휘 대역의 비율은 37.6%, 풀이식 대역의 비율은 27.6%가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전체 어휘 대역 비율은 49.5%이며, 풀이식 대역의 비율은 47.9%로 바뀐다. 비율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은 일관적인 지침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역 방식의 차이가 부류별로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표 20>)

의미 부류에 따라, 예를 들면 청의 관직명을 수록한 부류에서는, 표제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의 대역이나, 관직명의 역할을 풀이식으로 서술하는 대역이 선호된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외교나 공식 문서를 다룰 때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람의 신체나 일상에 관계된 부류에서는 해당하는 고유어를 제시하는 빈도가 높다. 이와 같이 대역 방식과 관련된 부류별 차이의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역 방식에 나타나는 비일관적인 태도 차이는, 엄격한 방침이 없이 표제어의 어휘 속성에 대한 대역자의 직관적인 판단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漢』의 대역 방식이 일관적 방침이 아니라 대역자의 임의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각 대역에서 어떤 언어를 활용하였는지를 결정할 때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임의의 기준을 논증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개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역하는 태도를 근거로 대역 방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 20> 부류별 대역 유형(%)

	한문			한국어		생략
	대역식		풀이식	대역식	풀이식	
부류명	동일한자	한자어	한문			
天部	3.9	2.3	28.0	44.7	19.1	1.9
時令部	4.7	5.9	31.5	45.3	12.2	0.4
地部	4.7	2.5	12.9	51.7	23.8	4.4
帝王部	23.5	0.0	74.5	2.0	0.0	0.0
諭旨部	7.3	5.5	77.1	4.6	5.5	0.0
設官部	3.7	3.9	86.8	3.9	1.5	0.2
政部	10.7	3.5	31.6	38.2	13.9	2.1
禮部	7.0	5.1	53.5	20.3	13.6	0.5
樂部	4.3	0.7	68.8	21.0	5.1	0.0
文學部	9.0	6.4	49.9	26.9	7.2	0.8
武功部	4.1	4.6	17.1	35.2	37.7	1.4
人部	13.0	1.5	4.2	49.7	24.7	6.9
僧道部	21.4	12.9	8.6	20.0	37.1	0.0
奇異部	36.7	10.0	0.0	40.0	13.3	0.0
醫巫部	12.8	10.6	2.1	48.9	25.5	0.0
技藝部	6.9	8.6	3.4	44.8	36.2	0.0
居處部	12.7	3.3	43.8	26.4	13.6	0.2
産業部	6.5	2.3	8.8	49.0	33.4	0.0
烟火部	1.3	2.7	1.3	52.0	42.7	0.0
布帛部	20.6	0.4	1.5	50.7	26.8	0.0
衣飾部	7.5	0.2	0.7	57.2	34.3	0.0
器皿部	7.9	1.3	2.3	58.4	29.9	0.2
營造部	2.4	0.0	0.0	58.4	39.2	0.0
船部	4.8	1.6	1.6	30.6	61.3	0.0
車部	0.0	0.0	0.0	47.1	52.9	0.0
食物部	5.5	0.4	0.4	63.3	30.4	0.0
雜糧部	2.1	0.0	0.0	80.9	17.0	0.0
雜果部	16.5	3.3	17.6	54.9	7.7	0.0
草部	5.1	5.1	32.3	47.5	10.1	0.0
樹木部	9.9	0.0	24.2	49.7	16.1	0.0
花部	1.6	0.8	79.4	13.5	4.8	0.0
鳥雀部	2.8	0.8	41.3	36.6	14.6	3.9
獸部	4.9	0.0	45.8	33.3	13.2	2.8
牲畜部	3.7	0.0	6.8	45.6	42.5	1.4
鱗甲部	6.6	0.0	9.4	69.8	14.2	0.0
蟲部	7.2	2.4	1.2	67.5	18.1	3.6
補編	23.0	6.4	61.0	2.6	5.7	1.2
	9.4	2.4	20.3	42.1	23.1	2.6

(8) (a) <漢 06:56a> 喜 / 一 / urgun / hūturi fengšen isanjihangge (복과 행운이 이르러 온 것) [人部 喜樂類 一則]

(b) <漢 06:56a> 喜悅 / 깃거ᄒᆞ다 / urgunjembi / sain baita de gūnin selambi (좋은 일에 뜻이 만족스럽다) [人部 喜樂類 一則]

(8)의 *urgun*과 *urgunjembi*는 신주가 서로 다른 언어로 대역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뻐하다'의 명사형이 고유어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喜悅'이 새로 생성되어 당시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어 한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喜'에 대해서는 한어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喜悅'에 대해서는 고유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대역 방식에 차이를 보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유어의 존재와 관계없이 표제 한어를 사용한 것은, 언어나 개념의 등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 수월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표제 한어의 의미가 다른 대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국어 사용자에게 이해가능하며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지 않을 때, 추가적인 대역어의 제시 여부는 온전히 작업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a) <漢 13:32a> 花 / 곳 / ilha / yaya orho moo i bongko ci fushume ilakangge ○ jai tubihe moo i ilha oci gemu tubihe be dahame gebulehebi (무릇 풀과 나무의 봉오리에서 벌어져 피어난 것 ○ 또 과일 나무의 꽃은 모두 과일을 따라 이름 부른다) [花部 花類 一則]

(b) <漢 13:32a> 蠟梅花 / 黃梅 / suwayan nenden ilha / cikten fangkala gargan labdu ilha suwayan ayan i adali inu sunja fiyentehe (줄기가 낮고 가지가 많다. 꽃은 노랗고 밀납 같으며 또 다섯 장이다.) [花部 花類 一則]

(c) <漢 13:41a> 菊花 / 葉有尖角花有各色九月始花而甚香 / bojiri ilha / cikten den fangkala adali akū abdaha jofohonggo ilha de hacingga boco bi uyun biyade ilambi bolgo wangga (줄기가 높고 낮음이 같지 않다, 잎은 뾰족하고 꽃에는 각종 색이 있다 9월에 핀다, 맑은 향이 난다) [花部 花類 五則]

(9)의 예 역시 마찬가지이다. (9a)에서는 고유어 대역어를 제시하고, (9b)에서는 한자어를 제시했으며, (9c)에서는 백과사전식 설명으로 대역을 대체한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9b)는 조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형의 꽃 이름을 친숙한 한자어로 대체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9c)와 같이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역어를 제시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또한 (9a)와 (9c)의 경우는, (9b)와 마찬가지로 한자 표제어를 그대로 옮겨 오는 형식인 '一'를 글자 수대로 제시하였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漢』신주의 목표언어와 대역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침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단지 한자어가 대역어로 제시된 경우에 한해, 표제 한어보다 대역 한자어가 당시 조선에 더 익숙한 어휘형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a) <漢 09:22b> 御道 / 御路 / dasaha jugūn / hūwangdi tucifi yabure jugūn (황제가 나와서 다니는 길) [居處部 街道類 一則]
(b) <漢 10:66b> 素 / 無紋 / gulu / yaya fiyan akū ilha akūngge (무릇 빛깔이 없고 무늬가 없는 것) [布帛部 采色類 三則]

(10)의 예들을 보면,『漢』신주의 한자어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한자어의 형태로 제시된 대역의 예이다. 그러나 두 예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 (10a)는 대역어 '御路'가 한자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御道'보다 사용자에게 나은 대역어이기 때문에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표제 한어를 보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이기 때문에 제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0b)는 이보다 더 불분명한 면이 있다. '無紋'이 '素'의 대역어인지 아니면 뜻풀이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목표언어의 측면에서 신주는 조선의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정체성이 최대한 발현되어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와 한문이, 사용자의 것인 한글 및 한국어와 그 용도에 있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휘 대역과 풀이식 대역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나 어휘 대역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목표언어의 다층적 사용과 복잡한 신주의 구성은 적은 지면에 최대한의 정보를 담으려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2. 대역방식

지금까지의 논의가 신주의 물리적 유형이 드러내는 대역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살피려는 것은 신주의 내용에 나타나는 대역 방식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漢』의 대역은 거시구조의 의존적이라는 점과 기점 어휘의 문법 정보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며 화용론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사용자 집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5.2.1. 구조의존적 대역

『漢』대역 방식이 거시구조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개별 단어의 표제항 내에 있는 정보만으로 표제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제어와 함께 배치되어 있는 주변 단어들의 관계나 표제어의 위치 자체가 해당 어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 의존적 대역의 전제는, 표제어의 배열 자체가 의미 부류별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11) 上同

<漢 13:64b> 驚伏 / 놀라 업씌다 / kūlimbi / yaya gasha gelefi ekisaka oho (무릇 새가 놀라서 잠잠해졌다) [鳥雀部 飛禽動息類 二則]

<漢 13:64b> 伏藏 / ∅ / kirimbi / 上同 [鳥雀部 飛禽動息類 二則]

(11)는 上同의 경우이다. 만문 표제어 *kirimbi*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어 표제어인 '伏藏' 이외에 동일 표제항 내에 다른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漢』에서 上同으로 주석된 어휘들은, 一云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增』의 전석에서도 앞 단어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의미를 풀이한 경우였다. 즉 저본 본래 항목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다 하여도 上同과 제시되는 정보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上同인 어휘들은 해당 표제항이 독립적인 의미 전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친절한 의미 기술 형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주석 처리는, 해당 어휘의 사용 맥락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인 형태로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석은, 곧 해당 단어가 사용 빈도나 기능에서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일한 사용 환경에서 대체 가능한 형태라는 정보도 제공한다. 어휘형이 유사한 경우에는 두 단어 사이의 경쟁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12) 어휘 무리에 의존한 대역

<漢 09:64a> 祿米倉 / 貯俸祿在皇城內屬戶部下至本裕倉並同 / kesi bele i calu / gemun hecen i dolo bisire boigon i jurgan i caliyan i bele asarara calu i gebu (황성의 안에 있는 가호의 부원의 세금으로 쌀을 저장하는 창고의 이름)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a> 南新倉 / ——— / julergi ic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a> 舊太倉 / ——— / fe amba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a> 富新倉 / ——— / elgiyen ic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興平倉 / ——— / aifin yendebur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海運倉 / ——— / mederi juwer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北新倉 / ——— / amargi ic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太平倉 / ——— / amba elh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萬安倉 / ——— / ten i elh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裕豐倉 / ——— / elgiyen tumin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儲濟倉 / ——— / tusa arame iktambure calu / ∅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漢 09:64b> 本裕倉 / ——— / da be elgiyen obure calu / 以上淸註同祿米倉 [居處部 部院類 十二則]

(12)는 12개 창고의 이름이 무리 지어 나열되어 있는 예이다. 가장 앞에 있는 '祿米倉'의 신주에는, 표제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本裕倉' 항목까지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本裕倉' 항목에서는 만문 전석의 4단에, '本裕倉'까지의 단어들은 만문 전석의 내용이 '祿米倉'과 동일하다고 다시 한 번 기술하였다.[3]

(12)는 이러한 신주 기술로 인해 '祿米倉' 아래 11개 단어의 의미를 해당 단어의 표제항 내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형식의 대역 기술은, 해당 단어의 의미 풀이가 크게

3 최계영(2015:89 각주10)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실제 『增』의 전석과는 다르다. 이 단어들의 만문 전석이 동일하다고 기술한 것은 『漢』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어휘 무리의 한어 표제어는 만주어 표제어의 직역에 해당하며, 한어의 의미가 만주어의 의미에 그대로 대응된다. 『漢』 편찬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어휘의 만주어형에 대응되는 한어형에 대한 정보로 충분하며, 해당 창고에서 보관할 곡식이 어느 지역 가호의 곡식인지 등에 관한 정보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구조에 의존한 이와 같은 의미 기술은 해당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 정보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어휘의 사용 빈도나 학습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대역 방식이 가능한 것은, 『漢』의 체재가 의미 부류별로 배열되어 있는 사전이기 때문이다.

표제어들이 의미 부류별로 모여 있는 것은,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해당 표제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전 편찬자들의 표현 능력의 부족이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든 단어들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표제어가 배열된 거시구조가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13) <漢 08:50b> 漢人氣 / 한인의 즛ᄒᆞ다 / nikacilambi / nikan durun i arbušambi (한인 모양으로 행동하다) [人部 鈍繆類 一則]

*nikacilambi*의 전석은 의미 내용을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사전 이용자가 해당 단어만을 검색한다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한인의 행동이나 행색을 따라한다는 부정적이거나 우스꽝스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단어에 추가적인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변 어휘들의 의미 부류와 그 속에서의 해당 단어의 위치이다.

(14) *nikacilambi*가 속한 어휘 무리

<漢 08:50b> 慊貨 / 죠흔 것 구경 못 ᄒᆞᆫ 이 / ongton / sabugan be sabuhakū niyalma (세상의 여러 시류를 본 적 없는 사람) [人部 鈍繆類 一則]

<漢 08:50b> 屯頭 / 촌스러온 이 / ongtori / doro sarkū albatu niyalma (예를 모르는 거친 사람) [人部 鈍繆類 一則]

<漢 08:50b> 漢人氣 / 한인의 즛ᄒᆞ다 / nikacilambi / nikan durun i arbušambi (한인 모양으로 행동하다) [人部 鈍繆類 一則]

<漢 08:50b> 粗糙 / 좀ㅅ되다 / muwa / gisun yabun albatu (말과 행동이 거칠다) ○ 擧止粗糙 muwašambi [人部 鈍繆類 一則]

<漢 08:50b> 執繆 / 우기다 / murimbi / beyei babe memerefi eteki seme marambi (자기 입장을 고집해서 이기려고 거스르다) ○ 執繆人 murikū [人部 鈍繆類 一則]

<漢 08:50b> 扭彆 / 틀리다 / murin tarin / kani akū ijishūn akū (부합하지 않고 순하지 않다) [人部 鈍繆類 一則]

*nikacilambi*의 전후에 위치해 있는 단어들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이 단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단어가 포함된 부류가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인 유형의 부정적 어휘가 아니라 촌스럽거나 좀스러운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의미별 분류 사전의 거시구조가 어휘 의미 해석에 기여하는 또 다른 장점은 다의어 처리에서 드러난다. 사전 편찬자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요소 중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의어에 관한 것이다. 다의어는 사용 환경이나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 관계에 따라 확장된 의미를 갖는 어휘이기 때문에, 다의어의 여러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과 어휘 결합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어휘의 확장된 의미가 많을수록 표제항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한 표제항 내에 나열되는 여러 의미의 차이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다의어의 확장된 의미는 하나의 표제항 안에 수록되지만 동음이의어는 표제항을 구분하게 되며, 이 때 두 단어가 동음이의어라는 확신이 편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반면 의미 부류별 분류 사전은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가 환경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해당 의미 부류마다 출현하며, 동시에 부류의 의미 속성에 의해 제한된 맥락을 갖게 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간의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휘가 제한된 문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휘 의미가 문맥에 따라 확장된 의미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유추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15) 다의어

<漢 02:59b> 煩難 / 通稱 어렵다 / mangga / yaya baita icihiyara de ja akū (어떤 일이 처리하기에 쉽지 않다) [政部 繁冗類 一則]

<漢 04:42a> 善射 / 잘 쏘다 / mangga / beri cira durun hocikon sindara bolgo goire fulu (활이 단단하고, 모양이 보기 좋고, 놓는 것이 깨끗하고, 맞추는 것이 많다) [武功部 步射類 一則]

<漢 05:15b> 弓硬 / 활 세다 / mangga / beri hūsun etuhun (활이 힘이 세다) [武功部 製造軍器類 二則]

<漢 06:32b> 剛强 / 굿세다 / mangga / erdemu hūsun niyalma ci lakcaha (재주와 힘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人部 勇健類 一則]

<漢 10:16b> 貴 / 노다 / mangga / yaya jaka hūda wesihun (어떤 물건이 값이 귀하다) [産業部 貿易類 一則]

<漢 12:60b> 硬 / 세다 / mangga / uhuken de bakcilaha gisun yaya fili fisin jaka (무른 것의 반대인 말, 단단하고 빽빽한 것) [食物部 軟硬類 一則]

(15)는 『漢』에 수록된 다의어 중 형용사 *mangga*의 예이다. 사물의 굳기나 가격, 일의 성격, 사람의 성격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의미로 활

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 의미의 구체적인 어감은, 각 부류 내에서 전후에 배열된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16) 동음이의어

<漢 01:50a> 方 / 四方之一 / dere / dergi wargi julergi amargi (동쪽, 서쪽, 남쪽, 북쪽) [地部 地輿類 十三則]

<漢 05:49a> 臉 / ᄂᆞᆺ / dere / niyalmai šan yasa angga oforo baktakangge (사람의 귀와 눈과 입과 코를 포함하고 있는 것) [人部 人身類 二則]

<漢 08:20b> 想是呢 / ᄒᆞ여시리라 / dere / kenehunjere mudan uttu dere tuttu dere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의심하는 소리, uttu dere, tuttu dere 하는 등의 말에 사용한다) [人部 猜疑類 一則]

<漢 11:33a> 桌 / 상 / dere / duin ergide daibihan dulimbade undehen fejile duin bethe sindame weilehengge ○ jai efen tubihe be dere de jergi jergi den sahame dasifi[S:dasafi] sarin yengsi de tukiyerengge (네 면 틀과 가운데 널, 아래에 네 개의 다리를 놓아 만든 것 ○ 또 떡이나 과일을 상에 층층이 높이 쌓아 차려서 잔치에서 올리는 것) [器皿部 器用類 二則]

(16)은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예이다. 이 단어들은 일부나 전체가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어휘에서 파생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어휘 간의 관계는『漢』의 수록과 대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수록과 대역에서 보이는 유연성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알파벳 순서의 사전과 대조된다.

『漢』이 보이는 구조 의존적 대역 방식은, 사전의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편찬 목적에 의해 강화되었다. 의미별 분류 사전이라 하더라도, 각 단어의 표제항은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구조 의존적 대역 방식을 의미 부류별 분류 사전이 갖는 본래의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漢』은, 표제어의 수를 줄이고 표제항의 부피를 줄이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어휘 정보의 공백을, 분류 사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배열 방식에 의한 지지 구조를 활용하여 메우게 된다.

표제항 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쩔 수 없이 지면의 양이나 편찬자의 기술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한계에 의한 것이든, 편찬자가 제공하지 못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거시구조를 염두에 둔 대역 방식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2.2. 화용론적 맥락 중심의 대역

최계영(2016)에서는『漢』의 신주를 등가성의 측면에서 검토하며,『漢』의 대역어가 기점언어와의 의미 등가성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등가성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漢』의 대역어가 문법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문법 정보에 우선하여 화용론적 정보를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문법 정보에 대한『漢』의 태도는 특정한 사용자 집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어휘 간의 등가성은, 각 어휘가 지시하는 지시물 및 개념의 일치에서부터 어휘의 사용 맥락과 문법 기능의 측면까지 모든 면에서 일치할 때 완전한 등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언어사전은 차치하고 일언어사전의 경우라 할지라도, 표제어와 표제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 완전한 등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표제어에 완전한 등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어휘는 표제어 자신밖에 없으며, 이것이 동일 언어의 어휘라 하더라도 의미와 기능 면에서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다른 어휘는 그 언어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

다. 그러한 어휘의 존재는 잉여적이며 어휘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어휘 간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된다. Hartmann ed. (1983, 하트만 2008:235에서 재인용)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는 개념 체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단어의 의미 역시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지시물과 함께 언어 기호를 차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 체계에 편입된 어휘는 새로운 언어 환경과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본래의 의미와 기능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漢』에서 활용한 것처럼 표제어의 기호를 그대로 대역에 사용한 경우에, 두 기호는 완전한 등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두 기호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어렵다. 즉, 어휘의 대역은 완전 등가가 아닌 부분적 등가가 전제된 행위이며, 대역 어휘의 구성은 완전 등가에 가깝게 가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이다.

이언어사전 대역의 최소한의 상태는 각 어휘의 의미가 등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점언어 어휘가 지시하는 개념이 대역의 형태이든 설명의 형태이든 목표언어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언어사전으로서는 최소한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의미 등가성은, 기점언어 어휘와 대역어간의 교체 가능성보다는 기점언어의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의미 등가를 이루고 있는 대역어들 중에 담론 상에서 교체가 가능한 어휘와의 등가 관계를 번역 등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 등가성은 반드시 의미 등가를 전제하지는 못한다. 동일한 개념과 어감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각 언어의 문법적 특성과 언어 특수성은 언어에 따라 저마다의 형태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번역 등가성은 이언어사전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Hornby

(Hartmann 1986:214)는 사전의 경우에는 번역 등가성은 이룰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번역 등가성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것이지 단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언어사전의 번역등가를 한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전성기(2003)는 이중 언어 사전의 대역어를 번역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표제어와 대역어가 의미 등가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번역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을 암시한다. 대역어가 표제어의 직역 형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담론을 고려한 화용론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등가, 즉 담론을 반영한 어휘의 등가 관계는, 표제어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수동적인 외국어 사전에서는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사용자는 해당 표제어가 번역어의 어느 형태에 대응되는 것인지 찾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대부분의 어휘가 번역 등가 관계를 염두에 둔 대역어만을 제시하고 있다면 학습이 불가능한 사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학습 대상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갖춘 전문가 집단이라면, 번역 등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역어는 맥락을 포함한 어휘의 이해와 응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의 생산력을 신장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휘의 의미 등가가 이언어사전의 대역어가 획득하려 목표하는 것이라면, 번역 등가는 사용자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도,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의 문법적인 요소 즉 어휘의 기능과 담론상의 용법을 포함한 등가 관계의 대역어를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기점언어 어휘의 지시적 의미에 충실한 대역어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사전의 목적과 사전이 전제하고 있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휘의 등가 관계 유형에 따라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의 선택은 사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점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목적인 사전이라면, 기점언어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역어를 제시할 것이며, 목표언어로의 번역이 목적인 사전이라면 목표언어의 특수성이 고려된 대역어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에 따라 이언어사전의 단일방향성과 양방향성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언급되었지만 *fali*나 *komso*와 같이 삭제의 근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단어들이 『漢』에 수록되지 않은 것도, 사전 이용 대상을 전문가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법 형태소에 대한 기술 없이 제외된 여러 파생어들 역시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전제한다면 삭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용자 집단에 대한 고려는 어휘의 대역 방식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漢 01:23b> 十一月 / 陽生之月 / omšon biya / juwan emuci biya (열한 번째 달) [時令部 時令類 五則]

(17)의 신주는 만문 전석이나 한어 표제어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omšon biya*에 대한 이와 같은 풀이는 다른 만주어 사전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周易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해석으로, 陽이 생기는 것은 동지이고 동지가 있는 달이 11월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역은 『漢』 편찬자들의 지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주어 지식과는 무관한 것이기도 하다. 저본인 『增』에도 없으며 단어의 의미와도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러한 대역이 가능한 것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대역해 놓지 않아도 『漢』의 이용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의 이용자가 한어와 만주어에 대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제한됨에 따라, 『漢』의 신주에서 가장 소홀히 다

루어지는 부분은 문법 정보이다. 물론 기점언어의 문법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대역어에도 반영된다.

(18) 만주어의 품사가 대역어에 반영된 예

(a) <漢 05:35b> 乞丐 / 거ᄋᆞ지 / giohoto / buda giohame ergen heture niyalma (밥을 빌며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 [人部 人類 五則]

(b) <漢 11:08b> 衣服不隨身 / 옷 맛지 아니타 / kušun / etuku adu jiramin mangga haihū akū (옷이 두껍거나 질겨서 부드럽지 않다) [衣飾部 衣服類 四則]

(c) <漢 11:48a> 那些 / 져리 만히 / tutala / yaya aldangga bisire jaka labdu be jorime henduhengge ○ tere gese labdu sere gisun (무릇 멀리 있는 물건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 저것 같이 많다 하는 말) [器皿部 多寡類 一則]

(18)의 예들은 기점언어인 만주어의 문법 형태가 한국어 대역에 반영된 예들이다. 두 언어 사이에 문법적인 불일치가 수반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만주어의 품사는 대역어에도 그대로 대응된다. (18a)는 명사가 명사로, (18b)는 형용사가 형용사로, 그리고 (18c)의 부사는 부사형으로 대역되었다.

(19) 동사의 서법이 대역어에 반영된 예

(a) <漢 06:34a> 叫名 / 일홈 부르다 / gebulembi / niyalmai gebu be hūlambi (남의 이름을 부른다) [人部 名聲類 一則]

(b) <漢 06:37a> 沒麼 / 업ᄂᆞ냐 / akūn / yaya jaka be akū aise seme fonjire gisun (어떤 물건이 혹시 없는가 하고 묻는 말) [人部 問答類 一則]

(c) <漢 07:52a> 被笑話 / 우이이다 / injebumbi / niyalma de basubumbi (남들에게 비웃음당하다) [人部 鄙薄類 一則]

(d) <漢 10:63a> 劈繩線 / 노 풀라 / debkele / araha futa tonggo be bederebu sembi (꼬아 놓은 끈을 되돌리라 한다) [布帛部 絨棉類 一則]

(19)는 동사의 예이다. 이 동사들이 표시하고 있는 서법 역시 대역어

에 반영이 되어 있다. (19a)는, *-mbi* 형의 동사가 '-다' 형태의 기본형으로 대역된 것을 보여준다. (19b)는 의문형이, (19c)는 *-bumbi*는 피동형이, 그리고 (19d)의 명령형 또한 한국어 대역어에 반영되어 있다.[4]

그러나 기점언어의 품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0) 만주어 표제어의 품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a) <漢 01:10b> 焦雷 / 급ᄒᆞᆫ 우레 / kiyatar seme akjambi / amba akjan i kiyak sere jilgan (큰 천둥이 쩍 하는 소리) [天部 天文類 四則]

(b) <漢 05:49a> 後奔顱 / 쑥뒤 내미다 / gunggu / ujui amargi den (머리의 뒤가 높다) [人部 人身類 一則]

(c) <漢 06:29b> 合 / 一ᄒᆞ다 / acan / niyalma i emgi uhelerengge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된 것) [人部 親和類 一則]

(d) <漢 07:06a> 氣的吐沫 / 셩급ᄒᆞ여 게거품 흘리다 / fošor seme / niyalmai ambula obongginame jili banjiha arbun (사람이 크게 거품을 물며 화가 난 모양) [人部 怒惱類 一則]

(e) <漢 11:49a> 稠密 / 빅빅ᄒᆞ다 / fik seme / fihefi umesi labdu be fik seme jalukabi sembi (가득 차서 몹시 많은 것을 fik seme 차 있다고 한다) [器皿部 多寡類 一則]

(f) <漢 12:48b> 請嚐 / 먹기 청ᄒᆞ다 /angga isi / wesihuleme jefu serengge (공대하며 먹으라 하는 것) [食物部 飮食類 一則]

(20a)는 동사형을 가진 만주어 단어가 명사형으로 대역되어 있고, (20b)는 형용사가 동사형으로 대역되었다. (20c)의 명사형 단어는 동사형으로 대역되었다. 부사형인 (20d)와 (20e)는 각각 동사형과 형용사형으로 대역되었는데, (20d)는 서술식 대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품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20f)는 명령형 어구가 평서형 풀이로 대역되었다.

---

4 엄밀히 말하자면 *-mbi*에 대한 대역형도 시제나 상이 반영되지 않은 대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mbi*형은 마치 동사의 기본형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실은 현재 시제 혹은 미완료상의 어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제나 상적 정보의 측면에서는, 만주어의 과거 시제 혹은 완료상이 한국어에 반영되어 대응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5]

(21) 대역어에 완료상이 나타나는 예

<漢 01:21b> 尙未 / 못 ᄒᆞ엿다 / unde / yaya isinjire tucinjire onggolo (어떤 것이 이르러오거나 나타나기 전) [時令部 時令類 三則]

<漢 07:03b> 完了/ 通稱 ᄆᆞᆺᄎᆞᆫ다 / waliyaha / amcame nasara mudan (따라서 한탄하는 소리) [人部 悔嘆類 一則]

<漢 08:49b> 沒見過時面 / 시톄예 것 보지 못 ᄒᆞ엿다 / sabugan be sabuhakū / umai buyecuke sain jaka sabuhakū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 [人部 鄙瑣類 一則]

<漢 08:66b> 尙未 / 아직 못 ᄒᆞ엿다 / unde / yaya wajihakūngge (어떤 것을 끝내지 않은 것) [人部四 散語類 三則]

<漢 12:48b> 喫了 / 먹엇다 / jeke / yaya jetere jaka be jeme jabduha (어떤 먹을 것을 이미 먹었다) [食物部 飮食類 一則]

<漢 12:59b> 腐爛了 / 석엇다 / niyahabi / yali buda i jergi jaka ubame efujembi (고기나 밥 등의 것이 상해서 망가지다) [食物部 飮食類 一則]

<漢 12:59b> 酸了 / ᄉᆡᆫ엇다 / jušekebi / yaya jaka jušuhun oho (어떤 것이 시게 되었다) [食物部 飮食類 一則]

(22) 만주어의 완료상이 대역어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

<漢 04:39a> 殺盡 / 뭇질너 죽이다 / kiyarime waha / suntebume waha (사라지도록 죽였다) [武功部 征伐類 七則]

<漢 06:29b> 熟了 / 通稱 닉다 / urehebi / niyalma umesi gūlika (사람이 몹시 마땅한 수준이 되었다) [人部 親和類 一則]

<漢 08:04b> 眼迷了 / 눈에 몬지 드다 / yasa sohiha / yasa de icihi dosifi

---

5 완료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동사 표제어에 초점을 맞추어 상적 특성을 밝힌 연구로는 박상철(2015)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ha 표제어의 일부가 뜻풀이에서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漢』의 대역어를 과거 시제에 대응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만주어 동사 표제어들이 시제를 반영하지 않은 무표적 시제 체계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즉 -ha 형을 시제 표지가 아니라 상 부류 표지로 본 것이다.(박상철 2015:153) 그러나 여기서『漢』의 대역어에 완료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만주어 표제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漢』대역어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jurabumbi (눈에 티가 들어가서 껄끄럽게 된다) [人部 疼痛類 一則]
<漢 09:13a> 活了 / 다시 사다 / weijuhe / yaya bucefi dasame aituha (어떤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醫巫部 醫治類 一則]

(21)은『漢』에서 한국어 대역어에 완료상 혹은 과거 시제가 반영된 예의 거의 전부이다. 이 중에서도 *unde*는 동사가 아님에도 과거형으로 대역하였다. 그러나 (21)을 제외한 과거형이나 완료상의 어휘들은 모두 (22)와 같이 시제나 상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형으로 대역된다.

앞서 (20)의 예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 대역어들은 만주어 표제어보다 한어 표제어를 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표제어 사이에 명백한 개념의 차이가 없을 경우,『漢』은 기본적으로 한어 표제어를 직접적인 대역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20)에서 (22)까지의 예들은,『漢』의 신주가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문법적인 요소는 중시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언어상의 불일치로 인해 만주어 단어의 문법 정보를 대역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와 같이 만주어와 한국어 간의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불일치로 인한 것과 대비된다.

(23) (a) <漢 06:56a> 狠爽快了 / ᄀᆞ장 ᄉᆡ훤ᄒᆞ다 / se selaha / umesi selaha (몹시 만족스럽다) [人部 喜樂類 一則]
(b) <漢 08:08a> 病重 / 병 즁ᄒᆞ다 / ujelehebi / nimeme manggalaha ○ beye ujen ilici ojorakū oho sere gūnin (앓아 심각하다 ○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뜻) ○一云 manggalahabi [人部 疼痛類 三則]

(23)의 예는, 만주어의 동사형과 한국어의 형용사형이 대응되는 경우이다. (23)과 (22)의 차이는, (22)는 한국어에서도 동사형으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의 예들은, 한국어에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다.

결과적으로 『漢』은 어휘 대역에 있어서 문법정보에는 그리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원서인 『增』에는 없던 문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기술하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6] 동시에 문법적 설명 없이 삭제된 파생어들도 상당한 수였다. 즉 앞서 확인했던 문법 기술은 사용자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그보다는 파생어에 대한 삭제 근거로서의 기능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나마도 문헌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漢』이 문법에 소홀한 것이, 『漢』 편찬자들의 문법 의식이 빈약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만주어에 대한 엄격한 태도에 비해 한국어에 대해서는 규범의식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漢』의 사용자가 전문 역관으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대역어의 문법적 불일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다.

만주어 어휘의 시상 정보가 한국어 대역어에는 상적 요소가 아닌 어휘적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24) <漢 04:41b> 中 / 맛다 / goimbi / gabtara de tob seme hadanara fondo tucimbi (활 쏠 때 정확하게 박혀 뚫고 나온다) [武功部 步射類 一則]

<漢 04:41b> 中了 / 通稱 맛치다 / goiha / goime jabduha ○ geli aika maktara fahara de lak seme goire eici gūnin akū de tunggalabure be gemu goiha sembi (제대로 맞았다. 또 만일 던질 때 마침 맞는 것 혹은 의도치 않게 마주치게 되는 것을 모두 goiha라 한다.) [武功部 步射類 一則]

(25) <漢 12:17a> 完畢 / 일 못다 / wajimbi / yaya weilere arara jaka šanggambi ○ jai ekiyeme genembi (어떤 일하거나 만드는 것을 완성한다. 또는 사라져 간다.) [營造部 完成類 一則]

---

6 앞서 3.1.1.에서 문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며 표제어를 삭제한 경우에 대해 다루었다.

<漢 12:17a> 完了 / 다 못다 / wajiha / yaya weilere arara jaka heni eden ekiyehun akū yooni šanggaha (어떤 일하거나 만드는 것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결핍되는 것 없이 온전히 완료되었다.) [營造部 完成類 一則]

(24)의 한국어 대역어들은 어미를 활용한 미완료형 혹은 완료형 동사들로 볼 수 없다. (24)의 *goiha*와 (25)의 *wajiha*는 각각 *goimbi*와 *wajimbi*의 완료상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goiha*는 피동형으로 대역되었고 *wajiha*는 부사를 추가하여 완료의 의미를 강화시켰다. 이 예들은 한국어 상적 표현에 대한 무관심과는 달리 만주어 어휘의 상적 변화로 인한 미묘한 의미 차이는 온전히 반영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漢』은 만주어 어휘의 의미 정보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문법 요소에 대한 태도와는 다소 대조적이다.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의 예처럼, 어휘 의미의 상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맥락에 따른 대체형 즉 번역등가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26) <漢 03:06a> 寃枉 / 이미ᄒᆞ여라 / sui mangga / muribuha seme hendurengge (꼬였다 하고 말하는 것) [政部 詞訟類 一則]
<漢 12:50b> 帶喫不喫 / 먹ᄂᆞᆫ동 마ᄂᆞᆫ동 / cimkišame / heni heni amtan simten akū jembi (조금씩 조금씩 맛 없게 먹다) [食物部 飲食類 二則]

(26)의 두 예는 화용론적 대체형으로 볼 수 있다. 각 단어의 의미는 만주어나 한어의 직역형도 아니며 만문 전석을 풀이한 형태도 아니다. 이는 이 단어가 실제 사용될 담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체 가능한 대역형이며, 이러한 경우 번역 등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7) <漢 07:52b> 做夢呢 / 꿈 꾸ᄂᆞ냐 / tolgišambi / ulhicun akū niyalma be icakūšambihede tolgišambi sembi (무지한 사람을 마땅치 않게 여길

때 망상한다고 한다)

<漢 08:49a> 沒出息 / 못 될 놈 / dekjirakū / ainaha seme hūwašarakū (확신하건대 발전이 없을 것이다)

(27)도 유사하게 화용론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27)에서는 만주어 표제어의 문법 정보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맥락에 따라 변형 없이 그대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a) <漢 04:50a> 竟倒了 / 필경 너머지다 / fuhali / tamalime muterakū šuwe tuheke be fuhali tuheke se'mbi (넘어지다 서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진 것을 fuhali tuheke라 한다) [武功部 撩跤類 二則]

(b) <漢 06:58a> 好好的 / 조심ᄒᆞ여 잘 ᄒᆞ다 / saikan / yaya baita hacin be umesi kimci labdu olhošo sere be saikan kimci saikan olhošo sembi (어떤 일 종류를 몹시 살피라 많이 조심하라 하는 것을 saikan kimci, saikan olhošo라 한다) [人部 愛惜類 一則]

(28a)의 *fuhali*는 올바른 표제어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제어로는 부사만 제시되어 있지만 만문 전석과 한어 대역어는 *fuhali tuheke*를 표제어로 했을 때 더 적절하게 대응된다. 이 때 『漢』의 대역어도 *fuhali tuheke*에 상응하여 대역되었다. 반면 (28b)의 *saikan*의 대역어는 제시된 표제항만 보면 오역에 가깝다. 부사로서 *saikan*은 '아주 잘' 정도의 의미로 대역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漢』에서는 이 표제항이 포함된 주변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의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제항은 '조심하는 것'과 '잘못될까 우려하는 것'에 관련된 어휘 중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표제어가 실제 드러내려 한 개념은 *saikan kimci*나 *saikan olhošo*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漢』은 사용자가 만주어와 한어, 만문과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漢』의 사용자는 『漢』의 기본체재에도 익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漢』의 대역어는 사전의 구조와 만문 전석의 존재를 감안하고 최소한의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를 넘어 문맥과 담화 상황을 고려한 대체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3. 『漢淸文鑑』의 이중적 사전언어

『漢』은 세 개의 언어가 참여하고 있는 다언어사전이지만 하나의 기점언어에 두 개의 목표언어가 제시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기점언어를 하나의 목표언어가 풀이해야 하는 사전이다. 이렇게 한어와 만주어가 동시에 기점언어로 존재할 때, 『增』의 기점언어인 만주어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漢』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한어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표제어와 대역어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漢』의 신주는 기점언어가 두 언어일 때 발생되는 곤란함과, 목표언어가 두 언어일 때 가져오는 효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문어 한어라 할 수 있는 한문은 한국어와 구분 없이 대역에 사용된다. 또한 표제어인 한어 역시 대역어로서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 어형 그대로 대역에 활용된다. 이는 한어의 성격이 기점언어이면서도, 한문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목표언어로도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漢』의 신주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는 결국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부피로 최대한의 정보를 담아 전달하기 위한 목표로 수렴된다.

『漢』의 한어 표제어가 『增』에서는 만주어 표제어에 대한 한어 대역어였다는 것은 『漢』의 일차적인 기점언어를 만주어 표제어로 단정 짓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漢』에서 한어 대역어를 가장 상단의 표제어 위치에 배치한 것은, 『增』에서의 언어 관계와 달리 『漢』에서는 한

어를 기점언어로 설정하고 번역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게 한다. 또한『漢』은 당시 구어 한어였던 백화문에 대한 학습도 중요한 편찬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漢』에서의 두 기점언어의 위계는『增』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29) (a) <漢 07:05b> 有性氣 / 셩씌 잇다 / jilihangga / jili mangga niyalma(쉽게 화내는 사람) [人部 怒惱類 一則]
(b) <漢 14:14a> 四眼狗 / 네 눈 개 / durbe / indahūn i juwe yasai dele emte farsi šanyan suwayan funiyehe bisirengge (개의 두 눈 위에 하나씩 작은 뭉치로 하얗거나 노란 털이 있는 것) [牲畜部 諸畜類 二則]

(29)의 두 예문에서 신주는 한어를 직역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만일 만주어 어형을 직접적인 대역 대상으로 했다면 (29a)와 같은 경우는 '셩씌 잇는 이' 혹은 '셩씌 잇는 것'과 같은 어형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29b)는 정의식 풀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원서의 기점언어가 아니라 목표언어를 대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漢』의 대역어는, 마치 원서의 언어 위계를 역전시킨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漢』의 사전언어 관계가, 실제로 한어를 1차 기점언어로 재배치한 것인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한어를 대역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개념은 만주어 어휘에 두고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대역 대상이 한어 표제어라 하더라도, 원서인『增』의 언어 위계가『漢』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표제항의 구성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한어 표제어는 생략 가능하지만 만주어 표제어는 거의 생략되지 않기 때문이다.[7]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增』의 한어 대역어가 표제어의 위치에 놓이지 않고 전석 부분에 포함되기도 한다.[8]

---

7 만주어 표제어가 생략된 경우는 *gocimbi*의 예가 하나 발견된다.
8 고동호(2014:8-9)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의성어, 의태어들이다.

(30) 한어 표제어가 생략된 경우

<漢 08:65a> ∅ / ∅ / oho / 已然詞 ○ wajiha šanggaha sere gūnin sain oho ehe oho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마쳤다, 끝냈다 하는 뜻이다. sain oho ehe oho 등의 말에 사용한다.) [人部 散語類 三則]

<漢 04:43b> ∅ / ∅ / cur seme / 신긔젼 가ᄂᆞᆫ 소ᄅᆡ ○ cu niru i genere asuki (신기전의 가는 기척) [武功部 步射類 二則]

한어 표제어가 삭제되는 표제항의 공통점은, 한어 표제어의 성격이 개념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단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지의 여부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29a)와 같이 한어 표제어가 독자적인 어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漢』에서는 표제어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한어 표제어가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표제항을 관통하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어형이라면 그대로 표제어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어가 명백하게 메타 언어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표제어의 위치에서 내려 전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漢』의 一云 어휘나 소표제어의 수록이 만주어 어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 역시『漢』이 만주어를 제1 기점언어로 설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만주어 단어에 대해 동일한 한어형이 제시되었을 때 한국어 대역이 만주어를 따른다는 것 역시 기점언어로서 한어와 만주어의 위상 차이를 반영한다.

(31) <漢 06:48a> 分 / ᄂᆞᆫ호다 / dendembi / yaya jaka be ubu banjibume faksalambi (어떤 물건을 몫을 내게 하여 갈라 낸다.) [人部 分給類 一則]

<漢 06:48b> 分 / ᄆᆞ이 / ubu / faksalame neigen goibuha ton (갈라 내어 균등하게 맞춘 수) ○一云 ubu sibiya 又 ufuhi [人部 分給類 一則]

동일한 한자 표제어 '分'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한국어 대역어는, '分'의 여러 의미 중 일부를 임의로 대응시킨 것이 아니다. '나누는 행위'와 '나누어진 것' 양자에 대한 각각의 대역 어휘를 결정한 것은 만주어 표제어이다. 즉, 한어 '分'은 만주어 *dendembi*의 의미를 충실히 포괄할 수 있는 대역어이지만, '나누다'는 한어 표제어 '分'의 동사로서의 의미만을 반영할 수 있는 대역어이다.

다음은 언어 사이에 어휘 의미장에 차이를 보이는 예로 색채 언어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을 검토해 보겠다. 한국어 고유어인 '파랑'의 색채범위가 영어의 blue와 green을 포괄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사한 대응 관계가 만주어와 한어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32) <漢 10:65a> 綠 / 초록 / niowanggiyan / umesi niohon boco (아주 푸른 색) [布帛部 采色類 二則]
<漢 10:65b> 黑 / 검다 / sahaliyan / umesi yacin (아주 아청색) [布帛部 采色類 二則]
<漢 10:65b> 靑 / 아청 / yacin / sahaliyan boco (검은 색) [布帛部 采色類 二則]

우선 만주어에 대한 한어 대역어를 보면, *niowanggiyan*에 綠을 *yacin*에 靑을 대응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靑으로 대역된 *yacin*의 만문 전석은 검은색과 동일한 색으로 기술하고 있다.『漢淸文鑑』에서는 이의 대역어로 綠에 초록색을, 靑에 아청색을 대응시켰다.[9]

이를 아래 오방색으로 天干을 나타낸 단어들과 비교해 보자.

(33) <漢 01:18b> 甲 / 干之始 / niowanggiyan / juwan cikten i uju de bi a i moo (天干의 첫 번째에 있다. 陽의 木이다.) [時令部 時令類 一則]
<漢 01:18b> 丙 / 干之第三 / fulgiyan / juwan cikten i ilaci de bi a

9 연규동(2012:79-80)에서는 만주어의 색채어에 관한 연구를 통해, *yacin*이 한어 표제어 靑과는 상관없이 흑색으로 인식된 것임을 밝혔다.

i tuwa (天干의 세 번째에 있다. 陽의 火이다.) [時令部 時令類 一則]
<漢 01:18b> 戊 / 干之第五 / suwayan / juwan cikten i sunjaci de bi a i boihon (天干의 다섯 번째에 있다. 陽의 土이다.) [時令部 時令類 一則]
<漢 01:18b> 庚 / 干之第七 / šanyan / juwan cikten i nadaci de bi a i aisin (天干의 일곱 번째에 있다. 陽의 金이다.) [時令部 時令類 一則]
<漢 01:18b> 壬 / 干之第九 / sahaliyan / juwan cikten i uyuci de bi a i muke (天干의 아홉 번째에 있다. 陽의 水이다.) [時令部 時令類 一則]

천간은 甲, 乙이 청색, 丙과 丁이 적색, 戊, 己가 황색, 庚, 申이 백색, 壬과 癸가 흑색에 대응하며, 각 쌍들은 동일 색상의 채도 차이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甲에 해당하는 *niowanggiyan*은 채도가 낮지 않은 기본 청색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10]. 그렇다면 (32)의, 綠에 대응하는 *niowanggiyan*과 靑에 대응하는 *yacin*을 green과 blue의 대응이거나, 오역이라고 생각해서는 모순된 색채 어휘의 배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색채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11] green과 blue의 경계가 없는 언어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blue에 비해 green이 일반적으로 유형론적 위계가 높은 색이다. 즉 green이 없는 언어는 있지만[12], green이 없는데 blue가 있는 언어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언어 사용자들이 green과 blue라는 실제 색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green에 해당하는 용어가 blue의 색채 범위를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만주어 단어 *niowanggiyan*에 대한 한어 대역어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색상의 측면에서 *niowanggiyan*이 대표

10 『同文類解』에서는 *niowanggiyan*을 '푸루다'(26a)로 대역했다.
11 색채어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들은 Berlin & Kay(1969)에서 비롯된다. 이후 계속된 연구에 의해 세부적인 색채어의 위계 등의 이론적 보완과 수정이 거듭되지만, 색채어의 위계에 대한 중심 가설은 아직 부정되지 않았다.
12 Berlin & Kay의 기본 색채어 위계에 의하면, 'green'에 해당하는 색채어가 없다는 것은, 그 언어의 색채어가 'black, white, red'의 세 가지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색은 '綠'이지만, blue에 해당하는 색 역시 *niowanggiyan*이며[13], 한어의 '靑'은 이 색과의 변별을 위해 *niowanggiyan*의 범주를 벗어나는 검은 색에 가까운 짙은 청색인 *yacin*[14]에 대응시켰을 가능성이다.

녹색과 청색에 대한『漢』의 대역어는 한어 표제어와 만주어 표제어 사이의 불일치, 혹은 두 기점 언어의 색채어에 나타나는 색채 범위의 불일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어의 '綠'을 '초록'으로 명시한 것이나, '靑'을 '아청'으로 대역한 것은, 피상적으로는『增』의 한어 대역어와 만주어 표제어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표제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漢』대역어에 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漢』의 대역이 한어에 대해서이든 만주어에 대해서이든 정확한 대역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떤 맥락에서이든 대역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대역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漢』에서 삭제하지 않고 굳이 필요에 의해 수록한 어휘들의 대역을 오역으로 간주하고서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漢』대역어들의 정확성이나 오역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후의 연구들을 기대하며, 본고에서는 정확한 대역임을 전제한다.[15]

(34) <漢 10:65a> 月白 / 람빗 / guweciheri / fulenggi boco ci majige lamukan (잿빛보다 조금 쪽빛을 띰) [布帛部 采色類 二則]

---

13 만주어에서 청색은 기본적으로는 녹색으로 인식되었고, 청색 계열에 대한 독자적인 색채어는 없었다는 연규동(2012:80)의 판단과 일치하는 결론이다.

14 현대 국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색이 '야청색(늑아청(鴉靑))'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야청색은 '검은빛을 띤 푸른빛'이다.

15 오역이 없는 사전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류에 대한 편찬자들의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라도 피할 수 없는 오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inggeri šan*(鼠耳菜, 표고 12:39a)의 경우, 전석은 '*usin de banjimbi teni tucire dambagu i abdaha i adali yaya sogi ci erde tucimbi jušun muke arambi* (밭에서 자란다. 막 나온 담뱃잎과 비슷하다. 어떤 채소들보다 일찍 나온다. 식촛물을 만든다)'이다.『同文類解』에서도 *singgeri šan*(02:04a)을 '표고'로 대역했지만, 해당 한어는 '香蕈'이다. 이러한 경우,『漢』의 '표고'가『同文類解』로부터 계속 되어 온 오역인지, 18세기의 '표고'가 현대와는 전혀 다른 식물을 가리켰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漢 10:65b> 藍 / 一 / lamun / giyen i adali boco (쪽 같은 색) [布帛部 采色類 二則]

<漢 10:66a> 灰色 / ── / fulenggi boco / šahūn boco de sahahūkan boco suwaliyaganjaha (흰 색에 다소 검은 빛이 아울러 섞인 것) [布帛部 采色類 三則]

(34) 역시 색채어들의 예이다. 만주어 *lamun*은 한어 '藍'을 차용해 만든 어휘로 보이며,『漢』은 한어 표제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한어인 '藍'의 의미가 한국어로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16] 반면 *guweciheri*에는 '람빗'을 대응시켰다. *guweciheri*의 의미는 잿빛에 가까운 듯하지만, 정작 잿빛에 대응되는 것은 *fulenggi boco*이다. 그리고 *guweciheri*는 『御』에서는 *kuwecihe boco*(비둘기색 15:09b)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을 『增』에서 어형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同文類解』에서는 *kuwecihe boco*(月白 02:25b)는 '남'으로, *lamun*(深藍 02:25b)은 '디른남'으로 대역했다.

『同文類解』와 『漢』의 대역어들을 비교해 보건대, *guweciheri*는 회색보다는 남색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guweciheri*와 *lamun* 사이의 색채 경계를 한국어의 색채어로는 명확하게 표현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색채어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기점언어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한어 대역어가 만주어 표제어의 의미역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漢』의 대역어는 만주어 어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2 기점언어인 한어는 또한 목표언어로도 활용된다.『漢』의 신주에 별개의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고 줄표를 통해 표제 한어를 그대로 사용하

16 한어 표제어를 그대로 대역어휘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고유어가 없기 때문이라거나, 해당 한어가 당시 한국어에 이미 편입된 한자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고유어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풀어 기술한 경우나, 해당 한어가 독립된 한자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표제 한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거나 그래도 무방할 때, 혹은 차용어 등의 경우 굳이 다른 대역 어휘를 제시하지 않은 정도의 편의적인 대역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는 것은, 기점언어인 한어 어휘가 목표언어로도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5) 표제 한어를 대역어로 활용한 경우

(a) <漢 04:29b> 精兵 / ── / siliha cooha / sonjoho sain cooha (선발한 좋은 병사) [武功部 兵類 一則]

(b) <漢 08:38a> 言過其實 / ─── / dababumbi / kūwasadame gisurembi (과장하여 말하다) [人部 欺哄類 一則]

(c) <漢 11:15b> 牛皮 / ── / ihaci / ihan i sukū (소의 가죽) [衣飾部 皮革類 二則]

(35a)는 한어 표제어가 독립된 단어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고유어가 없으며 한어 어휘가 당시 조선에서도 한자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5b)는 한어 표제어가 독립적인 단어라고 볼 수 없다. (35b)에서 별도의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상응하는 고유어가 없어 풀이식 서술이 불가피하면서 한어 표제어의 기술이 이해 가능한 경우 굳이 재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표제 한어를 한국어에 포섭된 한자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35c)는 '소가죽'과 같은 고유어형을 쓸 수 있음에도 한어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牛皮' 역시 당시 한국어 한자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어휘가 고유어를 대체할 만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즉 (35)의 예들은 한어 표제어의 활용 여부가 상응하는 고유어의 존재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한어 표제어가 이해 가능한가의 여부 즉 목표언어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33a)의 경우와는 달리 메타 언어 형식이 아닌지의 여부만이 결정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역 어휘를

제시할 지 여부를 가름할 엄격한 기준은 발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漢』의 두 기점언어는, 『增』과 마찬가지로 만주어를 제1 기점언어로, 한어를 제2 기점언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제어의 의미 속성은 제1 기점언어인 만주어 어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문자와 언어로 인한 접근성은 제2 기점언어인 한어가 높다. 따라서 대역 방식에 대한 범례 2조의 모호한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두 표제어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문어 한어에 대한 지식으로 표제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한어 표제어를 직역하고, 한어 어휘를 통해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만주어 어휘의 의미를 대역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6.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의의

하나의 사전을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전(dictionary)'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사전의 정의에 따라 해당 문헌이 분류되기 이전에 분류 대상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Yong & Peng (2007:1)에서는, 사전을 철자, 발음, 단어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 목록이나 단어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전 편찬자들이 사전에 정의한 '사전'의 개념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적이고 좁은 의미의 사전이라 설명한다. Yong & Peng의 기술은 사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전을 단순한 참고서로 보지 않고 텍스트로서의 기능과 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사전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전의 일관적인 분류 체계 수립에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일례로, 하트만(2008:2)은, '사전이란 한 언어 및 그에 상대되는 다른 언어의 의미, 발음, 철자 등에 대한 길잡이로서 일반적으로 알파벳순으로 이루어진 단어 목록이자 참고서'라고 정의한다. 사전 편찬자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전(辭典)'을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트만의 정의가 한 언어만이 아닌 여러 언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는 사전에 수록되는 어휘가 존재하는 모든 어휘가 아닌 선택된 것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 나면, 이들 정의 속에는 '사전'에 요구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 첫째로 어휘 목록이어야 하며, 둘째로 일정한 배열 순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의미, 발음, 어원, 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대상 문헌이 사전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인지 선택 가능한 것인지는 사전 연구자나 사전 편찬자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듯하다.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어떤 문헌은 사전 이전 형태로 평가되기도 하고, 사전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전에 요구되는 요소들이 엄격하게 필수적인 것들이라면, 이러한 필수 요소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전 편찬사는 사전 발달사로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전학계에서는 사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수많은 문헌들이 사전으로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전의 유형론적 분류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사전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정보에 관한 요소들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의의를 고찰하기에 앞서 사전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한국의 사전이나 어휘집에 관한 연구에서 『漢淸文鑑』의 위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학계에서는 조선의 근대화 이전에 간행된 전통적인 사전들 전반을 어휘집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근대화 시기 서양인들에 의해 편찬된 '대역사전'들과의 대비가 전제된다.[2] 또한 전통적인 어휘집들은 다시 '유해류'나 '물명류' 등으로 하위분류되지만, 유해류도 물명류도 아닌 문헌들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 속에서 『漢淸文鑑』은 조선의 사전 편찬사에서 곧잘 누락된다.

---

1 국내 학자들의 사전에 대한 정의는 엄격한 편이다. 일례로 이승재(2008)에서는 표제어의 音相을 기술하지 않은 것 즉 注音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전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음성 정보가 수록된 梁나라 고야왕의 『玉篇』이 중국에서는 최초의 언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발음정보는 일부 어휘에만 국한시켜 제시하고 어원정보는 수록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한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의 태도와 다소 대조적이다.(하영동 2007) 안재원, 김현권(2006:14-15)도 사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羅鮮小字典』에 대해 '라틴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 학생을 위해 집필된 도서로, 엄밀한 의미의 사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종의 학습용 단어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데, 이 문헌이 라틴어 어휘에 대한 대역어와 문법 정보까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단어장과 사전의 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국어사학회의 2015년 겨울 학술대회에서, '조선시대 어휘 자료집의 종합적 검토'라는 대주제 아래 '물명류', '유해류', '어록해류',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으로 하위 주제를 설정한 것이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임지룡(1989)에서는 조선관역어에서부터 현대의 우리말 갈래사전에 이르기까지 물명류와 유해류를 포함하여 총 23종의 분류사전을 편찬사의 관점에서 개괄하였지만, 『漢』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배주채(2009)에서는 『鷄林類事』(1104)에서 『한국어 학습 사전』(2006)까지 국내에서 간행되어 온 국어사전의 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이 중에 『漢淸文鑑』은 포함되지 않았다.

『漢淸文鑑』은, 『譯語類解』를 필두로 『方言類釋』까지 분명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해류들과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류에 대한 연구에서 『漢淸文鑑』이 누락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3] 그러나 유해류를 포함한 근대 사전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배제되는 것은, 국내의 전통적인 사전들을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준이 아직 자리매김 되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해류'나 '물명류' 등과 같이 문헌명에 따라 분류된 명칭은, '대역사전'과 대조하여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서양인들에 의해 편찬된 '대역사전류'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전통적인 어휘집들도 대역사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대역사전들과 서양인이 편찬한 대역사전들은 편찬 주체나 시기, 사전의 형태적 특징, 표제어의 성격, 표제항에 포함된 정보의 양상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비교와 평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검토는 근대 이후 조선의 사전 유형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밀한 기준의 수립과 검토 없이 이들을 어휘집과 사전으로 대립시켜 구분하는 한, 전통적인 사전들은 평가절하 되거나[4] 세계 사전들에 대한 유

---

3 정광(1978)은 『譯語類解』, 『同文類解』, 『蒙語類解』, 『倭語類解』의 4종 유해류에 대해 서지와 체재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연규동(1996)은 이 네 유해류와 『方言類釋』을 포함한 사역원 유해류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이다. 이 연구들에는 공통적으로 『漢淸文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이지영(2009:79)에서는 『韓佛字典』과 유해류의 사전적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그 근거로 유해류가 역학서의 어휘집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인 성격의 표제항을 수록한 데 비해서 『韓佛字典』은 좀 더 일반적인 사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해류의 표제항이 '제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유해류는 『韓佛字典』에 비해 표제어 수는 적을 수 있지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전반에 걸친 어휘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항의 성격을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게다가 근

형론적 연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의 사전들은 세계 사전사와 사전 유형론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의 사전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과 관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漢淸文鑑』의 사전학적 특성을 개별 문헌의 성격을 통해 고립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전 편찬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계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6.1. 사전사적 위치

사전의 탄생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문자와 관련이 깊다. 문자의 시작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문자를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사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전이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은 문자로 기록된 어휘이며, 이때 그 어휘를 기록한 문자는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속성이 없어야 대상화되어 사전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는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 황하 유역과 인더스 강 유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최초의 형태가 발견되지만, 사전 형태가 문자를 기능적인 도구로 인식했던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사전은 당연하게도, 특정 개념이나 문자 형태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 만들게 된다. 인류 최초의 사전인 수메르 지역의 사전은 이언어사전이며, 이는 다른 언어와의 접촉이 사전의 필요에 일차적인 조건 중 하나였음을 알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언어의 변화 역시 사전의 탄생에 주요한 조건이 된다. 동일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

본적으로 유해류는 표제어가 한어이기 때문에,『韓佛字典』의 한자어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어의 변화는 이전 시기 어휘의 의미나 소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참조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즉 동일한 언어나 문자에 대한 것이든 다른 언어나 문자에 대한 것이든, 사용자들의 시점이나 상황에서 쉽게 알기 어려운 언어 형태의 존재가 사전을 탄생하게 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6.1.1. 근대 이전의 서양 사전

하트만(2008:19)에서는, 사전 제작의 역사에서 이언어사전이나 다언어사전이 일언어사전에 선행되어 왔는데, 서유럽 전통 속에서 사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해 왔는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콜리슨, 1982)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사전의 주요한 목적이 어휘 형태에 대한 참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기술될 수 있다.

기억을 돕기 위한 보조 목적으로 낯선 언어형을 기록하고 목록화하는 행위는, 초기에는 독자적인 문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간략한 부속 문헌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어휘 목록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문헌으로 독립하게 된다. 어쩌면 초기의 어휘 목록과 사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문헌의 독립성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은 사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형의 차이를 내재한다. 최초의 요구는 낯선 언어형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 이 낯선 언어형은 외국어이거나, 고어이거나, 또는 문헌에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일 수 있다. 이는 초기의 사전들이 보편적으로 대역사전이나 난해어 사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물론 사전의 유형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인류 최초의 사전 형태로 꼽히는 수메르어-아카드어 사전(기원전 2340년 경)은, 24개 점토판에 쓰인 9,700여 개의 대역 어휘 목록이다. 동일한 쐐기 문자로 쓰여 있지만 분명한 이언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수메르 지역에서 정치적 패권은 장악했으나 문화적으로는 열등했던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쐐기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수메르어에 대한 학습과 참조의 필요성을 느꼈음을 반영한다(Green 1996:40-41).

이러한 대역사전은 이후 일상적인 모국어 어휘를 위한 일언어사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주로 상위 문화어인 라틴어를 위한 대역사전으로 나타난다. 8세기 경 영어가 등장하는 최초의 사전 형태는 라틴어 성경 보급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경전이나 고전을 읽기 위한 주석 어휘 목록인 난해어 사전이면서 대역사전의 성격을 보인다. 10세기 경 작성되었을 Ælfric의 『Glossary』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라틴어 문법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고 의미 부류별 분류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Jackson 2002:147) 그리고 중세 유럽의 각국에서는 17세기까지 라틴어 대역사전을 주로 간행하게 된다.

일언어 사전도 난해어 사전의 형태로 출발한다. 고전기 그리스 시대의 『glossai』라는 최초의 사전 부류도 호메로스 시의 어휘들에 대한 주석 목록이었으며, 그리스 최초의 사전이라 할 수 있을 『Lexeis』(기원전 200년 경) 역시 마찬가지이다.(Green 1996:42) 최초의 영영 사전인 Robert Cawdrey의 『A Table of Alphabetical』(1604) 역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어휘에 대한 해설서이다.(Jackson 2002:33) 최초의 아랍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Kitãb al-ʿAyn』(8세기 후반)도 이슬람 경전 어휘의 주해서이다.

난해어에 대한 주석 어휘 사전의 형태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일반적인 자국어 어휘에 대한 풀이 사전이 등장하는 것은, 민족적 자각과 민족어 의식이 자리 잡은 이후이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성경의 모국어 번역과 함께 성장한 민족의식은, 라틴어 문법서를 모방한 자국어 문법서들의 발

간과 자국어 사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다.

스페인에서는 1611년 『Tesoro de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가 발간되고, 이탈리아에서 뒤를 이어 『Vocabolario』(1612)가 출판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어 사전에 대한 기획과 착수는 163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지만, 편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1680년에 와서야 『Dictionnaire françois』가 간행되었다.(하영동 2014) 그리고 독일에서 라틴어로 풀이된 독일어 사전(『Der Teutschen Sprache Stammbaum und Fortwachs oder Teutscher Sprachschatz』, 1691)과 난해어 사전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국어 일반 어휘에 대한 사전을 제작한 것은 그림 형제의 『Deutsches Wörterbuch』(1878)에 와서이다.(안삼환 2004) 영어로 기술된 영어 사전의 전통은 1604년부터이지만, 난해어나 방언,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 어휘를 위한 최초의 영어 사전으로는 J.K.의 『A New English Dictionary』(1702)가 꼽힌다(권혁승 2003:241, Béjoint 2010:60).

근대 이전 서양의 사전 편찬 과정은, 인류의 지적 욕구가 확대되는 자연스러운 과정과 중요한 문화적 분기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역사를 통해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 출현하여 자리 잡은 근대적 언어 사전 유형은, 이후 서양의 제국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 보급되어 현대 사전 유형의 전형을 이룬다.

6.1.2. 근대 이전의 중국 사전

대역사전이나 난해어 중심 사전으로 나타나는 초기 서양 사전의 유형들은 중국 사전사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5] 주변 지역

5 일상어 중심의 자국어 풀이사전 탄생 이전의 시기를 편의상 초기로 지칭한다. 사전사에서 사전 유형에 따른 시기 구분은 아직 수립된 바 없다.

언어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사전이나 고전이나 경전의 난해어를 풀이하기 위한 난해어 사전이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간행된다. 이처럼 어휘의 성격에 따른 초기 사전의 유형은 서양과 중국에서 모두 보편적인 필요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사전과 중국의 사전은 문자의 성격으로 인해 본질적인 유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라틴 문자로 기술된 서양 사전의 기술 대상은 표음화된 어휘형이지만,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 사전의 기술 대상은 문자 자체와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 모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기술 대상이 문자 자체인지, 문자의 의미인지, 문자의 지시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문자에 대한 기술이 곧 문자가 표상하는 어휘 개념에 대한 기술로 인식된다.

따라서 서양 사전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일상어 중심의 자국어 사전의 출현이 중국 사전사에서도 동일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어의 일상어는 곧 수많은 한자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들에 귀속되며 이들은 또한 중국 사전의 시초에서부터 현대의 사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중국 사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6]

서양 사전사에서는 어휘의 선정이나 어휘를 기술하는 방식이 사전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면, 중국의 사전은 문자를 분류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중국 사전의 주된 유형은 1음절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문자의 의미, 문자의 형태, 문자의 음성형을 기준으로 한 類書, 字書, 韻書로 발달한다.[7] 그리고 2음절 이상

---

6 일상어휘를 표현하는 기본 한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곧 일상어 중심의 자국어 사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어 사전이 아닌 이상 구어 한어는 20세기까지 중국 사전의 기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중국 고전에 일찍부터 나타나는 2음절 이상의 한자어도 난해어 사전에서만 다루어진다. 중국 최초의 속어 사전으로 東漢 말『通俗文』이 편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고 음의서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지만 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 전체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7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것을 類書로, 언어 사전의 성격이 강한 것을 小學書로 분류하며, 소학서에는 한자의 의미를 풀이한 訓詁書, 한자의 형태를 기술한 字書, 한자의

의 어휘들은 訓詁書와 音義류를 포함한 난해어 사전과,[8] 주변국이나 주변 지역의 어휘를 수록한 외국어 사전들의 기술 대상이 된다.[9]

지금까지 중국 최초의 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爾雅』(기원전 3세기)는 백과사전이면서도 언어사전이며,[10] 기본적으로는 경전의 어구에 대한 주석 어휘집이다(박형익 2012:64-78). 『爾雅』의 원전은 전하지 않으며, 정확한 편찬 시기와 편찬자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爾雅』의 서명과 수록 내용, 그리고 『方言』(기원적 1세기 경)이나 字書들의 출현과 그 사전들의 성격을 검토했을 때 진나라의 문자 통일 작업이 중국 사전 편찬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1]

중국 사전사에서 『爾雅』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爾雅』의 의미별 어휘 분류 체계는 이후 類書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되며, 조선의 전통적인

발음을 기준으로 배열한 韻書가 있다.(박형익 2012:59-60) 그러나 이는 중국 사전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훈고'는 古字와 古語를 현대어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서 풀이하는 것(박형익 2012:63)으로, 字書는 곧 字體에 따라 분류한 훈고서(박형익 2012:32)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字書는 '한자의 의미를 풀이한 책'으로 일반화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類書나 韻書가 모두 자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자를 배열한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의미를 기준으로 한 類書와 자형을 기준으로 한 字書, 소리를 기준으로 한 韻書로 중국의 사전을 분류하며,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의 구분이 필요할 때 類書는 백과사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중국 사전에서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된 언어사전을 가리킬 수 있는 용어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8 훈고서의 기술 대상이 난해어는 아닐지라도 기술 방식을 중시하여 훈고서를 난해어 사전류로 보았다. 音義류와 표제어의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난해어 사전의 표제어는 1음절 한자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9 중국 사전사에서 외국어 사전류는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하던 시기라 하더라도 문자에 반영된 언어를 단일 언어로 볼 수 있을 지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국의 '외국어 사전'이라는 표현은, 지역 방언을 포괄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고대 중국을 단일한 언어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전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爾雅』에서 나열된 동의어들이 방언형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 즉 『爾雅』에 대해 외국어사전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으며, 『方言』을 중국 최초의 외국어 사전이라 볼 수 있다.

10 백과사전으로서의 성격 또한 중국의 『爾雅』를 포함한 초기 사전들의 공통점 중 하나이다. 최초의 라틴어 사전으로 여겨지는 Marcus Terentius Varro의 『De lingua Latina』(기원전 1세기 경)는 언어를 포함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부류를 기술한 사전이다.(Green 1996:44-45, 안재원, 김현권 2006:8)

11 중국의 字書는 진나라의 문자 통일 사업인 '書同文字' 정책의 결과이다. 진나라는 중국 각국에서 사용하는 俗體字를 폐기하고 正體字로 문자를 통일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자서를 편찬하고 보급하도록 하였다.(박형익 2012:97-98) 그리고 『爾雅』나 『方言』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어휘 사전에도 계승된다. 『爾雅』의 어휘 기술 방식은 훈고학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일상적 어휘 사용을 중시한 의미 분류의 한자 사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문자를 형태별로 분류한 최초의 사전은 『說文解字』(121)이다[12]. 『說文解字』에서는 부수법을 통해 한자를 분류하고 배열했으며, 문자의 형태를 근거로 문자의 의미를 해설한다. 그리고 『玉篇』(543)은 음성 정보가 최초로 수록된 자서이며, 중국의 자서는 지속적인 발달을 거쳐 청나라 시기의 『康熙字典』(1716)으로 집대성된다.

문자의 음성형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전인 韻書는 중국 성운학의 발전과 한시를 짓기 위한 압운자를 참조해야 할 필요성을 통해 나타난다. 『玉篇』에서도 한자의 발음은 반절의 형식으로 표시되지만 문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문자의 형태이다. 운서는 한자의 음성 중에서도 성조를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삼아 한자를 배열한 사전이다. 남북조 이전 시기에 제작된 운서는 전하는 것이 없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운서는 수나라 때의 『切韻』(601)이다.[13]

2음절 이상의 어휘 사전은 서양의 초기 사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고전과 고어를 이해하기 위한 주석서 형태의 난해어 사전과 외국어 대역사전들이 해당되며, 외국어로 된 경전의 유입은 이 두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사전을 요구하게 된다.

고전의 난해어를 대상으로 한 사전은 『爾雅』 이후의 훈고서들과 『經典釋文』(568년)을 비롯한 音義류(이승재 2008:12)를 들 수 있다. 音義류는 해당 경전의 본문에 기술된 순서로 표제어가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제어형은 1음절어에서 다음절의 어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훈고서의 어휘들은 의미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제어는 1

---

12 『說文解字』가 부수별로 한자를 배열하기는 하지만, 각 부수 내에 수록된 표제어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칙을 특정해내기 어렵다. 부수별로 획수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기 시작한 것은 『字彙』(1615)에서부터이다.(박형익 2012:128-129)

13 당시 『切韻』에 표제자를 더하고 주를 단 운서로 널리 알려진 王仁煦의 『刊謬補缺切韻』이 돈황 사본으로 전하기도 한다.

음절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대에는 2음절 어휘만을 모아 편찬한『御定駢字類編』(1726)과 같은 사전도 나타난다.

외국어 사전의 효시는『方言』을 들 수 있을 것이다.『方言』은『爾雅』에 수록된 한자를 기준으로 의미를 보충하고, 각 한자가 사용되었던 나라(지역)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에서 외국어 사전은 독립된 유형을 이룰 만큼 활발하게 간행되지는 않는다. 주로 중국 주변민족에 대한 기록물에 부수적으로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독립적인 문헌 형태로 제작된 외국어 사전으로는 西夏어 대역 어휘사전인『番漢合時掌中珠』(1190)나 고려어 자료인『鷄林類事』, 명나라 시기의 외국어 대역사전인『華夷訳語』(1382)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어 사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간행된 것은 청나라 시기에 들어서이다.

외국어 난해어 사전의 주요한 유형은 당나라 시기 불교의 유입으로 전래된 불경의 어휘를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다.『翻譯名義集』과 같이 한자만으로 기술되었거나, 실담문자를 풀이한『悉曇字記』와 같은 문헌을 예로 들 수 있다. (Yong & Peng 2008: 369-375)

청나라시기에 편찬된『御製淸文鑑』(*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1708 序)은, 의미별로 분류된 언어사전의 공백을 채우는 사전이다. 그러나 이는 한자 사전이 아니라 만주어 사전이며, 만주어로만 기술된 일언어 사전이다.『御製淸文鑑』을 비롯하여 5언어 사전인『御製五體淸文鑑』(1794)까지의 일련의 淸文鑑은, 중국 사전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사전들이다. 유서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백과사전이 아닌 언어사전이며, 단어와 어구를 모두 표제어로 삼고 있지만 고전 난해어가 아닌 일상어 중심의 사전이다. 또한『御製淸文鑑』은 모국어의 보존과 규범성을 천명한 중국 최초의 사전이기도 하다.

건륭제 때 간행된『御製增訂淸文鑑』(1771 序)은, 더욱 강력한 규범 만주어 사전이면서 동시에 한어 대역사전이다.『御製淸文鑑』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통적인 사전 분류 체재에 맞추어 어휘들이 의미별로 분류되었

으며, 한어의 반절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二合切音, 三合切音 방식으로 음가를 표기하였다. 또한 이언어사전이면서 일언어 뜻풀이를 함께 수록하여 이언어사전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면서도 『御』의 고전 용례를 삭제함으로써 훈고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전이기도 하다. 『御製增訂淸文鑑』은 자국어 중심의 언어사전에 대한 필요와, 이중 언어 환경에서의 실용적인 목적을 반영하며, 중국에서 전승되어 온 사전 편찬의 전통까지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전이라 할 수 있다.

『增』 이후의 청문감은 다언어사전으로 발전하며, 일언어 뜻풀이는 더 이상 수록되지 않는다. 『御製滿珠蒙古漢字三合切音淸文鑑』(1780)은 『增』에 몽골어가 추가되었으며, 세 언어 어휘의 발음이 각각 다른 두 언어의 문자로 교차표기 되어있다. 『御製四體淸文鑑』(미상)은 티베트어가 추가되지만 사전의 유형은 각 언어의 대역어들만이 나열된 4개 언어 사전이다. 그리고 『御製五體淸文鑑』(1794)은 위구르어가 추가된 5개 언어 사전으로서, 『御製滿珠蒙古漢字三合切音淸文鑑』 이후 추가된 티베트어와 위구르어 대역 어휘에 대해서는 만문 전자 표기와 전사 표기를 함께 기술하였다.

6.1.3. 근대 이전 국내 사전 편찬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던 한국은 사전 역시 한어와 한자의 강력한 영향 속에 있었다.[14] 고전의 어휘를 이해하고 한자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자와 한어를 대상으로 한 사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주로 중국의 사전을 수입

14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자 영향권 아래 있던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사전편찬사를 보여준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일본 최초의 사전으로 여겨지는 『新字』(672-685 경?)는 중국 당나라 시기의 문자 정비 사업의 영향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한 일본의 초기 사전들은 한자와 한문 경전을 대상으로 한 자서와 운서, 고전 난해어 사전류로 시작되며, 『新撰字鏡』898-901) 이후 漢和사전이 간행되기 시작한다.(오미영 2008)

하거나 국내에서 복각해 사용했으나, 7세기 말엽 신라에서는 불경의 어휘에 대해 '順憬 音義'와 '璟興 音義'와 같은 音義류가 독자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이승재 2008)

국내에서 사전이 적극적으로 간행된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이다. 한글로 주석이 기술되어 가장 먼저 간행된 사전은 운서인 『東國正韻』(1447)이며, 난해한 한자어 주석집 형태의 어휘집 『(老朴)集覽』(1517 이전)과 한자 학습서 『訓蒙字會』(1527)가 간행된다.(박형익 2012) 즉 한국의 사전은 한자의 소리와 뜻에 관한 일종의 주석서 혹은 대역사전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사전 분류 체계 역시 중국 전통적인 사전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서양인에 의한 외국어 사전이 나타나기 전의 조선의 사전은 한자 사전류와 어휘 사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자 사전류는 다시 한자 학습서와 자전류, 운서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어휘 사전류는 난해어 주석집과 외국어 구어 사전류로 분류할 수 있다.[15] 물론 『芝峯類說』(1614)을 비롯하여 유서류와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는 백과사전류가 있지만 언어사전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한다.

중국 최초의 사전이면서 유서, 훈고서, 자서의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爾雅』는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이미 활용되었다. 중국의 유서들과 한국의 사전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의미별 분류사전의 전통은 『爾雅』 분류체계의 영향력을 반영한다. 한자의 형태에 기반한 자전류와 한자음을 중심으로 편재되는 운서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어휘 사전류는 의미별 분류사전 체재를 벗어나지 않는다.

유서의 분류 체계를 따르는 국내의 어휘 사전들을 유서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16] 유서는 중국의 경서, 사서, 자서, 시, 부 등의 여

---

15 박형익(2004:525-527)에서는 운서와 옥편류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을 분류어휘집으로 묶어, 한국의 분류어휘집을 한자분류어휘집, 이중어·다중어 분류어휘집, 물명 분류어휘집, 방언분류어휘집, 어휘 분류 사전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방언분류어휘집과 어휘분류사전은 1900년대 이후에 간행된 부류이다.

16 홍윤표(2000:279-280)에서는 유서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전류를 유서로 분류한

러 책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찾아보기 쉽게 편집한 책들을 총칭하며, 보통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한 책을 이른다.(박형익 2012:59-60) 중국의 유서는 문자의 특성으로 인해 언어사전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서라는 명칭 자체는 언어사전의 하위 부류로 범주화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어휘 사전이 유서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유서로 분류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낳기 쉽다.

특히 조선의 전통적인 어휘 사전들은, 일관된 기준 없이 문헌명에 의해 관습적으로 분류되면서 '사전이 아닌 어휘집'으로 인식되고, 서양인들에 의해 편찬된 대역사전들부터가 진정한 '사전'의 시작인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17] 그러나 조선의 사전을 대상으로 어휘집과 사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데 성공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배주채(2009:11-13)의 구분에 따르면 사전은, 어휘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 발음, 예문, 관련 표현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어휘집과 사전을 구분할 기준으로 (1) 표제어 목록의 완결성(정해진 범위 안의 표제어를 빠짐없이 수록했는가), (2) 표제어 및 언어정보 검색의 용이성, (3) 언어정보의 정확성, 다양성, 상세함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을 덜 충족한 것을 어휘집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어사전에 대한 논의에 어휘집과 사전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배주채(2009)에서 제시된 기준을 막연하게나마 어휘집과 사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기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로 제시된 표제어 목록의 완결성은, '정해진 범위'의

듯하다. 이에 따르면 훈몽자회와 같은 한자학습서나 유해류 등의 외국어 대역사전들을 모두 유서로 보아야 한다.

17 홍종선(2008:119)에서 근대 전환기 이후인 대역 사전 시기와 구분하여 그 이전 시기를 대역 어휘집 시기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조남호(2016:189)에서는 '사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간행된 것이라 해도 어휘집으로 볼 수준의 것도 없지 않다'고 언급한다. 곽충구(2006:35, 44)에서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시험적인 露韓辭典』)를 대역 어휘집 성격의 '최초의 노한사전이자 최초의 한국어 대역사전'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함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떠한 범위를 지정하든 그 범위 안에 속한 어휘를 빠짐없이 수록할 수 있는 사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정해진 범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로 제시된 검색의 용이성은, 사전과 어휘집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는 검색이 용이한 사전과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사전, 혹은 검색이 용이한 어휘집과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어휘집을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세 번째의 기준은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중 언어정보의 정확성은 사전이나 어휘집 이전에, 어휘에 대한 참조 기능을 갖춘 것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충족하고 있어야 할 요인일 것이다. 언어 정보의 다양성과 상세함이라는 요소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역시 '언어 정보가 덜 다양한 사전'과 '어휘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사전들을 어휘집과 사전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어휘수가 적다거나, 뜻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표제어 배열순서가 알파벳순이 아니라거나 하는 요인들은 모두 사전의 유형을 하위분류할 수 있는 요소로는 적용될 수 있을 테지만, 현대에 일반화된 사전의 유형을 따르지 않는 유형을 굳이 사전 아닌 것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

조선의 사전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명칭들을 편의상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 부류가 문헌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든 편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사전의 유형을 명칭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전 분류의 측면에서도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편의적이고 관습적인 지칭이 해당 유형의 문헌들을 연구 대상 외로 치부하게 만들거나 가치 폄하를 유도하게 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자 사전류에 속하는 한자 학습서는『訓蒙字會』나『千字文』등을 들 수 있다. 자전류와 달리 이 한자 학습서들은 표제어의 배열 순서가 유서의 체계와 큰 틀에서 일치한다.

자전류로[18] 최초로 간행된 것은 최세진의『韻會玉篇』(1537 이후)이다. 이후 국내에서는 옥편이라는 명칭이 보편적인 자전으로 인식되어 널리 간행되었다.[19] 옥편과 자전과 같은 한자 사전은 현대에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 운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중국의 운서를 수입하여 사용하며 이를 복각하기도 하였다.[20]『東國正韻』(1448)은 국내에서 제작한 최초의 운서이자 한글로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며, 중국 운서『洪武正韻』에 한글로 음을 단『洪武正韻譯訓』(1455)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洪武正韻譯訓』을 간략하게 편집하여『四聲通攷』(1455~1475 사이)가 편찬되나 전해지지는 않으며, 이를 보완한 것이 최세진의『四聲通解』(1517)이다. 운서의 간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조선 정조 때 간행된『御定奎章全韻』(1796)은 조선 말기까지 수정 복각되어 사용된다. (박형익 2012:151-186) 조선의 운서는 한자의 발음은 正音과 俗音을 모두 기술할 정도로 중시하였지만, 한자 사전류와는 달리 한자의 의미는 굳이 한글로 기술하지 않았다.

한자 사전류가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면, 어휘 사전류는 보편적인 양상을 띤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싹튼 모국어에 대한

---

18 '字典'이라는 용어는『康熙字典』(1716)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 일본, 한국에서 한자 사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된다. 즉 한자를 표제자로 선정하여 부수별로 배열하고 표제자에 대한 미시 정보들을 기술한 한자 사전을 의미한다.(박형익 2012:42-43)

19 중국의 옥편과 한국의 옥편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의『玉篇』(543)은 양나라 때 고야왕에 의해 편찬된 자서이며, 따라서 고유명사이다. 이는 당나라 때 상원본『玉篇』(674)으로 수정, 보완되고, 송대에 다시 증보되어『大廣益會玉篇』(1013)으로 간행된다. 조선에 수입되어 사용된 것은 이 송대의『大廣益會玉篇』이며, 이것이 이후 '옥편'이라는 보통명사의 유래가 된다. 한국의 '옥편'은 운서의 사용 편의를 위한 색인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으며(최세진『韻會玉篇』), 한자의 성조를 비롯한 음과 뜻을 모두 표기하는 자전이다.

20 고려 중기 이후 국내에서 사용한 중국 운서로는『禮部韻略』(1037)과 이후의 수정되고 증보된 '禮部韻略'들을 들 수 있다. 박형익(2012:148-157)에서 국내 '禮部韻略'의 이용과 복각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다.

인식이 성장하기 이전까지, 국내의 어휘 사전은 난해어 주석집과 외국어 사전으로 나타난다.

난해어에 대한 주석집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전술하였던 신라 시대의 '順憬 音義'와 '璟興 音義'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며, 『華嚴經』, 『楞嚴經』 등 고려 시대 불경의 卷末에 첨부된 音釋도 이 범주에 든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최세진의 『集覽』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物名이라는 서명이 있으나 『詩經諺解』의 어휘 주석집인 『葩經物名』(1613)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교 경전의 난해어를 풀어 별도로 묶은 『語錄解』(1657) 역시 난해어에 대한 주석 어휘집이라 하겠다. 이들은 각기 경전의 이해하기 힘든 한어 어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휘들의 속성이 구어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한다 하여도, 문헌의 간행 목적 자체는 구어 어휘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해어를 해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세기 실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物名類 역시 난해어 어휘집으로 볼 수 있다.[21] 특정 고전에서 어휘를 선별해 수록한 것은 아니지만,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어휘를 선정하고 풀이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구어 사전류는 소위 유해류로 지칭되던 부류이다. 『譯語類解』(1690)를 비롯하여 『同文類解』(1748), 『蒙語類解』(1748?), 『倭語類解』(1780 무렵)[22] 등 유사한 문헌명에 의거하여 유해류로 분류되어 왔으나, 유사한 체재의 구어 사전류에는 『方言類釋』(1778)과 『漢淸文鑑』(1779?)이 포함된다. 조선 시대가 한문에 익숙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문어인 한문과는 별도로 구어 한어에 대한 학습 필요성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제기되었고, 『老乞大』와 『朴通事』 같은 한어 회화집의 간행이 이러한 당시의 요구를 보여준다 하겠다.

---

21 정승혜(2014)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물명류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한 바 있다.

22 『倭語類解』의 간행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정광(1978:167)에서는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고, 성백인(1999:378)에서는 『同文類解』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전하는 『倭語類解』는 편찬자들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1780년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의 외국어 사전들은 공통적으로 표제어들이 의미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어 어휘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23] 이는 중국 사전 편찬 전통의 영향과 당시 지식인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사대 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어 사전들이 한어 사전에서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한자가 다른 언어 문자에 비해 훨씬 익숙한 문자라는 점, 편찬 주체가 동일한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의미별 분류 체계 속에서 어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외국어 사전들의 외형적 공통점은 실용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시구조의 의미별 분류 체계와 미시구조의 한어 표제어는, 어휘의 개념에 대한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미별 분류 체계는, 거시구조 상에서 해당 어휘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양상 속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어휘항목 내에서, 표제어가 상위 개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맥락과 일치한다. 즉, 한자를 통해 지적 활동을 수행하던 조선인들에게, 한어가 개념어로 인식되고 다른 외국어가 구체적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어 사전인 『譯語類解』를 제외한 다언어사전들은, 한어 표제어가 이중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또한 공통적이다. 표제항 내에 상위개념어로서 존재하는 한어 표제어는, 한국어와 외국어의 공통적인 의미소를 관장하는 매개 역할, 즉 목표언어의 하나로 기능하면서도,[24] 학습 대상언어인 기점언어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유해류에 나타나는 한어 표제어의 성격이 더 면밀히 검토된 후에야 단정 지을 수 있을

---

23 연규동(1999)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유해류의 분류 체계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역원 역학서의 고유한 체계를 보여준다.

24 홍종선(2008:134)에서는 '『漢淸文鑑』은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와 만주어로 대역한 사전'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交隣須知』에 대해 '여기에서 올림말 위치에 있는 한어는 당시 동양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학습을 위한 중간 언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과 상충한다. 『漢淸文鑑』의 한어 표제어도 『交隣須知』의 한어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대역 대상이 아니라 중간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것이다.

6.1.4. 조선의 만주어 사전 편찬과『漢淸文鑑』

조선의 만주어 사전은 『同文類解』와 『漢淸文鑑』 두 종만이 전해진다.[25] 『同文類解』는 跋文에서 『淸文鑑』, 『大淸全書』, 『同文廣彙』 등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譯語類解』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류명이나 한어표제어에서의 일치 정도는,[26] 『同文類解』의 제작에 『譯語類解』의 체재와 표제어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규동(1999:38)에서도 『同文類解』의 편찬자들이 기본적으로는 『譯語類解』의 분류 기준 또는 전통적인 한국식 분류 기준을 따르면서, 저본이라고 밝히고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보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재와 표제어뿐만 아니라 표제항 내 언어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부가기호 사용 양상도 기본적으로는『譯語類解』에서 비롯되었다. 한 행을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표제항씩 배치한 구성도 두 문헌이 일치하며, 한 장에 10행씩 20개의 표제항을 수록한 양상 역시 일치하는 점이다.

『漢淸文鑑』의 편찬에는『同文類解』가 큰 영향을 미쳤다.『同文類解』의 수록 어휘 4796개인데 그 중『漢淸文鑑』과 만주어 표제어가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것은 3600여 개이다. 그 중 한국어 대역어가 일치하는 것은[27] 2500여 개로『同文類解』의 전체 어휘 중 53% 정도의 어휘를『漢淸文鑑』이 참고하였거나 옮겨왔다고 할 수 있다.

---

25 1691년에 『同文類集』이 간행되었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26 연규동(1999:31-38)에서는 『同文類解』와 『譯語類解』가 부류명과 표제어에서 일치하는 정도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두 문헌에서 일치하는 표제어는 1017개로 『同文類解』는 21%의 어휘를 『譯語類解』의 표제어를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류명에서 일치하는 것도 36개로 66%의 일치율을 보여준다.

27 표기법의 차이나 수식 어구의 차이는 어형에 따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同文類解』는 만주어 사전이지만, 문헌 전체에 만주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주어 어휘는 한글로 전사되어 기록되었다.[28] 만문의 노출 없이 한글 표기로 원어의 어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전사되었으며, 『同文類解』에서 사용된 전사 방식은 『漢』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만문 전석의 전사에 사용된다.

사역원 청학서에 나타난 한글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성백인(1984)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바와 같이, 원문자가 병렬 배치되었을 때 사용하는 간략 전사법과, 원문자 없이 표기할 때 사용하는 문자 복원이 가능한 정밀 전사법이 있다. 이 두 전사법은 사역원 편찬 청학서들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漢』 편찬자들이 범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청학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한자음에 대한 전사법이다. 한자음에 대한 표기법 전통은 『東國正韻』에서부터 시작되지만, 『漢淸文鑑』에서 사용한 방식은 이전의 한자음 표기 방식과는 달리 만주자로 전사된 한자음을 기반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친 형태이다. 『漢淸文鑑』에서 사용한 한자음 전사법은, 공식 간행된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으나,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五方元音』 訓民正音 音解本[29]에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며(曲曉雲 2012),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문 주음 『千字文』의[30] 상단 만문 주음 부분에는, 역시 유사한 방식의 한자

---

28 『同文類解』의 만주어 한글 전사법에 대해서는 성백인(1974), 고동호(2013)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9 曲曉雲(2012)의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실제 문헌을 확인하지 못해 音解本이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다. 한자에 한글로 음만을 붙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30 ark:/12148/btv1b10507988r 프랑스 국립 도서관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서는, 이 『千字文』이 16세기 조선 판각이라고 하였으나,(Texte chinois et transcription en mandchou, le coréen a été rajouté à la main, en rouge. Impression coréenne du XVIe siècle. Ce volume (incomplet à la fin) peut-être considéré comme un exemplaire unique. Il est cité parmi les ouvrages employés en 1469 dans les examens de mandchou et perdu depuis.) 문헌에 사용된 만문이 유권점자이기 때문에 16세기 문헌일 수는 없다. 또한 이 설명은 Caurant (1894-1896:79)이 淸語類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千字文』과 유사하나, Caurant의 기술은 조선 여진학/청학에서 사용된 문헌 종류로서의 『千字文』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음 전사 표기가 주필 혹은 흑필로 기입되어 있다. 즉『漢淸文鑑』의 한자음 한글 전사법은,『漢淸文鑑』에서만 일회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되고 활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漢淸文鑑』은『御製增訂淸文鑑』을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전 편찬 전통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조선의 독자적인 사전 편찬 전통 역시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어휘의 분류 체계와 배열 순서는『增』을 따르고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체계는 조선의 전통적인 어휘 사전들의 체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增』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미시구조 체계는, 만주어 뜻풀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역시 전통적인 사전 체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만주어 어휘와 한자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법도 사역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漢淸文鑑』은『御製增訂淸文鑑』의 사적, 유형론적 의의를 이어받으면서도, 동시에 조선의 사전 편찬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전이라 할 수 있다.

6.2. 유형론적 의의

『漢淸文鑑』은 알파벳순이 아닌 의미 부류별로 어휘가 배열된 사전이며,『漢淸文鑑』에 사용된 문자와 언어의 성격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적 외국어 학습자를 전제로 한다. 또한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관계와 한어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漢淸文鑑』은 단순한 다언어사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漢淸文鑑』의 외국어 학습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절에서는 이 각각의 측면이 갖는 의의에 대해 좀 더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漢淸文鑑』의 독특한 유형론적 특성들은, 현대에 활발하게 간행되고 있는 다언어사전 유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6.2.1. 의미 부류별 분류사전

현대의 사전에 대한 여러 정의들에서 서로 일치하는 관점 중의 하나가 어휘 목록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대의 많은 사전들은 고유 문자 체계에 존재하는 형태적 배열 순서를 따라 구성된다.[31]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사전의 배열순서는 곧 알파벳 순서인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표제어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는 것의 장점으로 검색의 편의성 이외의 것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종이사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알파벳 배열순서가 갖는 유일한 장점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알파벳순의 배열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으며, 전통적인 의미별 분류방식에 대해서도 평가가 인색한 편이다. 그나마 박형익(2004:525)에서는 '어휘들의 위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어휘의 여러 종류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언어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외의 사전학자들로부터는 일찍부터 알파벳순 배열사전의 단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알파벳순 배열을 옹호하는 Zgusta (1971:282-290)의 경우, 그는 알파벳순 배열이 가장 모호함이 덜하고 단순한 방식이므로 최적의 배열방식이며, 동의어나 어원 등 의미나 파생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전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 장점이 있는 사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알파벳순 배열이, 접미사에 의한 파생관계는 쉽게 보여주지만 접두사에 의한 파생관계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나, 형태

---

31 문자 체계마다 고유하게 존재하는 형태별 배열 순서를 편의상 알파벳 순서로 통칭한다. 알파벳순 사전은 어휘의 발음이 아니라 형태에 근거해 배열된 사전이다. 알파벳순 사전에 철자와 발음의 괴리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 유사성으로 인해 의미나 어원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어휘들이 인접해 나타나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고 있다.

Jackson (2002:145-147) 역시 알파벳순 배열 사전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어휘들의 파생관계나 어원 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것보다 더 치명적인 점은, 어휘를 고립적인 개체로 취급하는 원자론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황지엔화(1985, 2014:131-133)에서는 '자모 순서로 배열하는 사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Matoré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미별 부류 사전의 단점인 검색의 불편함은 색인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형태 중심 배열 사전은 인간의 언어가 정신에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체라는 점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의미 부류별 사전은 최근에 나타난 유형이 아니다. 중국 최초의 사전인 『爾雅』를 비롯하여, 영국 Ælfric의 『Glossary』 역시 의미별 분류 사전이다. 라틴어 사전인 하드리아누스 2세의 『만물 분류 용어집』(Nomenclator omniom rerum, 1567)도 마찬가지이다. 알파벳순 사전이 출간된 이후로도 의미부류별 사전 편찬의 시도는 계속 이어진다.[32] John Amos Comenius가 저술한 『Janua linguarum reserata』(1629)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1668년에는 John Wilkins가 『An Essay Towards a Real Character, And a Philosophical Language』를 출판하였다.(Jackson 2002:147-148)

의미부류별 사전은 공통적으로 언어와 지식, 그리고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에 기반한다. 그러나 조남신(2015:219)은 '살아있는 의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언어에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단어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매우 정확한 목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32 최초로 알파벳순 배열을 보여주는 사전은 라틴어 사전인 Verrius Flaccus의 『De verborum significatu』(기원후 20년 이전)이며, 영어사전으로는 Robert Cawdrey의 『A Table Alphabetical of Hard Words』(1604)가 최초이다. 중국 사전 중에서 문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된 사전의 효시는, 최초로 부수별로 한자를 분류한 『說文解字』(121)를 들 수 있다.

일반사전에서 모든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는 어려움과, '개념으로서 단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황지엔화(1985, 2014:133) 역시 '형태 순서 배열 사전에서는 어떤 수의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의미 순서 배열에서는 의존할 엄격한 한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의미별 부류사전 편찬을 시도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조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의미별 부류사전에 비해 알파벳순 사전의 장점을 피력하지는 못한다.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기술의 문제는 모든 언어 사전들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휘가 포함되어야 할 의미 단위를 규정하기 힘든 문제는 어휘의 중복 수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하나의 의미를 갖는 어휘는 사전에 한 번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알파벳순 사전의 관습이 물려준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편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찬하는 사전의 의미 분류 체계가 인류의 지적 보편성을 담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목표일 것이며, 현존하는 분류 사전들이 보여주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 분류 체계가 아닌, 편찬자가 포함된 세계의 문화적 사상적 특수성이다. Ælfric의 『Glossary』가 반영하는 세계는, 신, 인간, 동물, 식물, 문명의 순서로 구성되는 세계이다. (Jackson 2002:147-148) 그리고 『爾雅』가 반영하는 세계는 천문, 지리, 식물, 동물로 구성되는 세계이다. 보편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분류 사전의 분류 체계는 해당 언어 어휘의 의미와 類的 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가 공유하는 시대의 언어와 지적 세계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분류 사전을 구성하는 각 의미 부류 내에서도 어휘들은 무작위의 순서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편찬자가 의도한 고유의 배열 순서를 갖게 된다. 개별 항목 내에서의 어휘들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될 수도 있고, 의미 부류 내에서의 어휘 관계에 따라 배열될

수도 있다. 『增』을 비롯한 『漢』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部와 類와 則의 구성은 개념의 위계를 반영하며, 한 則내에서도 어휘들은 선행하는 어휘로부터 개념적으로 순차적인 위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표제항 내에서 표제어가 개념어의 역할을 하며, 해당 어휘의 뜻풀이가 이를 구체화시켜 구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도 유사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의미 부류에 의한 분류 방식과 한자(어)를 표제어로 삼는 것은, 서로 별개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의미 부류별 배열 방식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상위 개념에서부터 하위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즉 관념적이거나 물리적인 하늘로부터, 땅과 인간, 동식물, 물고기, 곤충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의 어휘 표제항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제어 위치에 존재하는 한자(어)는 풀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표제항 전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는 방식은, 거시구조에서부터 미시구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흐름에서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漢』의 의미 부류별 구성은, 외국어 어휘 학습에 더 용이하다. 어휘의 의미는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어휘들과의 의미 관계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이미지로 습득될 수 있으며, 해당 어휘가 사용될 화용적 맥락에서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점은 기점언어의 어휘를 목표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동적 학습 사전의 기능을 넘어, 목표언어의 어휘를 다시 기점언어의 어휘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능동적 학습 사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2.2. 전문가용 사전

일언어사전이 편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이언어사전은 본질적으로 학습사전의 속성을 지닌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학습사전은 일반적으로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사전이며(조남신 2015:263),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범위에 따라, 단순히 외국어를 학습 중인 학생들만이 아닌, 모국어 학습자나 각종 전문 분야의 학습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사전의 속성을 하위 분류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사전이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지점이다.

『漢』의 물리적 형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漢』의 사용자는 당연히 조선인이며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에도 익숙한 지식인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나 한어에 대한 학습 동기와 함께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는 서술식 풀이로 어휘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문 해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문 전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만주어 실력 역시 요구된다.[33] 또한 문자를 그대로 환원 가능한 전자 방식이 아니라 만주어 음성형을 반영한 전사 방식으로 표기된 것은, 구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漢』의 편찬자들은 만주어나 한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학습과 참조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 혹은 통역사 집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역원 역관들이 그들 자신의 필요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사전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漢淸文鑑』은 편찬자들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33 만문 전석이 한글로 전사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만문보다 한글 전사 표기가 물리적인 부피를 덜 차지하기 때문에 문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漢』이 우철 문헌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기술해야 하는 만문을 병기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전 이용자가 입말을 더 중요하게 학습해야 하는 역관들이기 때문에 한글 표기가 더 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있다.

사용자를 특정한 요구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하여 설정한 것은, 이언어 학습사전이 갖는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Atkins (1996:515-546 조남신 2015:237 재인용)에서는 이언어사전의 단점으로, ① 지면상의 문제로 두 언어의 유사점이 부각되고 차이점은 간과되기 쉽다는 점, ② 기점언어의 내용 변화에는 많은 관심이 부여되지만 목표언어의 표현 변화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③ 두 언어 사용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 특수적인 표현이나 언어 특수적인 현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어떤 표제어들은 특정 사용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첫 번째는 매우 유의미한 지적이며, 이언어사전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요소일 것이다. 현대의 사전들은 종이사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언어사전의 속성이 갖는 단점으로는 남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단점은 이언어사전의 단일방향성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용자 언어에 대한 정보가 특정 사용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네 번째 지적과 상충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점 역시 이언어사전 편찬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극복해야 할 지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일언어사전이라도 통시적 요소를 반영한 사전이라면 함께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네 번째 단점은 모든 사전에 해당하는 요소일 수 있다.

『漢淸文鑑』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제한된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여러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표제어들은 삭제되었고, 심지어 표제항 내의 언어정보들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제된다. 지면을 많이 요구하는 풀이식 기술은 한문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한문에 익숙한 사용자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일 것이다. 목표언어의 표현 변화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것이며, 어휘는 기본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대역어가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한적인 맥락에 놓이는 경우 의역도 과감하게 나타난다. 오히려 화용론적 맥락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대역은,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를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용자의 수동적인 이해능력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로의 발화 생산력을 신장시키는 능동적인 기능에 부합할 것이다.

6.2.3. 이중 언어 사전

『漢淸文鑑』은, 문헌에 사용된 언어의 수로 판단하면다언어사전이지만, 단순한 다언어사전이 아니다. 일언어사전은 기술 대상인 언어(기점언어)와 기술하는 언어(목표언어)가 동일한 사전이다. 이언어사전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된 사전이다. 다언어사전의 일반적인 형태 역시 하나의 기점언어에서 출발한다. 기점언어로 된 표제어에 상응하는 여러 목표언어의 대역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다언어사전의 형태이다.

표제어의 배열 순서는 기점언어의 어휘를 기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언어사전의 대역형들은 이언어사전의 대역형과 성격이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라 하더라도 여러 언어가 대상이 되었을 때 의미 차이의 간극이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언어사전의 대역어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소에 국한하여 서로 대등하게 나열될 수밖에 없다. 이 때 기점언어는 상위 개념어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목표언어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어휘 등가물일 수도 있다.

사역원에서 간행했던 외국어 사전도 체재의 물리적 형태는 다언어사전의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언어사전인 한어 사전류를 제외하면, 사역원의 다언어사전들은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등의 개별 언어

사전이라 하더라도, 대역 구조는 기점언어 위치에 한어를 두고 이에 대해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의 대역어가 나란히 제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역원의 유해서들은 기점언어인 표제어의 위상이 나열된 목표언어의 어휘들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간행되어 온 외국어 사전들은, 언제나 한어가 개념어로 제시되며 그에 상응하는 외국어 대역 어휘들이 대등한 구조로 나열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漢』 표제항의 물리적 구성은 사역원 유해서들의 전통적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漢』은 저본이 분명한 사전이라는 점에서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漢』의 저본인 『增』은 기점언어가 만주어이며 목표언어가 한어이다. 그리고 『漢』은, 범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만주어 어휘와 한어 어휘가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대역의 대상이다. 즉 기점언어가 두 언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표제 한어는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漢』의 대역어로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제 한어와 대역어가 동일한 것을 등가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게 보면 이는 번역되지 않은 것, 즉 번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漢』이 수록하고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은, 『增』에서 대역으로 사용한 한어 어휘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어휘의 발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어휘적 측면에서 한어 표제어는, 경우에 따라 대역 대상인 기점언어이기도 하지만, 대역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1차 목표언어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漢』은 이를 하나의 목표언어로 대역하지 않았다. 『漢』이 대역에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와 문어 중국어인 한문이었다. 그러나 이 때 한국어와 한문이 동일한 등가물을 제시하는 동등한 대역 언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위치에 있다. 즉 목표언어가 두 개의 언어인 것이다.

『漢』의 기점언어와 목표언어 관계를 고려하면 『漢』을 단순한 다언어사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점언어의 이언어 구조와 목표언어의 이언어 구조가 중첩된 형태이면서, 동시에 한어 표제어는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양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기점언어 어휘이면서, 사용자의 이해가 어렵지 않거나 이미 한국어 내에 포섭되어 있는 동일 어형의 한자어와 의미 간극이 없을 경우, 대역 대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목표언어 위치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 『漢淸文鑑』이 유형론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놓이는 지점 중 하나는, 일언어 뜻풀이를 수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언어로 대역어를 제시하는 이언어사전의 기능과 기점언어로 표제어의 의미를 풀이한 일언어사전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외국어 학습 사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유형을 이언어화된(bilingualised) 사전이라 부르는데, 일언어사전의 표제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나 전체가 목표언어로 번역되어 제시되는 것이다.

Щерба(1974)에서는 기점언어의 어휘에 대해 목표언어의 대역어와 함께 목표언어로 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하는 이언어사전을 제안하는데, 이 경우 뜻풀이는 일언어사전의 뜻풀이와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Щерба는, 외국어 교수법의 근본 원칙은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허용하는 한 외국어로 시도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조남신 2015:239) 이러한 관점을 따르자면, 기점언어에 대한 목표언어의 대역어와 함께 기점언어로 작성된 뜻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 더욱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漢淸文鑑』은 사용자 집단을 학습 수준과 필요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한어와 만주어에 대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식을 전제한 소수의 전문가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사전의 잉여성을 극도로 줄이는 대신 외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한 사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배경을 반영하여 기점언어를 목표언어로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중의 목표언어 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두 개의 기점 언어를 대역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업에 대응하며,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점언어로 된 뜻풀이를 차용하였다.

『漢淸文鑑』이 드러내는 외국어 사전 편찬의 방법론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결코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의 다언어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다언어사전 편찬의 요구에, 문화 특수적이고 언어 특수적인 유형을 보여주면서도 보편적인 사전 이론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클 것이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御製增訂淸文鑑』을 저본으로 조선에서 간행한『漢淸文鑑』을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개별 문헌으로서의 분석을 넘어 다언어사전으로서의 특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御製增訂淸文鑑』과의 대조를 통해『漢淸文鑑』의 독창적인 편찬 방식과 의의를 밝혔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의 축적된 다언어 사전 편찬의 전통 속에서『漢淸文鑑』을 새로이 평가하였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제, 문화, 외교적 관계의 압력 속에서 조선은 한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더욱 본격적인 성과를 거둔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각종의 외국어 사전들을 낳았다. 외국어 어휘의 음성은 동일하게 조선의 문자인 한글로 표기되었지만, 각 표기 방식은 해당 외국어의 음성 특징에 따라 별개의 체계를 갖는다.『漢淸文鑑』에 사용된 세 가지 전사 체계는 조선의 외국어 학습과 사전 편찬 전통 속에서 성숙해 온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다.『漢淸文鑑』의 구조 역시 조선의 사전 편찬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漢淸文鑑』의 의미별 분류 체계는 일차적으로는 저본인『御製增訂淸文鑑』에 기인하지만, 이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시구조상에서는 저본의 체재를 따르지 않고 조선의 관습적인 구조로 변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즉『漢淸文鑑』의 의미 부류별 분류 체계는 조선의 편찬자들이 제작해 온 각종 다언어 사전의 체계와 동일한 궤에 놓여 있는 것이다.

둘째, 언어 사전으로서『漢淸文鑑』의 분류 체계를 재평가하였다. 문자의 형태나 소리에 기반한 어휘 배열 사전은 각 어휘의 의미 관계를 도외시한다. 그러나 어휘는 다른 어휘의 의미 영역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휘의 의미를 의미역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해당 의미

장의 상위 개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파생시켜 배치하는 『漢淸文鑑』의 구성 체계는 세계를 이해하는 한자 문화권의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漢淸文鑑』의 저본인 『御製增訂淸文鑑』이나 『御製淸文鑑』이 십이자두 순의 총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편찬자들이 문자와 소리에 기반한 어휘 배열 순서가 갖는 검색의 편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본문 체계가 어휘 검색에 더 불편할지 모르는 의미별 분류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전 편찬자들에게는 의미별 체계가 언어 사전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며, 검색의 편의성보다 어휘들의 의미 관계를 더 중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御製增訂淸文鑑』과 비교하여 『漢淸文鑑』에서 위치가 바뀐 단어들 역시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반영하여 재배치된 것이다.

셋째, 『漢淸文鑑』의 미시구조 체계를 조선의 사전 편찬 전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御製增訂淸文鑑』과 달리 『漢淸文鑑』의 미시구조가 한어 표제어를 가장 앞세우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어를 더 숭상하는 비언어적인 이유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개별 표제항 내에서 표제어들이 배치된 순서는 『漢淸文鑑』이 한어 표제어를 한국어와 만주어로 대역한 사전인 것으로 오인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며, 한어음 표기법을 주되게 다룬 범례의 편향과 함께 한어 사전의 기능이 더 부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언어 뜻풀이가 수록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漢淸文鑑』의 미시구조는 조선의 전통적인 다언어사전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저본의 만주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확장하여 한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더 실용적인 사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한어 표제어의 성격 또한 상위개념에서부터 구체화되는 거시구조 체계와 마찬가지로 개별 표제항의 상위 개념으로서 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漢淸文鑑』의 체재 개편과 대역 방향은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학습 사전의 기능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

였다. 『漢淸文鑑』의 사용자는 한어와 만주어에 대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학습자, 즉 역관들로 제한된다. 한문에 익숙하고 만문 뜻풀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인으로 사용자가 제한됨으로써, 명확한 파생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별도의 근거 없이도 대거 생략할 수 있었으며, 대역 방식도 단순 직역에 머무르지 않고 화용론적 맥락이 반영된 적극적인 번역과 적은 부피 내에서의 밀도 높은 어휘 정보의 수록이 가능했다. 또한 만주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만문 뜻풀이의 존재는, 개별 단어의 한어 대역어나 한국어 대역어가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의미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원어에 대한 직관을 함양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漢淸文鑑』의 언어 관계가 평면적 다언어 구조가 아닌 기점언어와 목표언어가 각각 중첩적인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혔다. 『漢淸文鑑』은 저본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관계 역시 명백하다. 이 관계는 표제항 내의 어휘 배열 순서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며, 만주어 어휘를 기준으로 구성된 『御製增訂淸文鑑』의 체재가 한어 어휘를 앞세운 『漢淸文鑑』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도 근거가 된다. 또한 『漢淸文鑑』의 한국어 대역어는 피상적으로 한어 표제어를 직역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이는 한어 어휘와 만주어 어휘가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국한되며, 미세한 의미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한어 표제어보다 만주어 표제어를 기점화하여 대역되었기 때문이다. 즉 『漢淸文鑑』은 두 개의 기점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기점언어는 위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차적인 기점언어인 한어 어휘는 동시에 목표언어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한어 표제어는 경우에 따라 대역되지 않고 그대로 신주에 사용된다. 결국 『漢淸文鑑』은 만주어와 한어라는 두 개의 기점언어와 한국어와 한문이라는 두 개의 목표언어로 기술되었으면서, 기점언어는 서로 위계 관계에 놓여 있으며, 한어는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의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섯째, 『御製增訂淸文鑑』에서 『漢淸文鑑』으로의 개편 양상을 통해, 편찬 당시 조선의 사역원 학자들의 언어관과 만주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의 부피를 줄여 최대한의 간소함과 실용성을 목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수록 어휘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었을 것이다. 즉 『漢淸文鑑』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은 당시 편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긴 어휘들이며, 수록 표제항의 재구성은 편찬자들의 언어관이 투영된 것이다. 또한 만문 전석의 변형 양상은 편찬자들의 만주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반영한다. 한국어 대역 여부와 그 대역 내용은, 당시 만주인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인식한 언어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는 만주어와 한국어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어, 한국어, 한어의 세 언어 속에 놓인 것이다.

일곱째, 『御製增訂淸文鑑』과 『漢淸文鑑』의 대조연구는 또한 淸文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漢淸文鑑』의 저본 확인 작업은 『御製增訂淸文鑑』의 이판본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또한 『御製增訂淸文鑑』이 『御製淸文鑑』을 증보 개편한 것과 유사하게 『漢淸文鑑』은 『同文類解』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同文類解』 편찬 경험을 고스란히 계승한 것이다. 즉 『漢淸文鑑』에는 『御製增訂淸文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御製淸文鑑』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漢淸文鑑』은 또한, 만주인들에 의해 편찬된 일련의 淸文鑑들과는 달리 제3자의 객관적 시점과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인들의 직관을 통해 당대 어휘 의미를 검증할 수 없는 현대 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본고의 연구는 『漢淸文鑑』을 사전학적으로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淸文鑑의 편찬과정과 언어 변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를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漢淸文鑑』과 『御製增訂淸文鑑』의 면밀한 대조 분석은 이후 淸文鑑 연구를 비롯한 만주어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姜信沆(1978),『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搭出版社.

姜信沆(2000),『韓國의 譯學』, 서울대출판부.

고동호(2000),「漢淸文鑑 '一云' 만주어 語句의 통시 음운론적 특징」,『알타이학보』10, 57-79, 한국알타이학회.

고동호(2004),「시버어의 음운구조 연구」,『알타이학보』14, 1-22, 한국알타이학회.

고동호(2013), 「同文類解 만주어의 한글 표기」, 『알타이학보』 13, 23-744, 한국알타이학회.

高東昊(2014),「漢淸文鑑의 構成에 대한 分析的 考察 一變改 樣相을 中心으로一」,『朝鮮學報』231, 1-24.

曲曉雲(2012),「五方元音 訓民正音 音解本 연구(1)」,『중국어문학논집』73, 41-57.

郭忠求(1980),『十八世紀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충구(2006),「초기 露韓辭典의 편찬 經緯 및 체제와 구조」,『한국사전학』7, 35-64.

권혁승(2003),「영국사전학의 전통과 최근 학습자사전의 혁신」,『한국사전학』1, 233-280.

金愛英(2014),「佛經音義에 引用된 『通俗文』 考察」,『중국어문학논집』86, 31-53.

김양진(2014),「만주어 사전 『어제청문감』(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한국사전학』24, 33-66.

김영일(2001a),「한청문감(漢淸文鑑) 속의 우리말 난해어(구) 연구」,『어문학』73, 21-45, 한국어문학회.

김영일(2001b),「『한청문감(漢淸文鑑)』속의 우리말 표기 문제」,『한국학논집』28, 87-1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김은희(2013),「선교사가 본 중국어와 만주어의 특징 고찰 —『耶穌會士

中國書簡集』의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115-122.
김주원(2002), 「小學集註(滿文)와 飜譯小學(滿文) 硏究」, 『알타이학보』 12, 35-62.
김주원(2002), 「임술년(壬戌年) 영영판(嶺營版) 『맹자언해(孟子諺解)』의 간행 연대」, 『문헌과 해석』 21, 123-135.
김주원(2013), 「聖諭廣訓의 만주어 연구」, 『알타이학보』 23, 45-67.
김주원, 고동호, 정제문(2009), 「滿文 詩經의 飜譯 樣相 硏究」, 『알타이학보』 19, 1-30.
남기심 외(1987), 『사전 편찬학 연구 (제1집)』, 한신문화사.
남기심 외(1988), 『새 한국어 사전편찬을 위한 사전 편찬학 연구 (제2집)』, 탑출판사.
리득춘(1999), 「『한청문감(漢淸文鑑)』 범례 고찰」, 『한글』 245, 21-48.
閔泳珪(1956), 「解題」, 『韓漢淸文鑑』(影印本), 延禧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1-13.
박상철(2015), 「『御製淸文鑑』 동사류 표제어의 상 부류」, 『언어학』 73, 133-156.
박영배(2004),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탄생 배경과 의의」, 『한국사전학』 4, 7-29.
朴恩用(1969), 『滿洲語文語硏究』, 螢雪出版社.
朴恩用(1971), 「初刊 漢淸文鑑에 對하여」, 『曉星女子大學 硏究論文集』 8·9, 145-156, 曉星女子大學.
朴恩用(1987), 『滿洲語辭典資料箋』(韓漢淸文鑑索引), 曉星女子大學校 國語學硏究室.
朴恩用(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에 대한 論評」,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Ⅰ(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726-7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박형익(2012), 『한국 자전의 역사』, 도서출판 역락.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 개관」, 『한국사전학』 14, 7-51.

成百仁(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72-102.(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70), 「影印本 同文類解에 對하여」, 『명지어문학』 4, 95-104.(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75), 「滿洲語 音韻史硏究를 위하여 一淸文啓蒙 異施淸字 硏究一其二」, 『明大論文集』, 137-161.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76), 「滿洲語 音韻史硏究를 위하여 一淸文啓蒙 異施淸字 硏究一其一」, 『언어학』 1, 73-98.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77), 「만문 특수문자의 로마자 표기법」, 『언어학』 2, 185-197.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78), 「만문 무권점 십이자두 연구」, 『말』 3, 97-134.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1), 『만주어 음운론 연구』, 명지대학교출판부.

成百仁(1982), 「『御製淸文盤』 解題」, 영인 『御製淸文鑑(下)』, 曉星女子大學校 阿爾泰語硏究所, 201-206.(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3), 「『漢淸文鑑』에 대하여」, 『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867-887, 知識産業社.(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4),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 使用 一司譯院 淸學書의 만주어 한글 표기에 대하여一」, 『韓國文化』 5,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21-63.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6),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 『東方學志』 52,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219-258.(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8), 「『同文類解』와 『漢淸文鑑』」,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Ⅰ(제5회 국제학술회의 세계한국학대회 논문집)』, 710-7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88~1991), 「조선조 청학서 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90),「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알타이학보』2, 27-69.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91),「방언집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成百仁(1994),「現存 司譯院 淸學書와 그 硏究」,『알타이학보』1-20. (성백인(1999)에 재수록)

成百仁(1998),「『漢淸文鑑』 解題」,『漢淸文鑑』, 1-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弘文閣.(성백인(1999)에 재수록)

성백인(1999),『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성백인(2000), 「『한청문감』」,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 해석사, 243-267.

성백인(2003),「『御製增訂淸文鑑』의 異版本 識別을 위한 特徵 調査」,『한국어연구』1, 149-175.

성백인, 정제문, 김주원, 고동호(2004),「『御製增訂淸文鑑』의 異版本 識別을 위한 特徵 調査[補遺]」,『한국어연구』2, 93-98.

宋基中(2000),「朝鮮時代 女眞學/淸學」,『알타이학보』10, 105-116.

愼鏞權(1995),「『漢淸文鑑』의 漢語音 表記에 대하여」,『언어연구』10 · 11 · 12, 57-80, 언어연구회.

안삼환(2004),「『독일어사전 Deutsches Wörterbuch』의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하여」,『한국사전학』4, 73-95.

安相炳(1997),「『漢淸文鑑』의 國語에 對한 表記法·音韻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안재원, 김현권(2006),「『Parvum Vocabularium Latino Coreanum(羅鮮小字典)』과 『羅韓辭典』의 학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한국사전학』7, 7-33.

양오진(2006),「朝鮮時代 外國語辭典類에 대한 考察」,『중국학연구』37, 271-292.

연규동(1994),「만주어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漢淸文鑑을 중심으로」,『알타이학보』4, 67-96, 한국 알타이학회.

연규동(1996),『近代國語 語彙集 硏究 一類解類 譯學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연규동(2014), 「청학서: 선조들이 만난 만주어」, 『새국어생활』 24-1, 39-60.
오미영(2008),「일본의 고사전에 대하여」,『한국사전학』11, 31-63.
劉昌惇(1957), 「漢淸文鑑 語彙考 一文獻語와의 對比一」, 『國語國文學』 17, 3-14, 국어국문학회.
유현경, 남길임(2008),『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李得春(1999),「『漢淸文鑑』凡例考察」,『한글』245, 21-48, 한글학회.
李得春(2001), 「『漢淸文鑑』에 對하여」, 『朝鮮語歷史言語學硏究』, 도서출판 역락.
이병근(2000),『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승재(1995),「이두(吏讀)의 사전학적(辭典學的) 특성(特性)」,『애산학보』16, 103-134.
이승재(2008),「韓國 最初의 辭典을 찾아서」,『한국사전학』11, 7-30.
이지영(2009),「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韓佛字典』의 특징－근대국어 유해류 및 19세기의『國漢會語』,『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문화』48, 73-92.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395-425.
鄭光(1978),「類解類 譯學書에 대하여」,『國語學』7, 159-188.
정승혜(2014), 「물명(物名)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 연구』 18, 79-116.
정제문(2008),「『御淸』,『增淸』어휘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처리」, 규장각 제3차 집담회.
정제문, 김주원(2008),「만주어 사전『御製淸文鑑』(1708년 序)의 연구 一 그 뜻풀이에 주목하며」,『언어학』52, 117-143.
조남신(2015),『사전학』, 한국문화사.
조남호(2016),「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조선시대 어휘 자료집의 종합적 검토』(2015 겨울 국어사학회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189-207.
최계영(2015), 「『漢淸文鑑』 滿文 詮釋의 변개 양상」, 『언어학』 73, 81-110,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최계영(2016), 「『한청문감』의 뜻풀이 유형」, 『한국사전학회 제28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崔宰宇 編著(1993), 『漢淸文鑑 分類辭典』, 도서출판 리을. (漢淸文鑑 韓國語 索引·漢淸文鑑 中國語 索引·漢淸文鑑 綜合 索引).
崔宰宇(1990), 「『漢淸文鑑』의 文獻的 價値에 對하여」, 『어문연구』 18(3)(통권67호), 328-3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崔鶴根(1969), 「影印本『韓漢淸文鑑』에 對해서」, 『겨레어문학』 5, 53-64.
하영동(2007), 「프랑스 아카데미 사전—전통과 혁신」, 『한국프랑스학논집』 60, 67-94.
하영동(2014), 「리슐레의 Dictionnaire françois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87, 59-112.
홍윤표(2000), 「柳僖의『物名攷』」, 『어문연구28(4)』, 277-304.
홍종선(2008),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1)」, 『우리어문연구』 30, 117-143.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황선봉(1993), 「韓漢淸文鑑語彙硏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논문.
黃俊泰(1985), 「漢淸文鑑의 漢語 한글 轉寫에 對한 音韻論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江桥(2000), 『康熙『御製淸文鑑』硏究』, 北京燕山出版社
恩和巴图(1995), 『滿語口語硏究』, 內蒙古大學出版社.
李雄飛(2013), 「『御製增訂淸文鑑』刻本補敍」, 『滿語硏究』 57, 41-43.
崔宰宇(1997a), 「『漢淸文鑑』簡論」, 『民族語文』 第5期, 66-75, 中國社會科學院民族硏究所.
崔宰宇(1997b), 「『漢淸文鑑』的編排體例和語音轉寫」, 『中央民族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85-92, 中央民族大學.
崔宰宇(2003), 「『漢淸文鑑』與『御製增訂淸文鑑』的比較」, 『民族語文』 第2期, 65-69, 中國社會科學院民族硏究所.
崔宰宇(2005),『漢淸文鑑簡編』, 民族出版社.
崔平圭(1989),『漢淸文鑑之硏究』, 國立政治大學碩士學位論文
春花(2008),『淸代滿蒙文詞典硏究』, 遼寧民族出版社
黃建華(1987),『詞典論』, 上海辭書出版社 (황지엔화(2014),『사전론』, 박형익 외 역, 부키)

今西春秋(1958),「漢淸文鑑解說」,『朝鮮學報』12, 21-58.
今西春秋(1966), 「淸文鑑一單体から５体まで」, 『朝鮮學報』 39·40, 121-163.
小倉進平(1940),『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小會進平· 河野六郎 補注(1964),『增訂補注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新村出(1918), 『朝鮮司譯院日滿蒙語學書斷簡解說』. (東方言語史叢考(1927, 岩波書店)에 재수록).
安田章(1967),「類解攷」,『立命館文學』264. (安田章(1980)에 재수록).
安田章(1978),「『方言集釋』小考」,『朝鮮學報』89, 69-105.
安田章(1980),『朝鮮資料と中世國語』, 笠間書院.
岸田文隆(1989), 「淸學書に現れた滿洲語ハングル表記について 一特に滿洲字eに對する2通りのハングル表をめぐって一」, 『言語學硏究』 8, 17-38, 京都.
池上二郎(1950), 「滿洲語の諺文文獻に關する一報告」, 『東洋學報』 33(2), 97-118.
池上二郎(1954), 「滿洲語の諺文文獻に關する一報告(承前)」, 『東洋學報』 36(4), 57-74.
池上二郎(1963), 「ふたたび滿洲語の諺文文獻について」, 『朝鮮學報』 26, 94-100.
河內良弘(2014),『滿洲語辞典』, 松香堂書店, 京都

Béjoint, Henri (2010), *The lexicography of English : from origins to present*, Oxford

Courant, Maurice (1894-1896), *Bibliographie coréenne : tableau littéraire de corée*, Paris : Ermest Lerpix (모리스 꾸랑(1994),『韓國書誌』(李姬載 譯), 일조각)

Fontenelle, Thierry ed. (2009), *Practical lexicography : a reader*, Oxford

Gouws, R.H. (1996), Bilingual Dictionaries and Communicative Equivalence for a Multilingual Society, *Lexikos* 6, 14-31.

Green, Jonathon (1996), *Chasing the Sun*, London: Random House.

Grimm, Martin (1988), Bibliographic Survey, Manchu Translations of Chinese Novels and Short Stories: An Attempt at an Inventory, *The American Periodical Asia Major*, *3 series*, vol.1, No.2, 77-114, Princeton.

Hartmann, R.R.K.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Lexicography*, Longman.

Hartmann, R.R.K. ed. (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하트만(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서태길 외 역, 제이앤씨)

Hartmann, R.R.K. ed. (1986), *The history of lexicography : Papers from the Dictionary Research Centre Seminar at Exet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artmann, R.R.K. ed. (2003), *Lexicography : Critical Concepts, Vol.Ⅲ*, Routledge.

Ikegami, Jiro (1990), Significance of Korean Materials in the Study of Manchu, *Altai Hakpo 2*, 71-77, Journal of the Altaic Society of Korea.

Ilson, Robert (1984), *A Spectrum of lexicography : papers from AILA*, Brussels.

Ilson, Robert ed. (1986), *Lexicography : An emerging international profess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Jackson, Howard (2002), *Lexicography : an introduction*, Routledge

Kanda, Nobuo (1968), Present State of Preservation of Manchu Literature,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26*, 63-95, The Toyo Bunko.

Ko, Dongho (2012), Aspects of writing Manchu in Hanguel in Joseon Dynasty, *Scripta* 4, 69-9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Landau, S.I. (1984),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New York NY: S. Scribner [2nd edition 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란다우(2002),『사전편찬론: 예술성과 장인 정신』, 김영안, 강신권 공역, 한국문화사)

Lie, Hiu (1972), *Die Mandschu-Sprachkunde in Korea*, Indiana University Publications, Uralic and Altaic Series, Vol. 114,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estyan, Adam (2011), Arabic Lexicography and European Aesthetics: the Origin of *fann*, *Muqarnas Online* 28(1), 69-100.

Norman, Jerry (1988), *Chines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ng, Ki-Joong (1981-1982),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1392～1910),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54～56, 韓國研究院.

Yong, Heming & Peng, Jing (2007), *Bilingual Lexicography From a Communicative Perspective*, Amsterdam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Yong, Heming & Peng, Jing (2008), *Chinese Lexicography: A History From 1046 BC to AD 1911*, Oxford : OUP Oxford.

Zgusta, Ladislav (1971), *Manual of Lexocigraphy*, Mouton.

Abstract

A Lexicographical Analysis on *Hancheongmungam*

Gyeyeong Choe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cheongmungam(漢淸文鑑) is a multilingual dictionary, which was compiled in th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eighteenth century. It is both Manchu-Korean dictionary, and Chinese-Korean dictionary. It was produced based on 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 (御製增訂淸文鑑), by reducing the number of volumes and adding annotations, which were written in Korean or Classical Chinese for Korean interpreters to refer to.

This thesis has identified the *Hancheongmungam* as a unique dictionary on the view of lexicographical typology. It is a multilingual dictionary, but includes monolingual definitions. Moreover, the relation of the source languages with the target languages is dual-layered. It has two source languages—Manchu and Colloquial Chinese—, and two target languages—Korean and Classical Chinese. Colloquial Chinese acts as both a source language and a target language as well.

This research also shows that *Hancheongmungam* is a successor to the tradition of the dictionary compilation of the *Joseon* period. It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matic groups, and listed words thematically. It preferred to set Colloquial Chinese words as lemmas, though these Chinese words were actually target words for Manchu words in the original literature. Furthermore, its systems of transcription or transliteration followed and developed from earlier methods that *Joseon* compilers had investigated and utilized.

The users of *Hancheongmungam* were restricted to experts of Chinese or Manchu languages, particularly to interpreters, who were required to be proficient at Classical Chinese, Manchu scripts, and Manchu grammar. This allowed the compilers to reduce the size of the dictionary by omitting many derived words, polysemys, predictable collocations, and redundant metalinguistic phrases. Moreover, Korean target words c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pragmatic context.

keywords : *Hancheongmungam*(漢淸文鑑), *Yuzhi Zengding Qingwenjian*(御製增訂淸文鑑), multilingual dictionary, Manchu language

***Student Number* : 2007-30726**